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다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9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335 호

금주 법구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라.

-법구경-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무료분지리의 아름다움 천축사 대전 논산시 부산면 송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잊어선 안될 '火宅' 교훈

지금 세계는 화염에 싸여 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나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로 보이는 과격 이슬람 자살테러단이 민항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심장을 강타한 이번 참사는, 곧장 CNN 전파를 타고 전세계 가정의 안방으로 파고 들었다. 그리고 세계는 경악과 분노라는 또 한번의 대폭발을 일으켰다.

만약 헐리우드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더라면 분명 '리얼리티'를 문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 어떤 재난영화나 전쟁영화보다 더 참혹한 광경을 연출했다.

분노는 핵폭발 이후의 버섯구름처럼 증폭되기 시작했다. 국내 언론은 '미국 심장부 강타'라는 헤드라인을 '미 전쟁수준 보복 선언', '보복 공격 임박'으로 바꿔 달아 나갔다. 테러리스트는 '성전(聖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쟁불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후 규명에 앞서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들의 진혼을 위한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생명의 존엄을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숨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지 그 비행기를 탔다는, 그 건물에 출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인사 한 마디 전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내 생명에 이 일을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탈을 새겨들을 형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미 스러진 생명의 그 지고한 가치를 생각하면 분노와 보복만이 그들의 혼을 위무할 유일의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사 이후, 아수와 천사의 속성을 함께 지닌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희생자들에게 눈물 머금은 꽃을 바치는 시민들과 '피의 화요일'을 환호하며 춤을 추는 팔레스타인 마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끝없이 폭발 장면을 반복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그래픽 화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매스컴과 그것에 '관음증(?)적'으로 반응하는, 시청자라는 이름의 인간에서도 양면성을 본다.

원인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걷히면서 드러난 문명간의 갈등, 미국의 패권주의,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오랜 반목 등. 물론 그것을 가리고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은 유명한 〈법화경〉의 화택의 비유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냥 두면 공멸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의 입장을 십분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넨다. 장전 상태인 응징의 폭탄이 떨어질, 어딘지 모를 그곳에 갓 태어난 새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번이라도 상기해 달라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원수조차 만들지 않는 데 있다.

음제학(취재 2부 부장)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백태 끼고 뒤틀림 현상 전국 확산
"방염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

문화재청 "원인분석 의뢰"

문화재청이 화재와 해충으로부터 목조문화재 보존을 위해 실시하는 방염·방충 도포작업이 오히려 목조문화재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해사찰 스님들은 목조문화재가 썩어가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현재 전국 사찰에서 진행 중인 방염 방충제 도포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더이상 훼손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김제 귀신사 대웅전, 익산 숭림사 보광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 등을 본지가 10~11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사찰에서 백태가 끼고 목재가 뒤틀어지며, 단청 벽화 등의 문양과 색이 퇴색되면서 바스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

피해 사찰 스님들에 따르면 목조건물들에는 6년에 한번씩 방염 방충제가 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문화재전문가는 방염 방충작업을 실시하는 해당업체가 약제를 섞은 비율이 적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너무 두껍게 도포작업을 하여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익산 숭림사 주지 지광스님은 "방염 방충제 도포작업 실시 후 목재 건물의 단청문양이 원형을 잃었고, 벽화는 퇴색되어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식물(철제)도 부식이 심하고, 도포작업 후 6~7개월이 지나도 마루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촉촉이 젖어 있을 정도로 습기가 많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98년에도 단청이 박락된다는 얘기가 있어 약품이 보완된 바 있다. 업체에서 약품을 과다하게 도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소에 원인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결과는 1년 후에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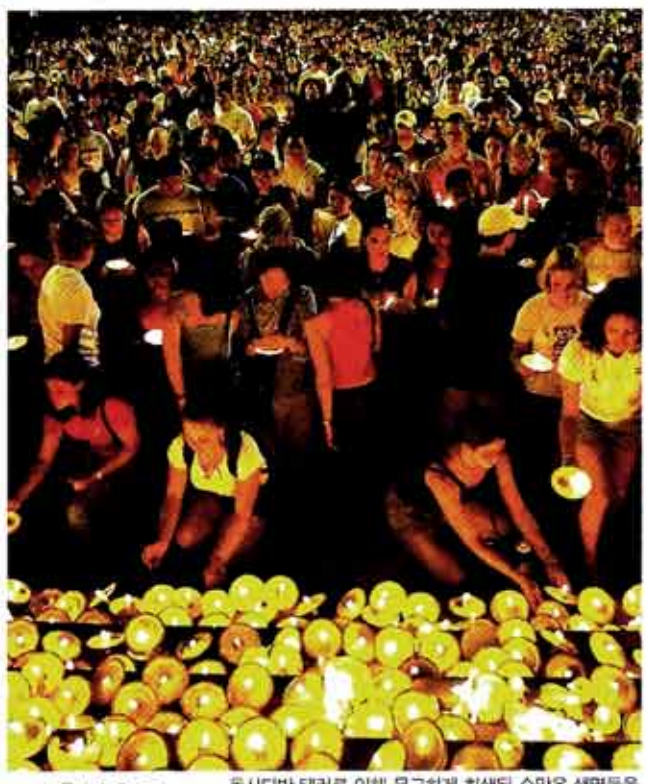
조계종 문화부도 "방염 방충 작업시 목재 및 해충의 종류, 사용목적, 용도 등에 따라 약제와 방법을 다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무재질을 손상시키고, 습기의 흡인성이 커지며, 금속류가 부패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장 정각스님은 "목조문화재 보존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숭림사 우화루 단청의 박락된 모습.



촛불추모 동시다발 테러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을 안타까워 하고 추모하는 행렬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1일 밤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타워 대학 학생들이 촛불을 켜며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기도를 올리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반환 서명운동

전등사, 10월 12~14일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도서반환을 기원하기 위한 2만개의 등불을 밝히고, 전사한 프랑스군을 위한 위령비 건립도 추진한다.

전등사는 병인양요(1866년 10월11일~10월26일)가 일어났던 시기인 10월 12~14일 전등사 대웅전과 강화읍 시가지 등에서 학술, 전시, 행사 등 3개 분야에 걸친 '삼랑성 역사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삼랑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하면서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외규장각 도서, 왜 반환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프랑스 도서관에서 약탈도서를 최초로 발견한 박병선 여사를 비롯, 정옥자 서울대 규장각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반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전등사는 서명운동 외에도 프랑스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약탈된 문화재 반환 관련 글을 집중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병인양요 당시 전사한 프랑스군을 위한 위령비를 건립, 프랑스 측과의 우호교류도 증진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9월 : 부석사 · 봉정사 · 용문사

고려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부석사 무량수전.

화엄종의 근본도량인 부석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목조건축물의 하나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늠름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 번씩 보고갈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여왕이 방문해 더욱 유명해진 봉정사 극락전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잘 이어받은 주심포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회전식 불경보관대인 윤장대가 있는 예천 용문사도 참배합니다.

- 출 발: 9월22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현대불교신문사

장 군 죽 비

◇비상시 대비 지방 분산 수장 국가 유물 나 홀로 집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 부족은 또 다른 도굴. (2면)

◇미국 테러 참사가 말하는 바, 신의 이름으로든 자유의 이름으로든 생명 유린이라는 점에서 죄악이다. (3면)

◇'복' 구걸하는 불교는 이제 그만. 선업도 악업도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 것. 복 많이 지읍시다. (9면)

◇수덕사 충남도와 손잡고 토종 치어 방생. 토종 어종 방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3면)

"생명살상 용납될 수 없는 악행"

정대 스님 등 종교지도자 '美 참사' 담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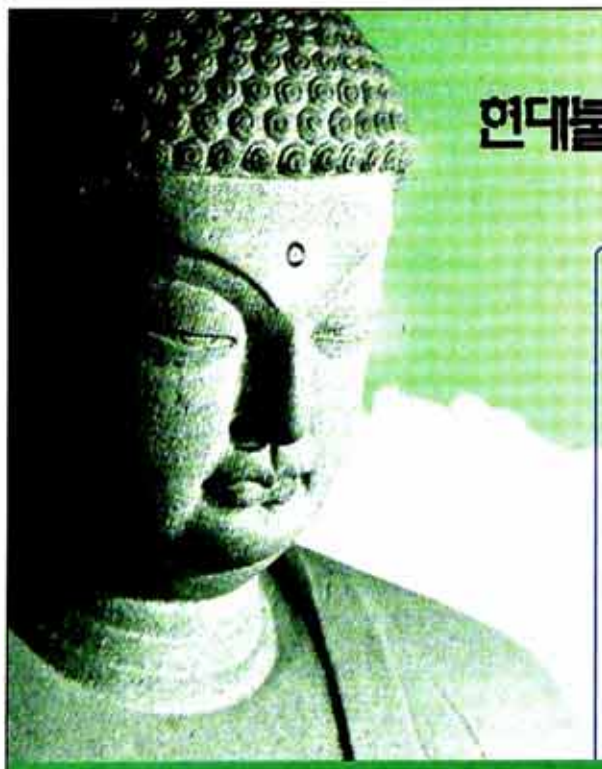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6개 불교종단을 비롯한 천주교,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는 12일 미국테러사건에 대한 분노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전쟁 같은 더 큰 불행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스님)는 미국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생명을 살상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라며 "사상 초유의 국가재난으로 부터 벗어나 침착한 마음을 되찾아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12일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폭력은 폭력의 순환만을 증가시킬 뿐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의 원인이 되는 증오의 마음을 국가차원에서 다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목사)도 "온 인류가 평화를 위해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연구해야 하며 특히 종교인이 노력하고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2·3·8면 김원우 기자



스님 좋고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 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재물보시!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2.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3.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롯데이벤트 · 초기 연회비 면제
· 9월 1일~10월 31일 개업자는 S-OIL 4천원 주유쿠폰 증정

- 신속1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 신속2 주유할인 서비스
- 신속3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행소니안심보험
- 신속4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 신속5 스피드 카드론

카드사업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대표 02)6678-1115~6
· 부산지사 051)463-5331~2 · 영주지국 054)674-1199 · 목포지국 061)244-4520 · 강릉지사 033)643-5599 · 대구지사 053)768-8008 · 포항지국 054)284-4575
· 충청지사 042)527-0559 · 광주지사 062)375-9986 · 밀양지국 055)353-1196 · 전북지사 063)255-2274 · 울산지사 055)387-1500

사 설

狂信이 부른 대참사

'테러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악(惡)'이라 한다.

그렇다. 지난 11일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끔찍한 테러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감지하고 그 사악함에 전율한다. 그 뿐인가. 테러의 성공을 보며 환희작약하는 팔레스타인들과 테러에 대한 '모든 수단의 응징'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미국의 표정에서 우리는 불길한 증오를 읽는다.

동서냉전이후 세계의 석학들은 21세기에는 전쟁보다 오히려 테러가 인류를 더 괴롭힐 것이라 내다보며 그 어떤 대책으로도 테러를 제압하거나 없애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단을 내 놓은 바 있다.

미국에 대 참변을 가져다준 이번 테러도 '분명한 적'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자살공격 식 수법에 대응할 방어수단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비열한 테러를 어느 문명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마땅히 인류의 이름으로 응징돼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인류는 지금 지혜롭게 냉정을 되찾아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을 막고 테러를 부르는 '증오'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그 증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일련의 테러사건들이 광신에 빠진 한 종교집단의 소행이었던 것처럼 이번 테러 역시 그들의 소행으로 의심받고 있다.

존엄성을 지녀야 할 인간이 어째서 자신과 세계를 파멸시킬 광신에 빠져들 수 있는가. 누가 그들의 광신을 부추기는가.

사랑과 자비 없는 종교는 없다. 테러범들의 종교로 지목되는 이슬람교 역시 사랑과 순종의 종교며 어디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옹호하는 가르침은 없다.

그럼에도 왜 종교적 신념으로 피를 부르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가. 종교의 탈을 쓴 정치가 종교의 순수성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전쟁을 치른 적 없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다.

앞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불교가 맡아야 할 책무가 더 커 보인다.

목조건축물 보존에 만전

최근 전국사찰에 있는 목조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조건축물은 그 재료와 구조상 보존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화재와 충해에 취약하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주요 목조건물에 대해 5~6년을 주기로 방염(防焰)과 방충(防蟲)을 위한 보존처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방염·방충을 위해 약품처리한 목조건물에서 몇 가지 우려할만한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 현상이란 단청이 검게 변색하여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거나 단청 안료가 박락되어 바닥에 눈처럼 쌓이거나 아니면 목재에 하얀 이끼같은 것이 피어나고 있으며 문짝을 비롯한 목재에 사용한 금속제 장식들 또한 심하게 녹이 슬어 여닫기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마루바닥이나 문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목재의 부식이 빨라지고 뒤틀림이 일어나는 등 매우 우려할 만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방제에 사용한 약품의 타당성 여부이다. 나무의 종류나 강도에 알맞는 제품으로 그 성분 또한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것이거나 보존과학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공방법의 문제이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정품을 사용했는지 여부, 시공시기나 각 건조물의 특성이나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것인지 그리고 작업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시공 후 그 진행과정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로,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과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일(矯角殺牛)'이 되지 않도록 일단 방염 방충 작업은 중지하고 서둘러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중앙박물관서 지방 이전 유물 5만여점 18년째 방치

불교문화재 등 1만여점 훼손 심각"

정범구 의원 국감서 공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방의 국립박물관으로 옮겨 관리해 온 불교유물을 포함한 국가유물 1만여 점이 방치된 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10일 밝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13만여 점의 유물 중 약 40%에 해당하는 5만여 점의 유물이 18년 전부터 지방박물관에 분산 보관돼 왔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돼 1만여 점의 유물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박물관으로 분산보관 중인 유물은 △광주박물관에 2만906점 △전주박물관에 6천203점 △대구박물관에 5천111점 △청주박물관에 6천711점 △청주박물관에 7천494점 △김해박물관에 6천497점 등 모두 5만2천892점으로, 이들 유물이 수장고에 그대로 상자 째 보관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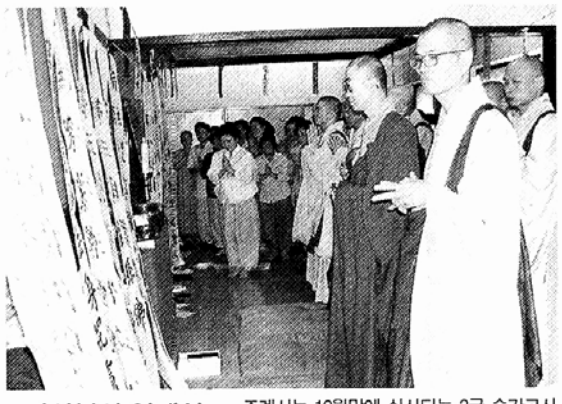
정 의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국립김해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유물 중 보수·복원이 시급한 유물 5천600여점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동제석가여래입상, 동제아미타여래좌상, 청동석가여래입상, 금동아미타삼존불 등 불교 유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으로 지시로 지난해 11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들 유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감사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박물관의 경우 금동아미타삼존불은 부식 중이고, 철제아미타여래좌상은 파편이 발생하는 등 25개 상자의 유물 대부분이 '부식' '내부 곰팡이' '전면 박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주박물관에서도 두 개 상자를 점검한 결과 상당량의 철기에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범구 의원은 "82년 지방으로 분산시킨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점검했다는 것은 이들 유물에 대한 관리계획 및 예산배정이 전무했음을 의미 한다"며 "관리방안과 함께 이들 유물을 전시자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박상준 주임은 "햇빛조차 보지 못하는 불교유물의 경우 불교계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중앙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가사불사 입재식 조계사는 10월말에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한 스님들에게 봉정할 가사를 짓기 위해 신도회관 2층에 가사도감을 설치하고 14일 가사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가사불사는 10월29일 회향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가사도감에서는 연인원 8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해 3000여벌의 가사를 제작하게 된다.

미신고 복지시설 5백50곳 조사

복지부 빠르면 올해

보건복지부는 5백50여 개에 달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빠르면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시설의 경우 매년 1회 관할 자치단체의 감사와 함께 3년마다 복지부의 운영평가를 받고 있으나, 미신고 시설은 이 같은 운영투명성 검증과정이 없어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6월말 현재 전국 5백55개 미신고 시설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1만1천1백41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미신고 시설은 8백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이에 맞춰 불교계내 미신고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대부도 자제정사, 동지청소년의 집, 선재동자원 등을 비롯해 20여 개 정도의 미신고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관할 지자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해 지원의 폭을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승가대 안암학사 활용 논의

종립학교관리위, 25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5일 종회 사무처에서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활용문제를 매듭짓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총무원과 중앙승가대 학인, 동문회가 함께 서명한 합의서를 재검토하고, 안암학사 재계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승가학원 신임 감사후보 추천도 할 예정이다.

한편 종립학교관리위는 제 151회 임시종회에서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처리건을 이관 받은바 있다. 승가학원이사장 정대스님도 안암학사 재계약 여부와 관련한 결정권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상태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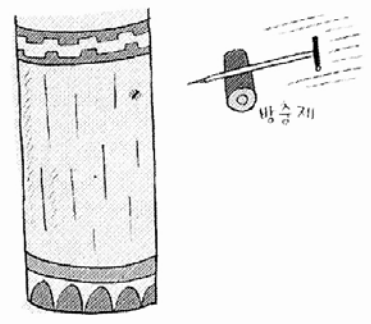
"소림사 선도량으로"

中불교수행단 밝혀

한국불교 선 수행체험을 위해 방한한 중국 5개성의 불교지도자로 구성된 중국불교 선수행체험단(단장 석심광) 27명의 중국스님들은 1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고 소림사를 선종사찰로서의 역사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목재에 치명적인…

조계종 문화부장 정각스님

사서실장 혜자스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0일 문화부장에 정각스님(통도사 종회의원·인터뷰 4면), 사서실장에 혜자스님(前 문화부장·사진)을 임명했다.

또 감사국장에 종홍스님(前 호법부 조사국장), 호법부 조사국장에 태진스님(前 호법부 상임감찰)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부장 정각 스님은 세수 58세 법랍 40년으로, 61년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옥천암 주지와 울산시 사암연합회 회장, 12대 종회의원을 지냈다.

사서실장 혜자 스님은 세수49세, 법랍 34년으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뒤 청담학원 이사와 도선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천성산 천연지구 지정"

보전대책위 토론회 촉구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 개설반대 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지율)가 7일 양산농협 강당에서 개최한 '천성산 습지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천연기념물, 자연생태계 보전지구, 천연보전지구 지정 등 양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천연보전지구 등 지정 뿐만 아니라 습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임도 복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광주전남 재가지도자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2~23일 전남 대둔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21세기 화두인 생명·생태·환경문제에 대한 불교 사상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걸맞는 실천 프로그램을 논의한다.

한명우 기자

고침 9월12일자(334호) 1면 제목 '김태복 소장 무죄'는 '일부 무죄'의 오기(誤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9면 인터뷰 기사의 제목 중 '무죄판결'도 '일부 무죄판결'로 바로잡습니다.

당신도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대중견성론」 마침내 출간!!!

붓다의 삶과 깨달음의 원형을 복원함으로써 만인견성 - 즉신견성의 산 비밀 밝혀내다!

1집 『초기불교 개척사』

—대중견성의 변경을 열어가는 붓다와 초기 민중들—

교계 최초의 초기불교 개척사 본격 연구!
最古의 남방장경 빠알리-니까야에 대한
직접 분석을 통하여 복원해낸 수천·수만 대중들의
순교를 넘어선 삼보헌신의 생동하는 역사 현장—
우리시대 인류견성운동의 새로운 물기둥이
용틀임하고 있다.
· 無圓 김재영 지음 / 신국판 양장 / 값 22,000원



2집 『대중견성운동』

—우리 시대 인류견성운동의 불교적 패러다임—

『법구경』에 등장하는 12,975명(+α)의 견성대중들!
초기불전의 견성사건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재현하는 깨달음의 원형, 깨달음의 삶들!
이것은 실로 깨달음에 관한 우리들의 낡은 허위의식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 無圓 김재영 지음 / 신국판 양장 / 값 18,000원



출판기념모임 초대 | · 때 / 2001년 9월 22일 (토) 오후 5시 · 곳 / 조계사 교육문화회관 | · 서평 / 목정배 교수(한국불교학회 회장) · 연락 / 청보리회(011-662-5335)

DOPIANSA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031)676-8700 · 팩스 (031)676-8704 이 책은 전국 유명서점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어

분노 거두는 법



반야(般若)는 선과 악의 분별 없이 지극히 맑고 밝은 마음의 본성(本性)을 말한다. 불교의 깨달음은 이 반야의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탐욕심은 중생의 마음이며, 그 탐욕심에 이끌려 인간은 업을 짓고 과보에 고통 받으며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성내어 그로 인해 다시 업을 지어 괴로움의 쳇바퀴만 돌아가고 있다.

〈법구경(法句經)〉에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이 원망이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고 하였다. 먼저 나만 괴로움을 당했다는 생각보다 왜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한 공격을 해오는가를 참구해 보고 원망의 화근을 녹여야 한다.

보복행위가 우선은 시원할 지 모르나 보복당한 상대는 다시 나에게 보복의 과보를 되돌려 주게 된다. 미국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테러를 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 초강대국을 자처하고 있는 마당에 보복에 주력하겠다고 하니 그 불길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세계 60억 인구의 눈이 미국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파괴와 살상으로 얼룩질 또 한편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지구촌 인구 모두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경계심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이 모든 사태는 같은 중동 땅에서 태어난 유태민족과 아랍민족간의 종교적 이해에서 비롯된 대를 잇는 원한의 보복행위일 뿐이다. 다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마음에 익혀보자.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 악한 사람은 큰 죄를 받는다."

보복은 또 다른 원한만을 불러들일 뿐이다. 미국이 자처해서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두둔할 일도 아니고, 맞았다고 되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남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왜?'라는 자구심으로 참회하여 마음 본성에서 반야 지혜를 찾아 극락정토를 만들어야 한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피를 피로 갚는 복수' 악순환 낳을뿐"

긴급 좌담 미국 테러 대참사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성 등 미국 심장부를 강타한 상상을 초월한 테러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것은 물론, 향후 인류의 공존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게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문명사적 측면에서 세계질서 재편 등 큰 변화의 예고를 알리는 징후라는 예측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본지는 14일 사태의 본질을 짚어보고 인류의 공존은 불가능한 것인지, 분석해보는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진홍 교수 (서울대·종교학)

"聖戰·자유수호 등 어떠한 논리도 살육 정당화 안돼"



오강남 교수 (加 리자이나대·종교학)

"생명존중은 인류 최상의 가치 무엇도 대신 못해"



김용표 교수 (동국대·불교학)

"종교의 배타성 갈등과 불화 조장 지도자들 반성 절실"

"폭력 예찬·야수성 부추기는 문화 지양"

"共生·不二 가르침 인류가 기댈 언덕"

▲이번 참사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

정진홍= 인간의 야수성, 이질적인 문명간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 더 구체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과의 충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이나 워싱턴의 참상 못지 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식을 접하고 환호하는 아랍의 정서다. 그 정서를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강남=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 인종적, 문화적 갈등과 불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용표= 새뮤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냉전 종식 후 서로 다른 종교 문명간의 갈등이 점차 증폭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서방 제국이 이슬람과 유태인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를 지지해 온 것도 이번 테러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잘못된 교의(敎義)의 산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번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종교의 어떤 속성이 이러한 사태를 불렀다고 보는가.

정진홍=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이 제시한 종교만이 절대적이라고 배타적으로 주장한다. '다름'을 곧 '그름'으로 등가화해 버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사랑을 위한 전쟁, 자비를 위한 증오, 순종을 위한 살육을 진정한 신앙으로 여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돈독하고 순수한 신앙과 맹목적인 광신이 종교적 속성에 공히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는 한없이 고상한 덕목을 실천할 수도 있고, 동시에 야수성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김용표= 종교배타주의를 낳는 교리적 특징은 이원론적 교리 구조, 유일신관, 선민주의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리에 있다기 보다는 종교 집단이기주의에 바탕한 배타주의에 있을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 반성이 절실한 때다. 종교를 이용하려는 정치지도자들도 문제다.

▲종교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참사를 부른 직·간접적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정진홍= 아무래도 정치·경제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아랍권을 철저하게 변두리로 묶어두려는 힘과 이에 저항하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충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강남= 부시 정부의 강성 일변도 정책도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다.

김용표= 폭력에 대한 예찬이나 인간의 야수성을 부추기는 물질문화가 대량 살상을 쉽게 일으키게 한다. 특히 이번 테러는 정치적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살육의 성격을 띤다. 이 점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또 이 과정에서 우려할 부분과 그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오강남=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이번 일을 전쟁으로 간주하는 이상 어떤 무력도 불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무력보복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부시 정부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처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 그리고 '큰 나라는 스스로를 아래에 둔다'는 진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

김용표= 미국은 강력한 보복과 응징에 나설 것이고, 결국 폭력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참고 용서함으로써만이 사라진다"는 〈법구경〉의 진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를 피로 갚는 복수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정진홍=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보복할 것이고 아랍도 처절한 저항을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가 이 문제를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해야 할 일은 물음 자체를 되살피는 일이다. 한 대 맞았으니 나는 두 대 때려야겠다는 것은 문제의 증폭이지 해결이 아니다. 왜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를 물어야 한다. 차분한 성찰이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없으리라는 확언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 모색을 그만둘 수도 없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해 달라.

김용표= 약자인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아랍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홍= 가장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요청되는 것은 근원적인 것이다. 아무리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종교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일,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겪은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다.

제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짐승이 아닌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이고, 제 목숨 귀하면 남의 목숨도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하드(聖戰)니 인간의 자유를 수호한다느니 하는 논리로 증오와 살육을 정당화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는 불행히도 뉴욕의 참혹함은 생생하게 보고 듣고 있지만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이라크의 상황에 대해서는 캄캄하다.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진 것은 그곳도 다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다만 불꽃놀이같은 미사일 발사 장면만을 보았다. 그쪽 입장에서는 한 맺힐 일이다.

오강남=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해법이 없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간의 공존이나 타문명에 대한 이해 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상호의존 상호관련의 얼개 속에 맞물려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기반으로 인류 전체가 현재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에서 탈피해 인류 공동의 번영정책을 채택해야 하고, 모든 국가들은 경제적인 풍요만이 참된 삶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더 보탤 말씀이 있다면.

정진홍= 아침 출근을 서두르다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비행기를 몰고 자폭한 테러리스트도 어버이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명 존중은 어떤 이념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우리 국민 모두도 느꼈을 것이다.

김용표= 서구 종교에서 중요시 해온 정의와 심판의 논리보다는, 불교의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공생(共生)과 불이(不二)의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인류가 기댈수 있는 언덕이다.

오강남= 생명존중은 인류 최상의 가치다.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가 인류의 보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창종(개명) 및 초대종정 추대법회 봉행 안내

창종(개명) 공고

일심으로 삼보전에 향을 올리며 예경하옵니다.
대승의 종지를 꽃피우고자 10여년간 법륜의 기수로서 전법도생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포교활로의 선구적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는 마침내 법사행원 성취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부서 확장 편성에 의거하여 대승의 정법을 섭수행하는 보살승 법사들의 결사에 의해 한국불교대승법사종을 창종(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도성취 전법도생의 종지 종풍을 계양하고 불교발전과 국가발전 및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간 법모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여래의 불사를 전개하고자 대승보살승의 불교종단으로 그 정체성을 갖추고 초심의 행보로 한국불교대승법사종의 창종을 공포합니다.
이제 본 종단의 전 종도는 불조혜명이 법륜상전 되어지도록 보살학법을 힘써 수행하고, 종지의 사표아래 일심동체가 되어 종단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지극히 다짐합니다.

-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종도 일동 -

임원공고

종 정 강 월 인 대종사
사서실장 박 선 률

총무원장 박 지 일
규정부장 조 남 천
총무부장 박 봉 정
재무부장 이 무 착
사회부장 정 정 행
교학부장 정 준 제
포교부장 임 만 행

원로원장 진호 무애
종회의장 이 정 광
부의장 김 일 겸

의원
남천 납경 봉정 무착
정행 준제 만행 세정
진제 자명 각원 성상
월산 지덕 보리심

상벌위원장 김 혜 공
부위원장 이 지 덕

각 지방 종무원장
서울 경기 종무원장 정정행
부산 종무원장 김일겸
인천 종무원장 이세정
광주 종무원장 조남천
강원 종무원장 정납경
경남 종무원장 김혜공
경북 종무원장 이진제

증 명 박 도 암 큰스님(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신 인 왕 큰스님(한국불교여래종 종정)
하 순 성 큰스님(대한불교법사종 종정)

봉행위원회

· 고문 : 진호 무애 태정
· 봉행위원장 : 정광 자명 · 부위원장 : 혜공 각원
· 집행위원장 : 일겸 · 부위원장 : 남천
· 재무 : 무착 · 기획 : 봉정 · 섭외 : 정행 · 홍보 : 세정
· 위원 : 정향 보리심 부루나 월산 성상 용담 종본 묘음화 효정 실담화 원명화 법탄 호정 서정 지산 일공 성양 무등심 보산 지열 보월

■ 법회일시 : 불기 2545년(2001년) 9월 22일 오후 2시
■ 법회장소 :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 서래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113-1)
■ 주 관 : 한국불교대승법사종 개산 봉행 준비위원회
■ 후 원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불교신문 법사위원회 법사대학총동문회
■ 연 락 처 : 총무원 (051) 556-8551, 552-8554 서울 (02) 720-1836
■ 차량안내 : 9월 22일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관광버스 출발 일체경비무료, 9월 19일까지 서울 ☎720-1836,733-1959로 접수

일주문



BBS 9월 다보법회 설법

도문 서울 대성사 주지는 2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신라문화원 초청법회

성타 불국사 주지는 26일 오후7시 서라벌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신라문화원 초청 대법회에서 법문한다.



평통 자문위원 위촉

성초 前 진각종 통리원장은 13일 타워호텔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전 파라미타 지부장에

장곡 공주 갑사 주지는 22일 오후4시 백제불교문화회관서 대전 파라미타 제2대 지부장에 취임한다.



인천 황룡사 기공법회

무원 천태종 황룡사 주지는 23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서 황룡사 기공식법회를 봉행한다.



가릉빈가 합창단 정기연주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은 15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4회 가릉빈가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대영박물관장 초청 특강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로버트 앤더슨 대영박물관장을 초청, 특강을 연다.



파라미타 월례세미나

이학송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청소년문화연구소장은 25일 오후 7시 중앙사무국에서 9월 월례세미나를 실시한다.



디지털법당 불상 점안

홍자운 청주 디지털 청소년상담실 지도법사는 8일 디지털 법당 홍덕사에서 불상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前 종단협 사무총장 한기상 씨 별세

종단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백운당 한기상 회장이 11일 서울 순천향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유족은 부인 문연옥씨와 창윤, 지윤(불교방송 PD) 등 2남2녀.

"호남불교 중흥·화합 구현"

금산사 새 주지 평상 스님



"불교세가 취약한 지역불교 활성화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산중총회에서 제12대 주지로 만장일치 추대된 평상(平常)스님은 "그 동안 전대 주지스님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주지소임을 몇 번 고사했지만 문중스님들이 만장일치 추대해준 만큼 책임감이라는 큰 짐이 느껴진다"며 "문중의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말사주지 스님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상스님은 1969년 금산사에서 월주스님을 은사로 득도, 74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75년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금산사 재무국장, 완주 화암사 주지, 금산사 부주지를 역임했다. 스님은 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호법부장 사서실장, 11·12대 중앙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새 식구된 '백송 2세'

Focus

근래 들어 조계사가 인근 토지를 구입, 대웅전 앞마당을 넓히면서 토담 옆에 심은 어린 백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백송은 조계사 신도가 최근 기증한 것으로, 대웅전 나무 밑에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시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백송엔 사연이 있다. 26년 전 조계사 신도인 대덕화 보살은 법회를 보고 나오다 대웅전 옆의 큰 백송에서 떨어진 솔방울을 가져다 화분에 심었다. 용케도 16년간 화분에서 제법 자라자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는 최근 조계사가 대웅전 앞마당을 넓히자 '절에서 얻은 인연 절로 회향한다'며 기증했다. 어린 백송은 5m 높이로 가지가 균형있게 뻗어나 아주 잘 생겼다(?)는 평이다. 어미 백송은 수령이 약 550년에 높이 10m, 둘레 1.67m로 1962년 천연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조계사 터줏대감이다. 백송은 수령이 많아지면서 회백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 조계사 교무 원명 스님은 "어린 백송이 흰색을 띨 때 쯤이면 조계사도 아름다운 도량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월드컵 겨냥 불교문화 홍보"

조계종 새 문화부장 정각 스님



"내년 월드컵 행사를 겨냥해 우리의 우수한 불교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으로 임명된 정각스님(울산 도솔암 주지)은 특히 지역 불교문화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지이외에는 한번도 행정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어깨가 무겁다는 정각 스님은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해 효율적인 문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주위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이지요. 불교문화 포교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 다른 종단과도 연계해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성보문화원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각 스님은 울산지역에서 산사음악회를 여는 등 그동안 문화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스님은 9월말 땅속에 매장돼 있는 불교 문화재 조사를 위한 '지표조사팀' 팀장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신행·불교문화 1번지 가꿀터"

10돌 맞은 보현문화회관 오상현 관장



"보현불교문화회관이 생활 속의 신행도량,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일 보현불교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오상현 관장(32). 선친의 유지를 이어 보현불교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오 관장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불심을 심는 것으로 회관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년제인 보현불교대학의 내실화와 함께 각종 교양강좌, 문화행사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회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게 오 관장의 복안이다. 오 관장은 "초심자에게는 발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자들에게는 외형보다 내면의 성숙함을 간직한 참된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실천하는 도량, 회향하는 도량으로 보현불교문화회관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10주년 기념법회에서 '자비의 쌀'을 모아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한 것도 이러한 서원에서 비롯됐다. (042)624-6555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청소년 찬불가 만들어 보급"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 김석조 초대회장



"청소년들이 불교를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적 가치를 심어줄 것입니다."

1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초대 협회장에 취임한 김석조(부산시 부산진구 구의원 · 54) 회장은 "중등지회와 고등지회 회장과 뜻을 모아 부산 청소년 포교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회장이 드러내 놓고 불교계 일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 보현장학회 이사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비롯 크고 작은 행사에서 실질적인 지원자로 알려져 오다 주변의 권유로 어렵게 용기를 낸 것. 김회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자리"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불교TV 전직원 석불사서 수계식

불교텔레비전(이사장 성우스님)은 13일 마포 석불사에서 직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성우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등불"이라며 "근본적 자유로움은 마음 속 번뇌의 소멸에서 온다"고 말했다. 직원40여명은 수계를 받은 후 남을 헐뜯지 말고, 살생하지 말며, 욕하지 말라는 등의 42가지 현성법을 지킬 것을 부처님 앞에 서약했다.



JTS 북한어린이 영양식 선적

JTS(이사장 법륜스님)는 14일 부산항에서 북한 나선시 JTS공장에 보낼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인 설탕 24t, 분유 6t과 나선시 농업지원 2차분 요소 57t의 비료 선적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최경숙(미국JTS 이사), 황영숙(한국JTS 이사)씨를 비롯 부산 정토회 신도 10명이 참석했다. 미국JTS 최경숙 이사는 18일 나선시에 들어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파악한 후 21일경 돌아올 계획이다.

중국 하남성·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정주, 낙양, 등봉을 비롯해 혜초, 원측 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 유적을 찾아갑니다.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 불상들을 참배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왕릉인 병마용을 비롯해 부처님 진신지골사리가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청지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만리장성 · 소림사 · 용문석굴 · 법문사 · 병마용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5박6일)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733-8091(담당: 김지훈, 윤지영)
◇접수기간: 10월6일(토)까지(여권 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 루 막	남·여	130,000
	동 방	남·여	120,000
누비	上 下	남·여	190,000
	두 루 막	남·여	160,000
	방 한 복	남·여	130,000
	보 온 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라운드,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용 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세계불교도우의회 (W.F.B) 한국본부
㈜ 코리아 붓다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우리 모임에선

대우종기법우회 창립 16돌

대우종합기계 · 한국항공우주산업 법우회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25일 창원 성주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서성렬 총무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활성화도 고민하는 법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는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의 법문에 이어 다과회 등으로 진행된다.

대우종합기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10월 분사했으나 공동으로 법우회를 재결성, 정기법회와 금강경 강좌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농림부불자회 참선특강

농림부불자회는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을 초청, '참선의 바른 길'을 주제로 선법회를 개최한다.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참선법회에는 농림부불자회 외에도 과천청사 내 불자 공무원과 그 가족등이 참석할수 있다.

제주운불련 활성화 법회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제주지회는 12~14일 홍법정사등 제주일원에서 '제주지부 활성화를 위한 법회'를 봉행했다. 12일 법회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운불련 김주본 연합회장 제주 운불련 이춘선 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나불자회 정기법회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는 19일 오후 6시 30분 대원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법회는 지도법사 만성스님의 법문과 예불로 진행됐다. 참나불자회는 매월 2 · 4주 수요일 정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춘천시청 혜욱스님 법회

춘천시청불자회는 24일 봉덕사에서 8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20여 회원들이 참석할 이번 법회는 혜욱스님의 법문과 10월 6~7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공무원불자연합회 수련법회 참석에 대해 논의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 02)722-4162

지역불교회관 직장불심 다지는 '신행요람'

백제 · 진주 등 법회장소 · 지도법사 알선…강좌도 열어

지역 포교의 거점인 불교회관들이 직장직능 불자회의 활성화와 교류에 단단히 한 몫하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회관들은 불자회 결성의 산파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역 사암연합회나 사찰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면서, 신행단체들이 환경 등 대외적으로 공조할 일의 발생시 서로 연대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심점 역할도 하고있다.

대전의 백제불교회관은 지난 5월 창립된 대전불교언론인회의 신행 터전이 되고 있다. 직장이 서로 다른 탓에 운영회의나 법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는 이 단체에, 백제불교회관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도법사도 추천해 신행의 토대를 다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대전불교언론인회 회원들이 매일 아침 회관을 찾아 108배를 하고 주변 근린시설에서 조깅을 하며 신심을 다지고 도반의 정을 키우는 것도 이러한 뒷받침 때문이다. 현재 백제불교회관에는 대전불교언론인회 이외에도 둔산경찰서 불자회, 연예인불자회 대전지부, 철불협 대전지회 등 30여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진주불자산악회가 결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진주불교회관도 마찬가지다. 진주회관을 이용하는 불자회만도 진주MBC 법우회, 진주교도소법우회, 경상대병원불자회, 진주시청불자회, 진주의료원불자회 등 4개. 여기에 청년회, 신도회, 봉사회 등의 신행단체도 가세했다.

"법회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리 강좌를 개설하는 것 등이 직장인 불자들의 호응을 얻게 된 것 같다"는 하귀만 사무국장(진주불교회관)은 "각 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회들이 참여하는 연합법회를 기획해, 이들이 '지역 불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울산 종합불교회관, 해남불교회관, 구미불교회관 등도 직장직능 불자회의 법회 및 신행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법사를 위촉하는 등 재가불교 활성화에 중심역할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불교회관에도 부산MBC,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및 전국교사연합회 부산지회, 불교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파라미타 부산지부 등 부산의 주요 직장직능 및 신행 단체들이 적을 두고 있다.

한 건물에 법당, 시민선원, 신행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선 불교회관에서 직장직능 및 신행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도 다지는 등 교류를 하며 교육, 포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불교회관장 장곡스님은 "회관에서 정례회의나 법회는 물론 다양한 신행 정보를 교류하며 유대도 키우고 있어, 각 단체들의 활동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 받은 불자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지역의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도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직장에 있다는 것 뿐, 재적 종단이나 사찰이 달라 모임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지 못했던 직장직능 불자회가 각 지역 불교회관을 중심으로 신행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실상사 작은학교 학생들이 9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 2돌 기념식에서 축하곡을 부르고 있다.

"생명살림은 21세기 삶 모델"

인드라망 2돌 기념식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총무부장 원택스님, 자비의전화 회장 정덕스님, 재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서 교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실상사에서 '민족화해와 생명살림'을 염원으로 1,000일기도 중인 상임대표 도법스님은 영상으로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운동은 지난 98년 2월 발기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불교귀농학교 귀농전문학교, 생협운동, 대안학교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 많은 영역에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공동체를 만들 때까지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걸어온길' 영상보고, 귀농자의 편지, 축가, 구연동화, 창립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해남군청 불자회 창립

회장 김승계씨…의료봉사등 활동



전남 해남군에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모임이 발족했다. 군청은 물론 읍 ·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0여 공무원들이 지역 불교계의 중심축 역할을 서원하며, 15일 대둔사 청운당에서 해남군공무원불자회 수심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해남지역은 조계종 교구본사 대둔사를 비롯해 전통사찰이 많아 청년회, 거사회, 관음회 등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지만, 공무원 중심의 신행단체가 없어 이번 해남군청 불자회 창립은 다른 공무원 불자회 결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5일 창립법회에서 신임회장에는 김승계(군청 재무과장 · 사진), 부회장에 김형식, 총무에 김상현씨 등이 선출됐고,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기초교육 등의 신행활동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승계 회장은 "농로를 정비하고 보건소와 함께 오지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적극 다가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활동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효행교육관 건립 추진"

무량회, 제2도약 서원

무량회(회장 박윤희)가 7일 창립 6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 2도약을 서원했다.

일제 때 강제징용 당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대창양로원(경북 고령)과 군법당 등을 후원하며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무량회는 △효행교육관 건립 △학인스님 지원 △회지 발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효행교육관은 청소년들에게 효 의식을 심어주자는 회원들의 중의가 모여 추진되는 것으로, 서해 도서인 백령도가 보이는 강화나 인천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효행교육관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청소년 교육 외에도 신행단체의 단기 수행처로도 제공된다.

오종욱 기자



◇진주불자산악회가 16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악산 일대에서 창립기념산행을 실시했다.

"사찰환경 지킴이 되겠어요"

진주 불자산악회 창립

경북 진주에 산악인 불자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진주불자산악회'는 16일 상주 노악산 일대에서 창립 산행을 개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초 열린 진주불교회관 이사회에서 산악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논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것.

진주불교회관에 따르면, 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장직능 및 신행단체에서 매월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 불자들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에서 성지순례와 산행을 결합한 '불자산악회' 조직에 관심을 두게 됐다.

진주불자산악회는 청 · 장년층 불자들을 중심으로 경남 · 북 지역 사찰 환경을 지키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한다. 이를 위해 진주불자산악인회는 환경캠페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문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방 언론매체와 직장 · 직능 및 신행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회원도 늘여갈 예정이다. 현재 30여 명의 불자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생협 '푸른나라' 세일=능인선원 생협 '푸른나라'는 창립 2주년을 맞아 25일까지 특별 세일에 들어간다. 유기농산물, 무농약오리쌀, 국산잡곡 등 400여 종. (02)500-5800

▲파라미타 홈페이지=파라미타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3일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는 행사와 청소년 관련자료로 구성됐다. 주소는 www.paramita.or.kr

▲학생문예작품 공모=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제4회 전국 학생 문예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문, 산문 부분으로 나눠 9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작품을 응모 받는다. (051)898-2674

강좌

▲자원봉사 시민대학=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3일부터 14회 자원봉사 시민대학을 개강한다. 개설 강좌는 수지침, 불교호스피스, 환경, 수화, 파스요법, 불교기초교리 등. (02)723-6258

모집

▲청각장애자 운전교육=연화복지원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는 학과시험 합격자로 한정. (02)2202-5831

▲이 · 미용 자원봉사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이 · 미용 자원봉사원을 모집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봉사는 월 1회 4시간 실시된다. (02)265-9471

▲성인프로그램 수강생=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미용,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기공체조, 컴퓨터, 피아노 교실 등. (02)271-0560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봐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질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봐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봐타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부처님오신날

경제 살리기 천일기도(千日祈禱) 회향(回向) 및 만등법회(萬燈法會)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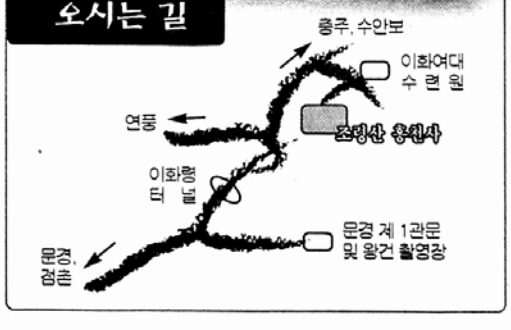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法)이 아무리 좋다지만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등(燈)이란 밝히는 것이 사명(使命)이요 책임(責任)입니다. 아득한 세월 업(業)에 절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심성(心性)에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의 광명이 아니면 도저히 씻어낼 수 없으며 칠흑처럼 캄캄한 생사의 거센 물결을 건너감에 있어 지혜의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피안(彼岸)에 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밝혀 짙은 업을 참회하고 쌓여있는 더러운 업을 불살라 다음 생에는 보살의 육도(六道) 만행(萬行)을 닦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 하겠다는 홍원(弘願)을 한층 굳히기 위하여 우리 흥천사(興天寺)에서는 경제 살리기 및 가정 성불(成佛)을 위한 천일기도 회향 날에 만등(萬燈)불사(佛事)의 넓은 문을 열어 놓고 자타(自他) 모두 함께 성스러운 기도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아(自我) 진아(眞我)를 깨치고자 하는 이는 광명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愛情)의 등을,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容恕)의 등을, 소외(疎外)된 이에게는 관심(關心)의 등을,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快癒)의 등을, 조상 영가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불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밝혀 청정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고 가정마다 지극한 서원(誓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흥천사 만등법회
· 주 최 : 조령산 흥천사 신도일동
· 일 시 : 불기 2545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 장 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조령산 흥천사
· 진 행 : 무형문화재 제 50호 법산 스님외 4명
· 1인1등 : 1만원
· 전 화 : 조령산 흥천사 043-833-6640, 833-5525
대 구 포교원 053-635-5932
스 님 휴대폰 011-503--9737
· 계 좌 : 15008-51-001366 농협
· 예금주 : 흥천사(동봉)



오시는 길


문경새재 조령산 흥천사 조실 동봉(東奉) 합장

2백여 회원 법공양·자비행 '꾸준'

신행현장

새생각실천회

"이들이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해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끔 도와주세요."

12일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국군수도병원 법당.

50여명의 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메운채 기도정진중이다. 삼귀의, 천수경, 예불, '마하반야바라밀' 정근에 이어 이들은 병든 장병들의 건강 회복과 회원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입시합격 등을 발원했다.

이어 기도하고 공부하며 실천 · 수행하는 보살행을 서원하는 '반야보살행원' 기도, 입정 등 1시간 가량의 기도가 끝나자 권경술(58 · 수필가 · 前 창원기능대 교수) 법사의 법문이 이어졌다.

권 법사는 12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동시다발 테러를 화제로 생명의 소중함, 인과응보, 미국의 참회와 용서, 종교인들의 각성 등을 촉구했다. 자본주의의 상징물인 세계무역센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는 "백년동안 탐내어 모은 재산도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고, 사흘 동안만이라도 수행한 마음은 천년이 되도록 보배가 된다"며 소욕지족하며 보시하는 삶, 항상 깨어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매달 둘째 수요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갖는 이 불자들은 다름아닌 새생각실천회(회장 권경술) 회원들. 이들이 굳이 이 곳에서 모임을 갖는 이유는 매달 장병불자들에게 쵸코파이나 음료수, 염주, 불서 등 법회에 필요한 공양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회를 마친 후 회원들은 그간의 안부와 환자 부모들의 기도담, 수행

인간방생불사 주력
봉사·무료강좌 실시
노인복지시설도 개원

정진의 과정 등을 서로 묻고 물었다. 차담시간에는 권 법사에게 교리와 신행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면서 소식지 발행, 자광원 봉사 활동, 불교강좌 진행사항 등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99년 5월 금강경의 일깨움과 보현보살의 행원을 생활 속에 구현하는 대승적 수행방법으로서 '인간방생불사'를 주창하며 20여 회원으로 출발한 새생각실천회는 3년도 채 되지 않아 회원이 400여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활발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경전공부, 봉사활동등을 꾸준히 전개하며 불심을 키워가고 있는 새생각실천회 회원들이 12일 분당 국군수도병원 법당에서 열린 정기법회에서 입정에 들어있다.

계간 불교소식지 '새생각'을 발행하면서 국군수도병원 법회지원 등 군포교, 중 · 고교 선생님을 위한 불교강좌(매월 1 · 3주 목요일 오후 6시 대학로 민들레 영토), 일반인을 위한 경전공부(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삼성동 선재법당) 등 무료강좌, 노인복지시설 자광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새생각실천회는 이와 같은 원력을 모아 오는 21일 용인시 이동면 시미3리에 30여평 규모의 무료노인복지시설 '봉로원'을 개원한다. 총무인 자항 보살은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분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어르신들을 봉로원에 모실 계획"이라며, "생활용품이나 운영기금을 보시하실 분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봉로원을 중심으로 신행과 봉사활동, 경전공부 등을 해나갈 예정인 새생각실천회는 22일부터 10월27일까지 '깨달음의 사회화와 인간방생불사'를 주제로 일반인을 위한 제4기 불교강좌(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종로 대각사)도 연다.

이처럼 이 모임이 교리공부와 수행, 보살행을 함께 강조하는 데는 나름의 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최혜경 부회장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법공양, 이웃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자비행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깨쳐 부처가 되고, 이웃을 깨우쳐 부처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불사이기 때문"이라며 "불성의 등불을 밝히는 인간방생불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02)313-7028

김재경 기자

생활속의 불교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마구니"

모든 것은 마음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보살도 마구니도, 기쁨도 슬픔도 없다. 모든 것은 마음이 불러들이고, 마음으로 세운 것이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얘기를 간혹 듣게 되는데, 그때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음이 화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기도 중에 어떤 경계를 보았다는 것도 마음의 나툼일 뿐이다. 마음공부를 할 때도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마구니라 하는 까닭도, 다만 마음의 나툼이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마음자리엔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고 신장, 마구니도 있다. 내가 마구니 마음을 내면 마구니가 있는 것이고 신장이 있다고 믿으면 신장도 있는 것이다. 마음에는 무엇이든 다 있다.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얼기설기 마음 먹었던 것이 첩첩으로 쌓여 있어서 무엇이든 다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 무엇이든 다 세워지기도 한다. 중국의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나비가 된 것일까, 나비가 내가 된 것일까' 하고 물었다. 마음의 나툼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도 마음이 나툰 결과이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 모두가 내 마음의 나툼이다. 우리가 행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부처와 살고, 보살과 살고, 신중과 살고,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마구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구니가 싫거든 마구니 마음을 녹여야 한다. 불행이 싫거든 불행의 씨앗이 된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한다. 남의 미움이 싫거든 내 마음에서 미움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 일러주는 길이다.

마음을 고쳐먹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스스로가 솔직해지면 우선 바깥 경계, 남의 시선에서 편해질 수 있다. 편해져야 내 모습이 바로 보이게 되고, 비로소 마음 고쳐먹기는 시작된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한 생각 악하냐 선하냐 따라 이 세상이 지옥과 극락"



운광스님
원적정사 주지

지금 우리는 인간이야말로 극악극선의 존재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아침 한 나절에 저렇게 혼란에 빠지고 수만의 인명이 살상될 수 있다는 현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의 이면에는 국가적인 이해관계와 인종적인 적대감 등등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문제는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희생된 것인지 조차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인간은 한 마음을 펼치면 선으로 향하고 한 마음을 돌리면 악으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선과 악이 항상 함께 인간의 마음자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수행을 잘 해서 선한 마음을 많이 꺼내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악한 마음을 함부로 꺼내어 씁니다.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좋은 얼굴빛 지니겠다' 서원 세우고 실천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나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얼굴이 맑고 화평합니다. 마음에 사악한 기운을 담지 않으니 얼굴에 독기가 서리거나 어두운 그늘이 덮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의 형상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에 선한 기운이 충만하여 늘 평화롭고 자비로우면 얼굴도 평화와 자비의 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 남과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고받으며 정답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얼굴빛이 여러 사람들을 편하게 하여 그 자비의 기운을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나 남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서 평온과 자비의 마음을 갖추면 그 좋은 기운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 얼굴빛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비의 온기를 전해 줍니다.

늘 선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보살인 것입니다.

"나는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좋은 얼굴빛을 지니겠다"

이런 서원을 세워 보세요. 그것이 바로 보살의 원력이고 늘 착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바로 보살의 원력행입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얼굴에 독한 기운이 흐르고 이것저것을 불안하게 살피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흉폭한 눈빛으로 남을 겁주려 합니다. 마음에 꽉 들어찬 악한 기운이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기운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빨리 전달됩니다. 그리고 큰 상처로 남습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은 별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것이어서 늘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무엇이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마음 속에 악한 기운을 채워 입과 몸으로 악행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고 그렇지 않고 선한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은 극락입니다. 한 생각을 선하게 일으키는 자리가 극락이고 한 생각을 악하게 일으키는 자리가 지옥이라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모든 행동에 앞서 "이 행동의 결과로 내가 지옥에 갈 것인지 극락에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합시다.

신행 캘린더

9월 20일 (목)

■능인선원 사찰순례=능인선원은 석남사, 내원사 등을 방문하는 9월 사찰순례법회를 실시한다. 출발은 당일 오전 5시 30분.(02)577-5800

9월 21일 (금)

■부처님진신치아사리 친견법회=금강산 건봉사는 22일까지 고성 공설운동장에서 부처님진신 치아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033)682-4946

9월 22일 (토)

■통도사 경주남산 사진전=통도사성보박물관은 10월 8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박근재 경주남산 사진전을 개최한다.(055)382-1001

■철불협 무사고기원 대법회=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오후 3시 정부 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철도불자연합회 및 철도청 대전청사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016)272-2386

9월 23일 (일)

■연등회관 개관 14주년 기념법회=연등국제불교회관은 오후 6시 회관 법당에서 14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연등회관은 오후 1시부터 다과회도 마련한다.(02)735-5347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기원법회=부산불교연합회는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051)867-0501

■우리 문화 보존 자원봉사=청소년교화연합회는 종묘공원 일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우리문화 보존하기'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02)735-8165

9월 24일 (월)

■무비스님 임제록 강좌=서울 봉은사 봉은학림은 28일까지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초청 임제록 강좌를 실시한다.(02)516-5652

■행원문화상 시상식=행원문화재단은 오후 2시 안암동 소재 승가원 2층 회의실에서 제1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갖는다.

9월 25일 (화)

■사회복지포럼 세미나=종교사회복지포럼은 오후 2시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사회복지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325-7456

■천태종 송덕사 불상점안=천태종 말사인 송탄 송덕사는 오전 10시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스님등 종단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상점안식을 봉행한다. (031)666-3180



2001년 사주백과 3.0 출시

사주백과

2001년 8월 개발 출시된 사주백과3.0은 국내 역학프로그램 중 최고의 DATA 내용과 정확도를 자랑하는 전문가용 역학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년간 전통문화연구원의 역학팀에서는 수명의 역학전문가가 직접 DATA 작업 및 프로그램작업을 하여 보다 전문적인 역학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주백과 3.0 프로그램]

전통문화연구원

⊙ 전통문화 연구원소개

전통문화연구원은 易學正道 라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지난 10년간 다양한 역학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급변 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그 미래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 한층 더 빛이 날 것입니다

⊙ 주요연혁

1992. 11. ㈜ 포인트라인 설립
1993. 12. 역학 연구원 설립 「 現 전통문화연구원 」
1994. 07.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백과」개발 착수
1995. 06. 한국통신 민간 투자 사업 D/B업체 선정
1996. 02. 정보화 촉진기금 (정부투자자금) - 사주백과
1996. 10. 유니텔 사주도사 서비스 개통
1997. 02. 사주도사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서비스
1997. 09. 중앙일보 인터넷 사주도사 서비스 개시
1997. 11. 한겨레 인터넷 사주도사 서비스 개시
1997. 12. 역학 소프트웨어「 전문가용 1.0 」출시
1998. 12. 유망 중소 정보 통신기업 선정 - 사주백과
1999. 12. 역학 소프트웨어「 전문가용 2.0 」출시
2000. 08. 사주백과 소프트웨어 - 벤처기업선정
2000. 11. 상호변경 → ㈜ 포인트라인 → ㈜ KOCN
2000. 12. 역학 소프트웨어「 책자용 1.0 」출시
2001. 06. KTF「 해석남녀 」모바일 운세서비스 실시
2001. 06 실시간 운세 서비스 사업실시 (ARS)
2001. 08 역학 소프트웨어「 전문가용 3.0 」출시

⊙ 보도자료

1994. 08. 27 「 컴퓨터역학 S/W 」 ..... 조선일보
1995. 02. 02 「 역학프로그램 소개」 ..... 중앙일보
1998. 10. 12 「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 ..... 전자신문
1998. 12. 28 「 운세부분 1위 」 ..... 매일경제
1999. 04. 06 「 역학 데이터 베이스 개발 」 ..... 한국경제
1999. 05. 13 「 사주백과 학문적 DB」 ..... 스포츠서울
2001. 01. 28 「 사주백과 프로그램 소개」 ..... 서울경제
2001. 01. 26 「 사주백과 책자 S/W 출시 」 ..... 한국일보

사주백과 소개

⊙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1. 역학 전문 상담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3. 용어사전을 넣어 역학학습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5.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6. 한 번 감정한 사주의 내용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있습니다.

⊙ 사주백과 제품구성

명리학, 주역, 성명학, 택일, 기문둔갑, 자미두수, 토정비결, 오운육기, 기국신명술, 육효육식점, 궁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주백과의 특징

첫째, 천재 용신(用神)과 격국(格局)은 자동선정 되며 용신수정 기능이 있어 천간, 지지, 지장간 등으로 구분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해설(모든 해설이 편집가능)
셋째, 정확한 안세력 (절입일 시각 기준에 의한 사주구성/대운수 산정/범어타임 적용 및 동경시치 적용, 윤달구분 및 음양력 변환이 가능)
넷째, 원국화면 한 장의 조후, 보좌등의 용신선정, 격국, 대운, 년운, 월운, 형운, 명궁소한 본명성, 지장간의 시점시기, 음양오행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학전문 상담화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설의 경우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주백과 활용

신도관리용, 신도상담용, 역학학습용, 전화상담용, 출장상담용, 각종 운세서비스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사찰을 비롯한 철학원등 역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

사주백과 버전 3.00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객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전통문화연구원에서는 홍보용으로 전문가용 역학종합프로그램 사주백과 3.0를 먼저 연락 주신 50명에서 50만원에 드리는 가격할인 특별행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사주백과 3.0 정가 ~~1,250,000원~~ ⇨ 출시기념할인가 500,000원

◆ 사주백과 업그레이드
1. 사주박사 (기존고객) : 삼십만원
2. 사주백과 (버전 1.0) : 이십만원
3. 사주백과 (버전 2.0) : 십만원

◈ 사주백과 프로그램 구입문의

■ 정 가 : 1,250,000원
■ 입금처 : 기업은행 077-039597-01-016
■ 받는곳 : ㈜ 코리아컨텐츠네트워크
■ 전 화 : 02-548-2527 / 02-826-2700
■ 인터넷 : www.dosa.co.kr

*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설치 및 사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역학강좌 안내

과 목 : 명리학, 성명학, 육효, 택일

초급반
1. 기 간 : 3개월 집중 강좌 / 역리전산교육
2. 과 목 : 택2 (ex 명리학, 육효)
3. 특 전 : 강의교재 + 사주백과 1SET

중급반
1. 기 간 : 2개월 집중 강좌
2. 과 목 : 택2 (ex 명리학, 성명학)
3. 특 전 : 강의교재

고급반
1. 기 간 : 1개월 고급동변과정
2. 과 목 : 택1 (ex 명리학)
3. 특 전 : 강의교재

◈ 역학강좌 수강문의

■ 주 최 : 전통문화연구원
■ 강 사 : 전통문화연구위원
■ 개 강 : 수시모집
■ 장 소 : 한컴벤처타워 1층
■ 전 화 : 02-548-2527 / 02-826-2700

* 개별 방문강의도 가능하며, 장소 / 시간 / 수강요일 협의 결정

◈ 주요 판매처

사찰, 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회원, 역리사자격검정관리협회 회원, 동양철학협회 회원, 인장협회 회원, 무속협회 회원, 한국통신 · 데이콤 · 하나로통신 · 온세통신의 ARS상담원, 역학학원, 대학 역학관련 사회교육원 학생, 한의사협회 회원, 악사협회 회원, 문화센타 역학생, 승가대학, 역학학술단체, 역학을 취미로 하시는 일반인과 역학동호회 회원들에게 판매 되었습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 17세기 티베트에 간 신부들의 전율

중세유럽에는 아시아의 오지 카타이에 기독교왕국이 존재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13세기 징기스칸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던 유럽인들은 미지의 기독교 제국의 왕, 프레스터 존이 아시아의 오지에 강력한 기독교 제국을 통치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제왕이 나타나서 동고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여러 탐색대를 아시아의 오지에 파견한다. 13세기 중엽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몽고군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신을 몽고 조정에 파견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플랑더스 출신의 프란쳐스코회 수도사 기욤 드 뤼브룩(1220~1293)은 몽고 영내에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카라코람지방의 불교사원을 기독교의 예배 장소라고 보고하면서 "시대가 흐르고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기독교가 삭발하고 황의를 입는 풍습으로 변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으나 그것은 긴 오해의 시작이었다.

"예수회원은 절대 발을 딛지 말라"

그로부터 3백여년 후 다시 티베트로 향하는 두 명의 가톨릭 신부가 있었다. 그 한 사람은 안토니오 드 안드라데(1580~1634)였다. 당시 인도의 무갈제국에 포교를 위해 파견되었던 포트투갈 출신의 예수회원 안드라데는 동료였던 마누엘 마르쿠스와 함께 1624년 갠지스강의 수원지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끝에 히말라야의 협곡을 지나 티베트에 도착한다. 이들의 목표 역시 중세 기독교도들의 왕국을 히말라야의 오지에서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드라데는 서부 티베트에 머물면서 직접 티베트의 종교, 풍습을 견문한다. 당시 티베트 승려들은 염력으로 먼 곳의 물건을 순간 이동시키고 공중부양, 전생기억, 미지와의 대화를 나누는 초능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그렇게 엄청난 금과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빈한 수도생활을 하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교리를 수십 년에 걸쳐서 공부하고 날마다 고행을 거듭하고 있지 않은가. 그곳에서는 채 백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하찮은 운명 따위를 예언하는 것은 초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안드라데는 승려들의 초능력을 직접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골피리,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염주를 손에 든 라마의 모습, 티베트의 승려들이 입고 있는 법의는 고대 그림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12사도와 같은 복장이며 승단의 위계제도, 가톨릭에서도 사용하는 성수와 법구를 그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그는 "여기는 세상의 끝이다. 이 불모의 오지에서 번영하고 있는 이곳의 종교는 악마들이 교회를 흉내 내어 만들어낸 악마들의 가톨릭인 것이 분명하다. 예수회원은 절대 이 지역에 발을 딛지 않게 되기를 청원한다"고 전율하고 있다. 전율로 가득찬 안드라데의 보고는 1626년 리스본에서 간행되어 카타이, 티베트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유럽에 전달하게 된다. 결국 안드라데는 자신의 교구가 있던 인도의 고아로 돌아가던 도중 독살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한다. 안드라데 이후 1715년 8월 14일 두 달간 라다크의 레에 체재한 후 티베트의 라사를 향하여 출발하는 두 명의 가톨릭 예수회원이 있었다. 한 사람은 이탈리아출신의 이폴리토 데씨데리(1684~1733), 또 한 사람은 인도 델리에서 20여 년간 포교를 계속 포교를 해오던 임마노엘 프레이어(1679~?)였다. 그들이 또다시 파견된 목적은 안드라데의 보고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 악마의 가톨릭에 대한 예수회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데씨데리는 1716년 라사에 도착하여 1721년까지 6년 동안 티베트어를 익히고 티베트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로마 교황청에 띄워서 그 동안 금지되어있던 티베트에 대한 가톨릭 포교권을 다시 예수회에 돌려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데씨데리에 의해서 그동안 황당하고 기괴한 이미지로 채색되었던 티베트불교는 그 전모가 서양에 소개되고 서양의 불교연구는 더욱 전문화되기 시작한다. 놀라운 일은 데씨데리 자신이 총카파의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정독하고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교의문답〉을 티베트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경학회 회주

오늘날 출-재가 합한 사부대중

참불자의 길 교단의 구성



◇오늘날의 교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4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베나레스 근교의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수행자와 재회하여 첫 법문을 설하고, 그들을 제자로 맞았다. 바로 불교의 최초 승가(僧伽)가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동일한 교의(敎義)를 기반으로 구성된 공동의 집단을 교단이라 한다. 불교의 교단을 승가(僧伽)라고 하는데, 승가로 음사되는 상가(sangha)는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집단 · 회합(會合)이라는 뜻의 가나(gana)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승가는 원래 상공업자의 조합이나 공화제를 취한 부족국가 등의 정치단체에 적용되는 말이었지만 기원전 3세기의 아쇼카왕 시대에는 오로지 불교교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초기의 승가는 한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사문의 집단으로 마을을 떠나 조용한 삼림, 동굴, 나무 아래서 수행하였는데,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가 증가하고, 수행에 부적합한 우기를 지내는 방법 등이 대두되면서 한 곳에 정착하며 처음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지도론〉에 "승가란 중(衆)이라 한역된다. 여러 명의 비구가 한 곳에서 화합하는 것을 승가라 한다. 비유컨대 큰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숲이라 하지만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나무는 숲이라 하지 않으며, 그 개별적인 나무를 제외하고는 숲 또한 없는 것과 같다. 이와같이 하나 하나의 비구를 승(僧)이라 하지 않지만 하나 하나의 비구를 제외하고는 승 또한 없는 것이니 여러 비구들이 화합하여 승(승가)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고 설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승가를 지칭할 때 화합중이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승가란 출가수행자의 집단만을 가리키지만 재가신자와의 유대에 의하여 원활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종류를 합하여 불교대중(佛敎大衆)이라 한다.

녹야원서 최초 승가 탄생

정법 계승자의 모임

'화합 실현' 이상 추구

남성 출가자는 비구(比丘), 여성 출가자는 비구니(比丘尼)라 하며, 남성재가자는 우바새(優婆塞), 여성 재가자는 우바이(優婆夷)라고 하여 이 네 종류의 대중을 합하여 4부대중(四部大衆)또는 4중(四衆)이라 한다. 이 4부대중이 오늘날 교단을 이끌어 가는 실제적 중심이다. 원래 각각의 4중은 모두 집단의 뜻을 가지며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 비구, 비구니는 걸식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재가신자의 보시에 의해 생활하면서 수행하고, 또한 재가신자를 이끄는 전문가 집단이다. 우바새 우바이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아서 그것을 지키면서 출가자의 시중을 들고 보시에 통해 경제적으로 출가자를 돕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다. 비구 비구니는 원래 연령제한이 있어 20세 이상만 입단을 허가하였는데 그 입단 허가의 의식을 구족계(具足戒)또는 수계(受戒)라 하였다. 20세 이하인 사람이 입단하는 경우는 출가의식을 받고, 10계를 주고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라 한다. 이 가운데 사미니는 18세가 되면 정학녀(正學女, 식차마나)가 되어 2년간 6법계를 지키고 20세에 이르면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된다. 비구, 비구니, 정학녀, 사미, 사미니를 출가의 5중(五衆)이라 하고, 여기에 우바새와 우바이를 더해서 7중(七衆)이라 한다. 비구의 승가와 비구니의 승가는 엄연하게 구별되고, 각각의 독립적 자치조직이다. 이 둘을 합해서 양(兩)승가라 부른다. 승가의 형태는 실제로 시대에 따라 크게 변했지만, 불교의 전문가이자 신행의 지도자이며, 정법의 계승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㉚

여사인(呂舍人)에 대한 답서(1)

사량분별은 계속 허상 만들어 낼뿐…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모든 부처와 조사는 단 한 법(法)도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취한다면, 사람을 그르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언설상(言說相)을 떠나 있으며 심연상(心緣相)을 떠나 있으며 문자상(文字相)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상(相)의 떠남을 알 수 있는 자도 다만 여사인일 뿐이며, 죽은 뒤에 단멸(斷滅)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자도 다만 여사인일 뿐이며, 곧바로 가리켜 보이기를 바라는 자도 다만 여사인일 뿐이며, 매일 매 순간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사랑하거나 분별하거나 멍청함에 빠지거나 들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모두 여사인일 뿐입니다. 다만 이 여사인만이 여러 가지 기이하고 특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부처 모든 조사와 더불어 적멸의 대해탈광명(大解脫光明) 바다 속에서 함께 헤엄치며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선(禪) 공부는 자기의 타고난 본성(本性)을 확인하고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본성은 얻은 적도 없고 잃은 적도 없으며,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다. 주거나 받을 수도 없으며,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 본성은 모양도 크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눈으로 모양과 색을 볼 때 모양과 색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 냄새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입으로 음식 맛을 볼 때 그 맛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 촉감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의식으로 무엇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무엇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는다. 즉 지금 온갖 동작하는 곳과 사려 분별하는 곳과 느끼는 곳과 의욕하는 곳에서 상(相)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행위동작과 사려분별과 느낌과 의욕이 모조리 본성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본성이니 선이니 공부니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본성이고 달리 또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서 이 글을 읽고 이리 저리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이 바로 본성이고 따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본성이며 손 끝에 느껴지는 신문지의 감각이 본성일 뿐이고 또 다른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본성은 매 순간 매 순간의 모든 일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이면서도 도가 아니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면서도 선이 아니고, 본성을 본성이라고 말하면 본성이면서도 본성이 아니다. 그 까닭은 진실로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고 선 아님이 없고 본성 아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사량 분별을 통하여 허황된 상(相)을 만들고는 그 허상에 애착하고 가로막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사량 분별도 본성이고 사량 분별로 만들어내는 허상조차도 모두 본성일 뿐 다른 무엇이 아니다. 어떤 것도 본성을 벗어나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왜 본성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허상을 따라다니며 번뇌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또 하나의 허상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허상을 극복하고 지금 이대로의 본성을 진실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허상은 사량분별에서 생기므로 사량 분별을 통해서는 계속 허상을 만들어 낼 뿐, 허상을 극복할 수가 없다.

허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쉬어버리는 관문을 반드시 한 번 통과해야 한다.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던 허상과 사량 분별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잡을 것 없는 허공(虛空)을 붙잡는 듯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하고 진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http://www.mindfree.net/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렁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인경, 헤드폰, 사용책자등 / 미국 마이크로펌사)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 오라진동쿠션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 (황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메가플러스 명상기의 특징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송찬우 교수와 함께하는

천태소지관 (1년)



坐禪

천태소지관

이 천태소지관은 좌선하는 방법의 중요한 요지를 천태지자대사가 쓴 책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술했으며 선서의 원조이다. 지(止)와 관(觀)의 정확한 개념과 함께 대승불교의 수행요체를 체득함으로써 해탈의 길을 이루는 불교의 중요한 수도방법 입니다.

■ 강의 개요

1.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화) 오후 2시
2. 교육장소	동산불교회관 (조계사 옆)
3. 지도법사	송찬우 교수
4. 교 과 목	천태소지관, 금강경, 대승기신론, 육조단경, 유마경등 능엄경(통신반)
5. 모집학과	주간반, 통신반

※ 문의 : 사무국 ☎ (02) 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이렇게 들었다

함께 사는 길

"우유와 물 섞이듯 화합하라"

지난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미 국방성 건물이 파괴돼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테러사태는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전쟁수준의 보복을 천명했다. 하지만 보복은 또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테러에 무참히 희생된 미국시민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테러범들이 숨어있을지 모르는 나라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류는 이제 화합하고 함께 사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 스스로 노여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평화롭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니, 공존의 길이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부처님의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본다.

▨석가족과 강을 사이에 두고 코리야족이 있었다. 이 코리야족은 이곳에 정착하면서 석가족과 빈번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이좋게 지냈다. 하지만 어느 해 혹독한 가뭄으로 두 종족 사이에는 물싸움이 벌어졌다. 코리야족의 대표가 "물을 양쪽에서 끌어 쓰게 되면 둘 다 죽으니 우리가 물을 끌어 쓰겠다"고 하자 석가족은 군사를 일으켰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두 왕족의 왕에게로 가서 게송을 읊었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원한 없이 탐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부처님께서 설하자 두 왕은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면 서로 큰 살상을 했을 것이다"며 화해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 형제 · 부부 · 가족 ·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싸우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현상세계의 실상을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범천소문경>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였다.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욕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이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고 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김주일 기자

살생의 共業이 인류공멸 근본원인

물자 세상보기

악업의 인과 되풀이 세계 평화 위협받아



권경술
새생각실천회 회장
수필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미국 경제력의 상징물인 세계무역센터와 세계 최강 군사력을 상징하는 워싱턴의 펜타곤이 대형 여객기를 폭탄으로 삼은 테러에 의해 파괴된 '피의 화요일' 참사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긴장으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번 테러는 전쟁행위에 해당 한다"며 "테러의 책임자뿐 아니라 그들을 숨기고 보호해주는 자들까지 색출해 응징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전쟁에 상응하는 '피의 보복'과 그 악순환이 예상된다.

돌이켜보건대 미국은 서부개척 과정에서 원주민인 인디언들과의 충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과 남북전쟁 그리고 세계 1 · 2차 대전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등 전쟁을 통해 성장하고 번성한 국가다. 그리하여 전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살생(殺生)의 업습(業習)에 익숙한 나머지, 자본주의의 최대 결합인 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전쟁을 합리화하는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가 월남전을 계기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업습은 순치하기 어렵고 관성을 갖기 마련이어서, 미국이 이번 테러에 대해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복을 한다는 것은 그간의 살생 업습과 악업의 인과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오사마 빈 라덴이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을 외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테러의 뿌리는 이슬람교의 역사에 내재된 살생 업습과 인과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폭력성을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두 집단-넓게 미국 등 서방측과 이슬람권-간의 이해의 충돌 · 종교의 충돌 그리고 살생업습의 충돌로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다른 국가와 민족이 경제적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류는 무명(無明)으로 '거짓된 나'에 집착한 나머지 삼독심이 증장되어 살생의 악업을 마다하지 않고 전쟁을 예사로 치러 온 악업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랜 전쟁의 업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생업을 그치는 크고 작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의 공포와 고통, 그 연장선상의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이제는 자각해야 한다.

이번 테러를 계기로 오랜 살생의 공업(共業)이 인류 공멸의 근본원인임을 깨달아, 이슬람교도들은 한 손의 칼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아야 하고, 미국민은 무력전쟁의 한계를 깨닫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근본책임은 각 종교의 성직자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안락한 삶을 위해 창안된 종교가 교단 위주로 세속화되면서 종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외면한 채 종교시장개척을 위해 인류의 살생업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한 과오를 이제 직시해야 한다.

미국민이 200여년의 노력 끝에 쌓은 부(富)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먼지구름으로 무너져 내린 현실을 목격한 불자(佛子)라면 '백년 동안 탐내어 모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됨(百年貪物一朝塵)'을 절감하고 나아가 '사흘 동안만이라도 수행한 마음은 천년이 되도록 보배가 된다(三日修心千載寶)'는 야운 선사의 말씀을 유념해 부처님께서 펴신 가르침대로 악업을 끊는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 테러 대참사

네티즌 반응

세계를 경악시킨 미국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테러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보복조치를 예상하면도, 보복이 또다른 테러를 부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테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다. 교계 안팎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네티즌 반응을 종합했다.

"테러도 전쟁도 있을수 없는 일"
"보복살상 더 무서운 도덕적 악"
"아프간 간난아이 목숨도 소중"

○… 테러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리스트와 그에 대한 복수로 그만큼의 피값을 요구하는 미국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미국인의 피도 소중하지만 이 순간 아프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잠들어 있는 어느 아이의 목숨도 소중하다. 자신들의 분노를 풀기 위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될 것이 뻔한 일을 서슴없이 하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gogo

○… 테러나 전쟁 모두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그 선악의 구별은 무의미할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테러는 덩치가 작은 약자가 주로 선택하는 공격수단이고 전쟁은 덩치가 큰 강자가 즐겨 쓰는 수법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gonsan

○… 악은 악을 낳을 뿐이다. 보복 테러는 더 무서운 도덕적 악이다. 악은 결국 악을 낳을 뿐,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각국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정부를 도와 이성적인, 인류애에 바탕을 둔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미순

○… 이번 참사는 테러리스트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입장에서는 끔찍한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 테러 이후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의 결과만 탓을 하지, 그 원인인 '집'과 대안인 '멸, 도'는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

○… 비행기 테러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미국의 거만한 외교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본능만이 존재하는 야수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병구

○…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의 방식에 유감이군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텐데.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었는데 전쟁으로 또다시 더 많은 목숨이 사라져도 좋겠습니까? 로랑세이크

○… 미국의 보복 행위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랄뿐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냉철함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갖춘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솔로만

○… 무분별한 반미 감정을 우려한다. 명분 없는 테러를 응징하려는 미국의 처사는 마땅하며 오히려 코란을 국민에게 강요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구시대적인 중동지도자들을 규탄해야 할 일로 본다. juini

○… 이번 사건 때문에 미국이 '선'이 되고 이슬람이 '악'이 되는 이분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응징이 또 다른 증오와 테러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태훈

○… 미국이 보복조치를 실행하면 나토도 협력하겠다고 했다지요. 그러면 이건 이슬람교대 기독교 싸움으로 번질지도 모르겠네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두 형제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손창호

○… 미국은 현재 엄청난 테러의 피해자이고,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어디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미국의 보복 공격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본다. 김재현

기고

"신행 상담소 사찰마다 설치 포교환경 넓히자"



이태수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 부회장

사찰을 다녀보면, 법당은 개방되어 예불이나 시주하는 데는 자유롭다. 하지만 절의 역사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불교에 대해 묻고 싶어도, 그 사찰의 신도가 되고 싶어도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공간도 없다.

며칠 전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버섯 조사와 사진 촬영을 한 일이 있다. 50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접근하더니 "믿음이 있느냐"면서 선교하려 했다. 다른 종교는 성소를 넘어서도 선교를 하려 하는데 불교는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외면하니 안타깝다.

최소한 험난한 세상살이에 자신의 인생을 불교적으로 해결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사찰마다 '신행상담소'를 설치해 주기를 전국의 주지 스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신행상담소는 어느 절에나 설치할 수 있고, 운영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님이 여러분 계시는 곳은 물론 한 분 만 계시는 곳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매일의 상담이 어렵다면 일주일 단위로 날짜를 정해 상담해도 좋을 듯하다. 혹시 스님들께서 "수행하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신행상담까지 할 수 있느냐"고 반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찰 청년회나 신도회 등을 활성화시켜 이 모임 가운데 상담자를 임명하여 1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른 종교의 경우를 보자. 권사, 집사, 장로 등 여러 계층의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하고 있는가. 사찰참배객에게 항시 문호를 열어 언제 누구에게나 불교를 믿도록 가르쳐 주는 신행상담소 설치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송선식(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상(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충격적 장면…보고 또 보고

수만명의 일터이고 하루 15만명이 드나든다는, 거대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인해 순식간에 붕괴돼 버린 충격적인 장면, 사람들이 곡에 하듯 수십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장면, 잇달아 폭삭 무너져버리는 주위 빌딩들 …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일 뉴스시간마다 전파를 타고 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루에도 수십 번 되풀이해 보여준다. 워낙 전대미문의 사건이긴 하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그림으로 인해 수천명의 목숨이 희생된 충격적인 대참사가 한낱 영화 장면처럼, 컴퓨터 게임처럼 그저 자극적인 볼거리(?)로 전락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염려된다. 판단력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청소년들이 몇 번을 보다보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기네들이 매일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의 하나처럼 여기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즐겨 하는 컴퓨터게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최다 관객을 동원했다는 영화 '친구' 도 그렇고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무사' 등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오락프로까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살인장면들도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등 극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예사로 나온다. 또 잔혹행위와 살상, 폭력의 묘사 수위도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엽기적이고 저속한 흥미위주의 볼거리로 대부분 채워지는 대중매체인 영화와 TV 등에 중독되어 버렸기에 현대인들이 말로는 '생명존중, 인간존중' 을 떠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폭력, 범죄, 반윤리적 일탈 등에 무감각해지고 방관자적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년전 걸프전 때 CNN으로 생중계된 전쟁장면을 마치 게임이나 영화를 보듯 한다고 '생명경시' 와 '전쟁에 대한 무감각' 풍조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었다. 그렇기에 세계무역센터 붕괴장면이 영화처럼 눈요기 위주로 재구성되어 연일 반복 방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경숙<취재1부 부장>

목탁소리

불교방송 PD들의 항변

불교방송 PD들이 '치우침 없는' 불교방송의 지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방송 PD협회는 11일 '치우침 없는 방송에 적합한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제작권 침해에 대한 제발 방지책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으로 불교방송의 위상이 실추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김모 보도제작국장에게 보냈다. 왜 제작 PD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7일 김모 보도제작 국장이 '아침저널' 진행자 고운기 교수(일본 게이오대)에게 전화를 건 데서 비롯됐다. 김 국장은 고 교수에게 "회사의 방침이니 아침저널 프로그램 시간에 이 한동 총리의 잔류는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교육정서에도 좋지 않다 는 내용으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교수가 담당 PD와 먼저 상의하라고 하자 김 국장은 즉시 '아침저널' 담당인 안희경 PD에게 전화해 똑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불교방송 PD협회 간부들은 분노해 10일 김 국장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신문의 논지도 이와 비슷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교방송 PD협회는 노동조합에 이 사건을 일임해 현재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상태다. 노조는 제작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치우침 없는 방송' 을 지향하는 종교방송인 불교방송에서 사전에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인 개인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려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예민한 정치문제이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두둔하는 시각을 그대로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발상일 수 있다.

불교방송은 어느 특정인을 편들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이 아니다.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 법음으로 험난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은 것일까. '치우침 없는 방송' 이라는 지표를 방송국 근무자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

김주일<취재2부 기자>

불교포럼 '기복불교의 대안'

한국불교를 낙후시킨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굳어져 온 '기복불교',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왔고, 현재 대부분 사찰에서도 의례, 특히 '재(齋)' 지내기 중심에 크게 의존해 사찰 재정과 운영의 밑받침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생고의 문제를 바로 보는 사성제 등을 공부하기보다는 방편이란 편의에 안주하는 등 정법(正法) 교육의 부실이 기복적 기도로 일관하는 신행형태로 고착화 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복 행위를 문제 삼기보다는 올바른 기도와 기복의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철학)는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 · 김연규)이 1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열린 '기복불교의 대안을 찾자' 주제의 포럼에서 '기복불교, 제대로 하자'며 객관적인 '복(福) 채점표' 를 만들자는 이색 제안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토법당 원장 유수스님과 광동여고 광동호 교법사도 '기도의 바른 의미를 일깨워야 한다', '공덕불교로 나아가자' 고 각각 주장했다.

편집자 주

"福 채점표 만들자" "공덕불교로 나아가자"

주제발표 : 올바르게 복짓자

성태용 〈건국대 교수 · 철학〉

결론부터 말한다면 '기복 불교, 제대로 하자' 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대로 행해지는 기복을 통해 한국불교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福) 채점표를 만들어보자' 는 좀 이색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복 채점표' 란 간단히 말해 일정한 단위의 재화나 노력을 어떤 복을 짓기 위한 일에 썼을 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복을 다시 일정한 단위로 표시한 표를 말한다. 불상 건립 등참은 몇 점, 불우 이웃 돕기는 몇 점, 하는 식이다.

기복 행위 속에는 '받고 싶은 복' 이라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하는 '복짓는 일' 이라는 수단이 있다. 기복이 문제로 되는 것은 목적과 수단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목적으로 설정되는 복에 대해 살펴보자. 재물, 출세, 건강 등 부귀공명 무병장수라는 말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물질적 경제적인 복락, 다시 말하여 세속적인 복락을 구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바람이다. 이 바람 자체를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질적,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괴로움들도 생로병사의 큰 괴로움에서 파생된 것임을 바로 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로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 "자비실천하는 삶 수단아닌 목적 부처님 닮는 삶"

기복의 잘못된 양상을 바로잡는 길은 기복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그런가? 문제가 되는 기복 행위의 수단이라는 항에 보시, 자비행, 봉사, 전법,... 등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엔 분명 가치의 전도가 있다. 목적의 항에 들어간 것 보다는 수단의 항에 들어가는 것들이야말로 불교에서 이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더욱 적합한 것들이다. 남을 돕는 삶, 자비를 실천하는 삶 등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 말로 부처님의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힘주어 강조하여 기복의 양상을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다. 일단 복을 짓는 일을 올바로 제시해 주어, 올바르게 복짓는 일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 삶이 바뀌고, 불교의 모습이 바뀐다. 그리고 그러한 바뀌어 가는 삶과 불교의 모습에 현실의 욕망에 가리웠던 눈이 뜨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환희를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기복불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복짓는 일로 제시되는 것이 너무도 편협하고 치우치며, 불자들끼리의 자위행위에 가까운 것들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짓는 일의 실천을 통해 불교적인 참다운 삶을 맛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기복 행위의 목적항을 문제로 삼기보다는 수단의 항에 올바른 기복의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중구난방의 추상적인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잘못된 기복의 악순환을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라도 객관적인 복 채점표를 만들어 보는 과감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단이나 불교 언론이 중심이 되어 불교계 지도적 인사들의 복짓는 일들에 대한 평가를 모아 발표함으로써, 너무도 치우치고 불합리한 기복 행태를 바로잡는 기점을 이루어 보자는 것이다. 일단 모아진 채점표를 통계 결과를 널리 알려 불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복짓는 행위를 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 종단이나 계층, 신분에 따라 그 채점이 크게 다르다면, 채점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진정한 기복의 의미를 따져보면 된다.

불교계의 핵심이 진정한 대승불교의 이념으로 타올라 주변부의 조그만 일탈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복을 기원하는 대중들의 절실한 요구를 불자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복을 문제삼기 보다는 제대로 된 기복을 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올바른 기복 불교의 출발을 위해서는 일시적 방편으로라도 객관적인 '복 채점표' 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불교계 지도층들의 채점을 종합한 복 채점표가 어느 정도는 이상적인 복짓는 일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낙관이 깔려 있다. 만약 그러한 조그만 낙관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면 불교의 앞날에 희망이란 말을 쓸 수 없을 것이다.

토론 : 기도의 바른의미

유수 스님 〈정토법당 원장〉

> "현실에 맞는 신행방법 찾자"



현재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복불교는 나름의 역사적인 성과를 갖고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선 안된다. 예를 들면 조선조 500년은 기복불교의 힘으로 지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숭유억불을 기조로 한 조선왕조의 탄압을 이겨내고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 스님들은 기복불교와 보살불교를 방편삼을 수 밖에 없었다.

기복불교의 시대적 배경과 공과를 인정하는 한편 오늘날 현실에 맞는 바른 신행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태산을 움직이는 옛 스님들과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기도의 바른 의미를 일깨우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개인보다는 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감사하고 참회하는 기도가 되게끔 신도교육에 나서야 한다.

이는 불교가 개인적인 안위와 내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기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사회를 정화, 계도하는 가치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토론 : 한차원 높은 신행

유동호 〈광동여고 교법사〉

> "복 빌지만 말고 복 만드는 노력을"



기복 그 자체가 타파의 대상일 수는 없다. 복을 기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희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복불교의 문제점은 말 그대로 '기복(祈福)' 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복은 이제 실제로 복을 짓는 '작복(作福)' 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5계 수지와 보시행을 통한 작복이 없이는 어떤 기복도 성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을 구하는 중생의 자연스런 성향을 애써 절복하지 않고 그 마음을 승화시켜 보다 차원 높고 불교적인 이상에 부합하는 신행을 이끌어 주는 '공덕(功德)불교' 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덕' 은 선업의 과보로서 누리는 복락의 의미를 넘어, 선업을 행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갖추어지는 능력과 덕을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복불교에서 공덕불교로의 전환은 한국불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아닐수 없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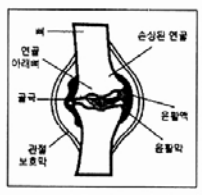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퉁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열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음직이기 힘든 경우(퉁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 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퉁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 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들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 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㉕

큰 연꽃이 홀연히 솟아오르는데.

십지의 완성은 법운지에 있다. '법운(法雲)'에 대해 청량 스님은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인용하여 "큰 법신을 얻어 자재한 능력을 구족하였으므로 법운지(法雲地)라 한다"고 하였고, 또 유식에서는 "큰 교법의 지혜의 구름이 많은 덕의 물을 함유해서, 허공과 같은 모든 무거운 번뇌를 가리고 법신에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법운지는 일체지직위(一切智識位)를 받는 것이다. "그 마지막 삼매는 이름이 '일체지를 받는 승묘한 직위(受一切智勝識位)'다. 이 삼매가 앞에 나타날 때에 대연화(大蓮華)가 홀연히 솟아오르는데, 그 꽃이 넓고 커서 양이 백만 삼천대천세계와 같으며…."

큰 법의 밝은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나니라.

지금까지의 십지수행을 대해(大海十德)에 비유하여 밝히고 있다. "① 차례로 점점 깊어짐(次第漸深)이요 ② 송장을 받아두지 않음(不受死屍)이요 ③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의 이름을 잃음(餘水入中 皆失本名)이요 ④ 모두 다 한 맛(普同一味)이요 ⑤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無量珍寶) ⑥ 바닥까지 이를 수 없으며(無能至底) ⑦ 넓고 커서 한량이 없고(廣大無量) ⑧ 큰 짐승들이 사는 곳(大身所居)이요 ⑨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고(潮不過限) ⑩ 큰 비를 모두 받아도 넘치지 않는다(普受大雨 無有盈溢)"고 하였다. 보살행도 그와 같아서,

"이른바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구지는 모든 파계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선혜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요, 법운지는 모든 부처님의 큰 법의 밝은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니라"

이 공덕은 억겁동안 말로 못다 해.

이제 십지품의 마지막 내용이다. 총체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십지법문이 끝나자 타방(他方)의 여러 부처님께서 오셔서 증명하신다. "'잘하였도다, 금강장이여. 이 법을 통쾌하게 말하였도다. 우리들은 다 같이 이름이 금강장이며, … 모두 부처님의 신력으로써 이 모임에 와서 당신을 위하여 증명합니다."

"이 지에 머물러선 삼계왕 되어 삼승의 모든 법문 연설도 하고 잠깐 동안 한량없는 삼매 얻으며 부처님을 뵈옴도 이와 같더라(住此多作三界王 善能演說三乘法 無量三昧一念得 所見諸佛亦如是). 시방 국토 부수어 티끌 된 것은 한 생각에 그 수효 알 수 있고 털끝으로 허공 재어 안다 하여도 이 공덕은 억겁동안 말로 못 다해(十方國土碎爲塵 可於一念知其數 毫末度空可知量 億劫說此不可盡)."

불법의 오묘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십지법문의 서두에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다"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덕은 억겁동안 말로 하여도 다할 수 없다'고 결론 맺고 있다.

여기서 화엄의 한 품을 끝내고는 항상 결통시방(結通十方)이니 결통무진(結通無盡)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 그것은 결론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일 게다. 다시 말하면 올해 겪은 물난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오는 것이니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겠다. 이렇게 여섯 번째 타화천궁의 십지법문이 끝나고 있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허공을 나는 새 자취 없듯이…

결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뿐



그림 · 문병성

인위적 유전조작 재앙 초래

불교와 과학 〈44〉

1997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돌리 양의 탄생은 인간복제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과학 신봉자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었다. 기존의 육종학자들이 해 왔던 생식세포 복제와 달리 체세포 복제란 손오공의 머리 한 올을 입김으로 불어서 수많은 동일한 손오공을 만든다는 이야기와 원리적으로는 같다. 이런 유전공학의 성과는 결국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극단적인 자아 정체성의 철학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앞서 유전공학의 실용화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과거 우생학이 가져다준 사회 윤리의 혼란은 생식세포의 변형을 통한 과학의 무책임성에 있었지만, 이제 체세포의 인위적인 변형을 통한 유전공학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생명윤리의 괴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대 유전공학의 흐름은 이런 사회적 비판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생명복지의 문제를 유전공학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신념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많은 불치병 환자 가족들에게 유전자 치료법이 당장 나올 것이라는 과신과 책임질 수 없는 지나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희망을 등에 업은 유전공학의 내막은 올해 초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되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논쟁 역시 가속화되었다. 이런 논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유전자가 세포 차원에서 혹은 생명개체 차원에서 생명체의 특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의 틀을 내포한다. 이 문제는 이미 앞의 지면에서 다룬 적이 있었다.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한 유전자 복제는 유전자 자체가 각각의 고유한 형질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생명개체의 생명성은 유전자의 총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사유가 가능해진다.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철학적이건 신학적이건 혹은 경제학적이건 관계없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지니는 유전자에 의해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생명체는 유전자의 기계적 조립품일 뿐이다. 이런 과학 탐구의 결과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철학 · 신학적 문제와 사회윤리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생명윤리

과학탐구-생명윤리 조화 절실
통제 안된 과학 연기법 어긋나

이런 논쟁을 잘 들여다보면 내용과 관계없이 시비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과학자 그룹 혹은 과학 신봉자들은 과학탐구와 그 실용적 가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갈 길이 바쁜데 괜히 인문학적 시비를 걸어 귀찮을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의아해 한다. 그들은 비판적 인문사회학자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현재의 과학탐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인문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 그룹이 사회와 절연된 실험실 연구에 머물러 진정한 생명 가치를 모르는 채 맹목적으로 연구 성과에 집착하는 정도가 위험수위로 다가가고 있다는 단순한 판단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과학의 기초 자료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집을 못한 상태에서 풍문이나 대중적인 3차 자료만을 근거로 사회가치적 주장만이 있을 때, 현재 유전공학 연구 성과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양쪽의 문제들을 조율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논쟁은 많지만 상대의 이해를 구하거나 협조하는 일은 쉽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학자와 과학자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대중적 여론과 유전공학 연구자들의 연구 현실 사이에서 두 시야를 한 공간에 겹쳐 보는 정말 심도 있는 연결 논제는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 대하여 종교계가 나서서 입정 부분 관여를 해야 한다.

이미 가톨릭계를 포함한 기독교계에서는 생명윤리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기독교에서는 유전공학의 성과들이 신의 창조라는 절대적 지위와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반면 창조의 절대적 권능과 초월적인 서구의 신개념과 다른 불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행복추구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계의 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이 식품이나 생체유전자공학은 억지춘향의 인위적인 인연을 조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종교라고 해서 과학의 탐구의지를 꺾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과학의 결과물들이 연기법의 흐름을 먹고 비틀어 버린다면, 그 일은 불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ak sangji ac kr

힌두교도 6천여명 수계받고 불교귀의

지구촌 불교 / 인도 천민계급 개종

인도의 신분제도에서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 6천여 명이 신분차별에 항의해 9일 칸푸르(Kanpur)에서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는 대규모 종교집회를 열었다.

달리트 위원회에 따르면 수계법회는 남아프리카 더반(Durban)에서 지난 8일 폐막한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U.N World Conference on Racism)에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카스트 제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항의해 마련됐다.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는 당초 달리트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 인도 내 신분차별을 의제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달라트 위원회의 람 프라사드 라쉬크(Ram Prasad Rashik) 위원은 "신분차별은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는데, 더반 회의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우리(달리트)를 외면했다"며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칸푸르 수계법회에 앞서 신분차별을 반대하는 포스트를 들고 있는 달리트.

이에 대해 에이피 통신은 "지난 3천여 년 간 신분차별을 숙명으로 생각해 온 달리트들이 20세기 이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의식 역시 다수의 달리트들이 불교의 평등, 자유사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인종회의' 카스트제도 외면 반발
평등 · 자유사상 매료… 내달 1만명 수계

인도 10억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달리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 힌두교의 4개 카스트에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을 지칭한다. '불가촉천민'이란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인도 정부는 195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없앴지만, 아직까지 인도를 유지하는 주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티베트 네트워크 뉴스(Tibet Network News)는 "10월 14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도 1만여 달리트들이 참여하는 수계법회가 봉행된다"고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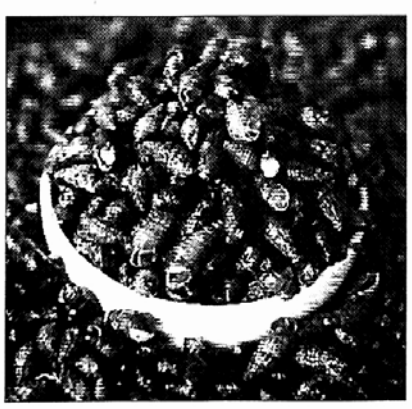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망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달리트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이런 현상이 힌두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뉴델리의 수계법회가 신분차별이나 타종교에 대한 반감 표출로서의 개종이 아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부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응해 귀의하는 자리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델리 수계법회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불교로 귀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인도연맹(India Confederation)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인도연맹은 신분차별을 반대하는 달리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이다.

오종욱 기자 gobaccu@buddhapia.com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No 복주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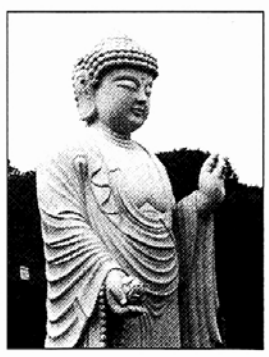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엷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대방광불화엄경>진본(晉本) 권37 (국보 제202호).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



◇<대방광불화엄경>진본(晉本) 권28(보물 제686호).

佛經紙 · 종이불상 의례용 종이꽃 · 지승공예

'종이'는 어떻게 불성 담는가

문명의 전파와 문화의 전수자로서의 종이. 컴퓨터 하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종이를 사용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

불교와 종이의 인연 또한 깊다. 불교와 우리나라의 종이역사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다.

종이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불교의 전래에 따라 불경이 들어온 시기인 4세기 전후에 종이가 전래된 것으로 본다. 또는 고구려의 담징이 610년 일본에 종이제조기술을 전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7세기초로 보기도 한다. 불교의 전래와 불교의 승려 담징의 활동을 통해 결국 4세기~7세기초 사이에 종이제조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종이와 관련한 설화에서도 불교와 종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옛부터 유명한 종이 산지로 알려진 경북 의령에 고려 때의 승려 '설' 씨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때는 이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만들어진지 200년이나 지난 후여서 종이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말해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표적인 우리 종이인 한지(韓紙)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흥미 있게 말해준다.

고려때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국사봉 중턱에 대동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다. 그 절의 주지 설씨가 어느 봄날 닥나무 껍질을 흐르는 냇물에 담가 두었더니 껍질이 물에 풀리면서 삼베올처럼 섬유질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주물러서 바위 위에 건져놓았더니 종이와 같은 물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닥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종이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마지(麻紙) 〈범한다라니〉 1매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종이는 삼베를 원료로 한 마지(麻紙)와 닥나무를 원료로 한 저지(닥종이)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때에 만들어진 종이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11세기 후반부터는 고려 종이를 불경지(佛經紙)로 쓰려는 중국 원나라에까지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려 때에는 수차에 걸친 〈대장경〉 조판사업이 이루어져, 종이의 수요가 증가했다. 대규모의 〈대장경〉이나 여러 가지 사적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된 고려 종이로는 백추지, 견지, 불경지, 아청지 등이 있다. 이때에 두껍고 질기면서도 앞뒤가 반질반질한 인쇄에 적합한 종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조선시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지(韓紙)라고 부르는 저지(닥종이)는 이 시기에 그 특질이



◇한지로 만든 보물 제415호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갖추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 사용하던 백추지, 견지, 아청지, 불경지 등이 계속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제지기술을 도입하여 지질의 고급화에 힘쓰는 한편,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의 종이를 개발해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종이는 또한 기능적으로 활용되어 인간 삶에 쓰이는 여러 종류와 여러 형태를 지닌 생활기물로 탄생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예술품으로 또는 오락물로 인간의 삶을 풍부하고 즐겁게 해주었다.

한지로 만든 건칠지불(乾漆紙佛)은 수백 년 전, 고려시대 말에서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조성된 대표적인 불교종이문화의 한 유형이다. 임진왜란 이후 그 맥이 단절되었는데, 현재 기림사, 장육사 등 십여군데의 사찰에 보물과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꽃이 귀했던 옛날에는 한지로 종이꽃을 만들어 각종 의례에 사용하기도 했다. 꽃방이라 하여 한지를 오려서 물감을 들여 만든 조화를 팔던 이른바 화방도 있었다. 불교의 영산재에도 이 종이꽃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에 행해지는 영산재에서도 종이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종이꽃을 만드는 장인을 화장(花匠), 꽃일장이라 했다. 근래 와서 이 종이꽃을 조화라 부르지만 〈진연의궤〉에는 채화(綵花)라고 기록되어있다.

국보 제126호로 지정 복원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닥종이이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1200여년을 탑 속에서 보내고도 그 형체를 보존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 제지기술의 우수성을 그대로 말해준다.

불교전래 더불어 종이 국내사용
11세기 후반 고려불경지 원나라 수출
대장경 조판후 종이수요 증가

오늘날 기계화된 양지에 비해 한지의 품위 있고 우아한 멋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해, 손으로 뜨는 전통 제지기술의 장점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또 한지의 가공지 중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물을 들인 아름다운 색종이는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뛰어남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1600년 불교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온 종이.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그것을 다시 전산화하는 오늘날에도 그 원본인 〈대장경〉 판본은 여전히 우리 전통 종이인 한지로 인쇄된다. 부처님 말씀의 결집체로서의 〈대장경〉은 우리 종이를 통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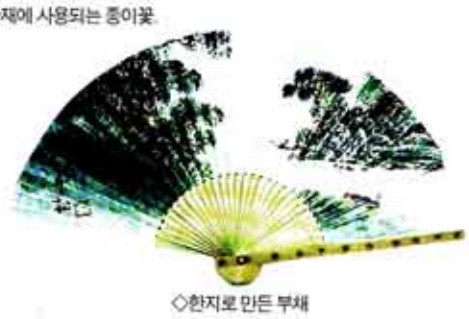
◇다양한 종류와 색상을 갖춘 한지는 생활공예품과 각종 예술품등에 사용된다.



◇한지로 만든 등.



◇영신재에 사용되는 종이꽃.



◇한지로 만든 부채

한지의 종류

한지는 그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하다. 닥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닥종이를 비롯해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다양한 원료로 한지를 만들었다.

마지(麻紙) : 마는 종이가 발명될 때부터 이용된 재료로 가장 오래된 종이원료다. 주로 넝마나 어망으로 사용되었는데 저마(苧麻), 모시와 대마(大麻), 삼베의 베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황벽 등으로 염색하여 황색을 낸 것을 '황마지(黃麻紙)'라고 하는데, 이는 예전에 불경을 옮겨 적거나 인출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뽕나무종이(桑紙) : 뽕나무는 닥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종이 원료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누에를 쳤기 때문에 뽕나무는 비교적 구하기 쉬운 종이 재료 가운데 하나였다. 닥종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닥나무를 대신해 종이원료로 사용된다.

대나무종이 : 대나무가 종이의 원료로 사용된 시기는 9~10세기경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의 대나무종이가 남아있는데, 이때쯤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나무의 순과 굵은 줄기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단단한 섬유를 무르게 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정성들여 만들지 않으면 거친 섬유다발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대의 섬유가 균일하기 때문에 잘 만들면 품질이 매우 좋다.

고정지 : 볏짚, 보리짚을 주원료로 만든 종이다. 주로 인지(印紙)와 간지(簡紙)로 많이 쓰였으며, 특히 함경도 부령의 것이 유명하였다 한다. 이 고정지는 수요가 달리는 닥종이를 대신하고 또 튼튼한 종이를 얻기위해 만들어졌다.

면지 : 고려말 목화재배가 시작된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종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초기까지 면이 종이 제조에 이용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면으로 만든 종이는 닥종이보다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지만 광택이 적고 부푼 듯한 느낌을 준다.

유목지 · 유엽지 · 의이지 : 각각 버드나무의 줄기나 잎, 율무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종이다. 이외에 이끼에 닥나무를 섞어 만든 종이를 태지(苔紙)라고도 했다. 또한 종이는 쪽, 홍화, 치자 등 천연염료를 이용해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염색에 따라 옥색저주지, 홍색저주지, 초록저주지, 금분지, 청색지 등으로 다양하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맥문동정과



폐와 호흡 안정…항염작용도

화랑출신이면서도 정면대결보다는 테러와 모략에 능했던 김유신의 협보전과 외교에 뛰어난 김춘추. 두 사람의 만남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당나라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여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김부식의 말처럼 백제가 마땅히 망할 나라였다면, 패망 후 3년이 지나도록 백제 유민들이 목숨을 걸고 백제부흥운동에 나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국 수서(隨書)의 〈백제전(百濟傳)〉을 보면 당시의 실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백제의 군세는 5부 37군, 200개의 성(城)에 76만호로 인구만도 4백만이 넘는 대도시였으니 그리 호락호락 무너질 위세는 아니었다. 또, 그토록 총명하고 효심이 깊던 의자왕이 갑자기 변하게 된 이면에는 김유신의 모략이 개입되어 있었다. 백제의 계백(階伯)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절대적 방어선이었던 탄현과 백마강 하구의 지법포를 적에게 빼앗기자 마지막 출전을 앞두고 처자식을 모두 죽여야만 했다. 하지만 백제군 5천과 신라군 5만의 싸움은 의외로,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이 연전연승하면서 무려 4번이나 신라를 격퇴시키는 이변을 낳았다." 백제군의 의로운 충성심과 비장한 용맹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수서의 〈백제전〉에는, 아녀자들이 들에서 풀뿌리를 캐어 병사에게 주었다고 전한다.

그 풀뿌리가 맥문동이었다. 맥문동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정신력과 힘을 북돋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전장의 병사들에겐 소중한 양식이었다. 그 후로도 3년간 계속된 백제부흥운동에는 늘 맥문동의 효험이 함께 했다. 지금도 부소산 낙화함 절벽에는 백제의 고혼(孤魂)을 기리는 듯 자생하는 맥문동을 볼 수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맥문동 200g, 황설탕 100g, 볶은 소금 ½ 작은 술, 물 1½컵, 참기름 약간, 조청 5큰 술.

요리법 ① 맥문동을 깨끗이 다듬은 후 끓는 물에 데친다. ② 냄비에 설탕물을 넣고 도라지를 은근히 졸이다 물엿을 넣고 윤기 나게 다시 졸여낸다. ③ 투명한 빛깔이 나면 수분을 빼고 설탕을 살짝살짝 묻혀서 접시에 담아낸다.

효능 ① 장복하면 과로로 약해진 몸을 보양한다. ② 폐와 호흡을 안정시키고, 인체에 부족한 체액 및 정액을 증강시킨다. ③ 사포닌, 베타시스테롤, 아미노산 함유. 특히 메타놉엑스는 항염작용이 탁월하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설잠 선사 '禪燈'

설잠 선사는 세종 17년(1435)에 성균관 뒤편에 있는 사저에서 출생하였다. 관향은 강릉 김 씨, 속명은 시습(時習), 자는 열경(悅卿), 호는 청한자(淸寒子), 매월당(梅月堂), 법명은 설잠(雪岑), 법호는 동봉(東峰), 벽산청은(碧山淸隱), 법자는 췌세옹(贅世翁)이다.

선사는 세상에 알려져 있듯이 3세 때 보리를 맷돌에 가는 것을 보고 "비는 다니 오는데 천둥소리는 어디서 나는가"는 시를 읊었다.

선사는 세종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신동소리를 들었지만 유년시절부터 삶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13세에 이계전, 김반, 윤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타고난 천재성은 일취월장하지 못하여 시련의 길을 걷고 말았다. 1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소년기를 보냈으며,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것을 깨닫고 삼각산 중흥사에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였다.

21세 되는 해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대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견광인자 세아속생(犬狂人者 世我俗生 : 미친개 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찌 살 수가 있겠는가)"하고서 똥통 속으로 들어가 3일간 있다가 나와 삭발하였다. 그 후 선사는 산천을 두루 섭렵하여 다니다가 문경새재에 있는 깊은 곳에 은거하여 용맹정진하였다.

선사께서 용맹정진 하였던 곳은 선사의 부도가 있는 혜국사로 추정된다. 이 사찰은 신라 문성왕 8년(846)에 보조 국사가 창건한 법흥사다. 또한 고려 공민왕이 이곳에 행차하여 산의 이름도 설잠산(雪岑山)에서 주흘산(主屹山)으로 고칠 것을 명하였다. 이곳에 주석하면서 선사의 법명이 설잠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사는 선실에 켜져 있는 등불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선등(禪燈)

一點孤燈焰(일점고등형)
登床杜口時(등상두구시)
機鋒似林臨(기봉사임림)
濟奧契希夷(제오계희이)
始覺浮生幻(시각부생환)
多慚宿業癡(다참숙업치)
禪心與禪大(선심여선대)
相照幾人知(상조기인지)

한점의 외로운 등불 빛나는 것은, 세상에 올라 임을 다문 그 때이네.
심기(心氣)는 번뇌망상과 비슷한데, 오묘한 이치는 희이(希夷 : 돈오)와 어루러졌으나. 부생(浮生)이 환상임을 비로소 깨치니, 전생업이 어리석어 부끄럼 많다.
선심(禪心)은 선행(禪行)보다 더 큰데, 그 비침을 누가 알리요.

선월(禪月)

滿庭秋月白森森(만정추월백삼삼)
人靜孤燈夜已深(인정고등야이심)
風淡霜淸不成夢(풍담상청불성몽)
紙窓簾影動禪心(지창염영동선심)

뜰에 가득한 가을 달 흰빛이 창창한데, 사람 없어 고요하고 외로운 등(燈) 밤은 깊었다.
바람 담담하고 서리 맑아서 꿈 못 이루는데, 종이 · 창 · 발 그림자에 선심(禪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구나.

선사의 깨침은 태산같은 설산이 녹아내린 것과 같다.
선사는 승려로서 때로는 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또한 천민들과 각설이패와 어울리면서 선(禪)의 세계를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발휘하여 소외된 중생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었다.
선사는 오늘날까지 중생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 시대를 초월한 선사로서 무애자(無碍者)이다. 또한 선사는 금오산 용장사(金鰲山 茸長寺)에 주석하실 때 차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일본 스님인 '도시모지우까이(俊茂)'에게 우리나라의 다담선(茶湛禪)과 다도를 가르쳤다. 선사는 성종 24년(1493)에 열반하였다.

禪心은 禪行보다 더 큰데 그 비침을 누가 알리요



가까이서 뵌 큰스님

호 명 스 님

영축총림 통도사 한주

"이 몸 안에 우주의 진리 있어요"

선과 이론. 왠지 어색한 느낌부터 앞선다. 선을 공부함에 있어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가운데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립문자란 용어가 선과 이론을 더 어색하게 한다. 그렇다면 선과 이론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8일 통도사 시탑전(侍塔殿)에 주석하게 계시는 호명 스님을 뵈러 떠났다. 통도사에 도착하자 향긋한 솔향기가 먼저 코끝에 와 닿는다. 세속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 내는 듯 가슴 속까지 시원하다. 솔향기를 마음껏 들이 마시고 나니 통도사를 찾는 신도나 스님들의 얼굴이 꽃빛깔처럼 환해 보였다. 토요일이어서인지 통도사에는 제법 사람들의 그림자가 잦았다. 박물관 왼편으로 난 구름다리를 건너 시탑전 앞에 이르자 산새들이 반가운지 지저귐이 높아가고, 다람쥐도 길 가까지 나와 앞발을 들어 합장한다.

오솔길 사이로 보이는 시탑전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고풍스럽다. 파란 잔디가 깔려진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가을 햇볕을 받아 눈이 시릴 정도로 빛나고, 우물가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다. 영취산 계곡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에 연신 풍경소리가 맑게 울린다.

한국불교 뿌리 튼실하게

시탑전에서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방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검정색 고무신만 찾으면 그곳이 호명 스님이 계신 곳이란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이다.

절을 하는 기자에게 한 번만 하라고 스님이 인자하게 말씀하신다.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은 한국불교 걱정부터 하셨다. 날개만 있을 뿐 뿌리가 튼실하지 못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다는 것이다.

"한국 불교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박겉핥기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이야. 스님들도, 교수들도 모두 교리로만 이러고 저러고 하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핵심은 못 잡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훤하게 보여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허식과 악행만 늘어가는 한국불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스님은, 어제(7일) 수행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들은 '선에 대한 이론이 늘면 공부가 안 된다'는 수행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스님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론의 체계를 분명히 세워야 수행도 잘 할 수 있다는 것.

"수행을 하려면 선(禪)의 레일 위에 올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레일 위에 올라야 하고, 부산에 가려면 부산가는 레일 위에 올라야 하는 것처럼 선에도 레일과 같은 선로(禪路)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레일 위에 오를 수 있는 기초지식, 즉 이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을 때에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분명히 알면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에 앞서 그 선의 레일 위에 올라가는 방식(이론)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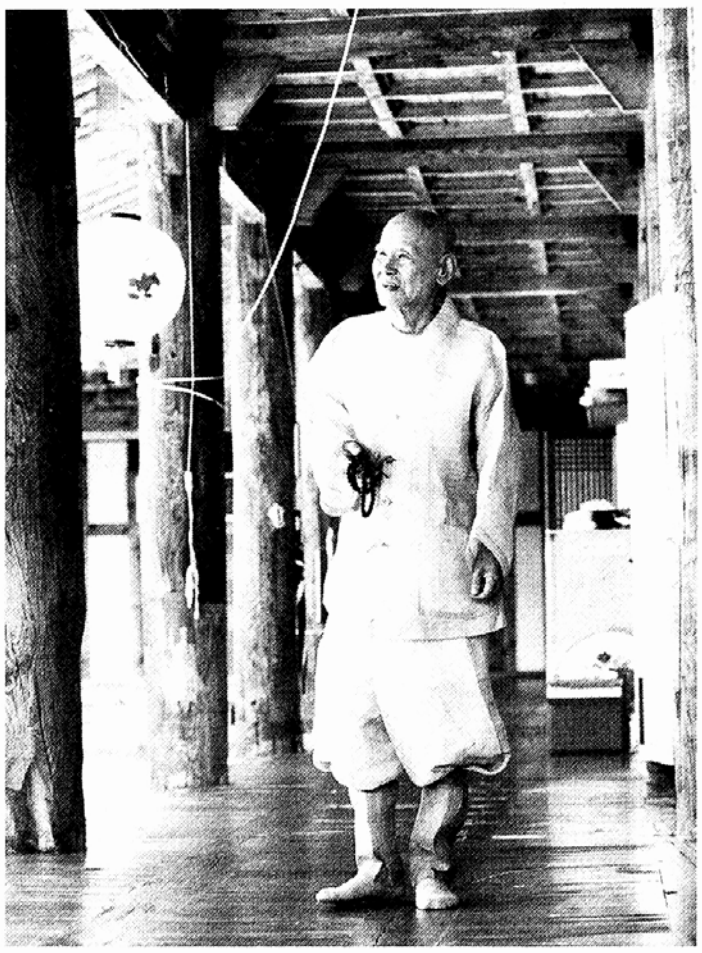
스님은 지금의 한국불교 현실에서 선의 레일 위에 오르는 방법론이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밤낮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그 해법이 〈반야심경〉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

"〈반야심경〉에 '오온개공(五蘊皆空)'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근본공인데 이 이치를 알려면 우선 내가 죽어야 돼요. 정신상태가 죽는 것 말이야.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리고, 걸리지 않아야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쁜 것을 보면 이쁘다고 우르르 달려가고, 미운 것을 보면 밉다고 고개를 돌리는,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색도 마음도 그리고 모양도 없는 근본 자리로 들어가야 해요. 오온이 개공해야 일체 고액이 쉬게 되거든. 그러니 우선 고액부터 없애야 해. 그랬을 때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 조건이에요."

> "이론-수행-실천 맞물려 돌아야 자신을 알고 일가견"

스님은 분별심이 생기는 것은 아상 때문이라도 하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아상 때문에 분별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다시 불교활동을 하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이야기하신다. 불교를 위해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불교에 대해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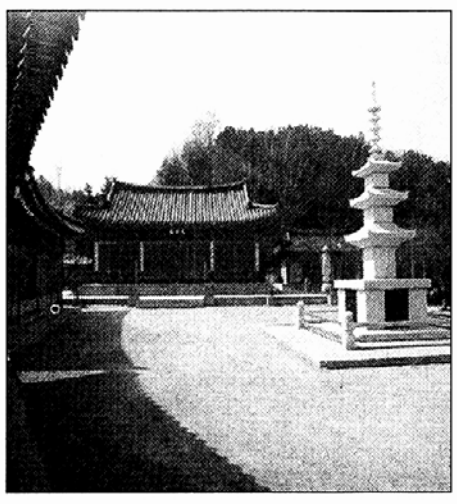


◇통도사 시탑전에 주석하고 계신 호명 스님은 불자들에게 선의 기초이론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다.

법문 원하는곳 어디든

"자기가 눈이 밝지 않으니 눈 밝은 사람을 모르거든. 그러니 불교활동이 쉽지 않지. 문제는 스님들에게 있어요. 불법을 가르치는데 있어,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백고좌법회 같은 경우 이 스님이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저 스님이 와서 저런 얘기 하니 초심자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잡아서 수행을 해야 할지 헷갈리지. 나는 불교에 밝지 못한 사람들을 '장님'이라 하지 않고 '명태 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명태 눈'을 밝게 틔워주는 것이 승가의 역할이라는 스님은, 하루 일과 대부분을 강의와 법문으로 보낸다. 거리의 멀고 가까움도 상관하지 않는다. 스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스님은 이곳 통도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방 선원과 토굴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구참중의 구참이다. 천성산 조계암에서는 22년간이나 직접 밥 짓고 농사지으며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했을 정도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나 혼자만 살아서 될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나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까웠어요. 내가 죽으면 눈 못 감고 죽을 것 같아서 하루는 '밥만 메고 살아선 안 되겠다', '이렇게 속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갈 월 사 영 탑 (靈 塔)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장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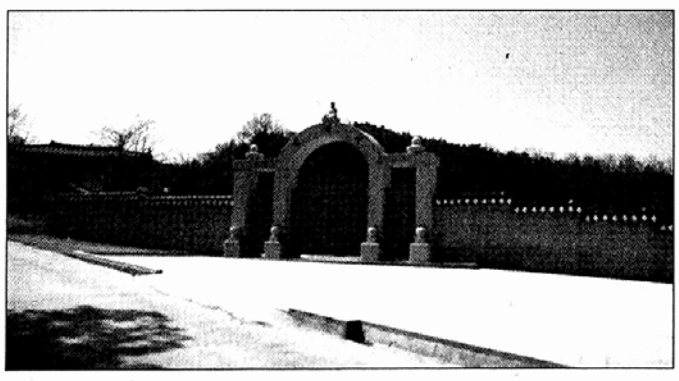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

▲갈월사 경내

정문 ▼



조성된 영탑 ▼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호명 스님은?

제방선원 · 토굴서 40년 정진

88세 불구 공부모임 지도

"선 수행은 이론이 우선시돼야 한다."

세수 88세지만 경전공부모임 경심회 지도에 진력하는 통도사 한주 호명 스님의 수행철학이다.

1914년 서울에서 출생한 스님은 1939년 구례 화엄사 포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40여 년 동안 가행정진하였다. 특히 51세부터 73세까지 천성산 조계암에서 있으면서 참선정진하고, 틈틈히 1천여 평되는 밭에 시금치, 배추 등을 심고 가꾸어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농일치 생활을 22년 동안 하셨다. 그 때 터득한 것이 '나 혼자만 살아서 될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짓는 일만큼 나와 자연, 나와 우주, 나와 이웃이 하나라는 진리를 절실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해준 것이 없다." 그 이후 산에서 내려와 불자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오랫동안의 참선정진 이력과는 달리 스님의 요즘 생활은 법문과 강의로 일관된다. 경주 신라불교문화대학 학장을 맡을 정도로 불교의 생활화에도 남다른 원력을 갖고 있다. 스님은 이론과 선 그리고 실천이란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며 불자들에게 수행에 앞서 정연한 이론 확립을 주장한다. 경심회 지도가 그 첫 작업이다. 스님은 앞으로 불자들의 눈을 밝게 틔워주기 위해 〈반야심경〉 해설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90에 가까운 나이지만 틈만 나면 밤을 새워 연구하고, 불교계 신문과 최신 불서를 꼼꼼히 읽으시며 법문 자료를 챙기시고 찾아오는 불자들을 상담에 응하며, 전국을 다니며 법문하는 스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선지식의 모습이었다.

조계암에서 내려와 지난 90년 봉암사에서 한철 수행한 후 지금까지 통도사에서 머물고 있는 스님은, 요즘 '삼위일체 이론화 교육'이란 프로그램을 마련, 불자들의 수행 지도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고 있다. 선의 이론과 수행 그리고 실천이 바로 그것. 이론, 수행, 실천이라는 세 축이 제대로 이뤄져야 우주의 실체를 알고 그 속에 자신을 알아 일가견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우선 이론이 정연하면 공 사상이 확연해 집니다. 몸은 이대로가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우주를 보시고 〈화엄경〉을 만드시고, 〈법화경〉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멀리 볼게 없어요. 이 몸이 소우주예요. 이것을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 사상입니다."

이론을 정연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사상인 공과 연기의 이론을 뚜렷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선에 대한 이론을 위해 스님이 제시한 또 하나의 이론은 시간론과 공간론 그리고 가치론이다. 이것은 모두 〈반야심경〉에 토대를 두고 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은 시간론, 부증불감(不增不減)은 공간론, 그리고 불구부정(不垢不淨)은 가치론이야. 좋다 나쁘다, 더럽다 더럽지 않다, 이것이 가치론입니다. 난 여기서 가치론을 얻었어요. 불구부정을 알아두세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교육이지. 이러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유와 정신과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론과 수행 그리고 실천의 삼위일체가 스님만의 독특한 수행철학이다.

스님이 주장하는 '삼위일론'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정연한 이론의 확립이다. 이러한 지식을 갖춰야 선의 레일위에 오를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님은 늘 불자들의 기초교리공부를 강조한다.

또 다시 뵙고싶은 스님

스님도 그랬다.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불교 기초 교리를 수록한 〈불교의 정수〉와 〈반야심경〉을 읽었다. 〈불교의 정수〉는 불교가 뭔지 알게 해줬고, 〈반야심경〉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설 정도로 출가의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 이렇게 출가한 스님은 늘 '글과 내가 둘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수행을 하면서도 책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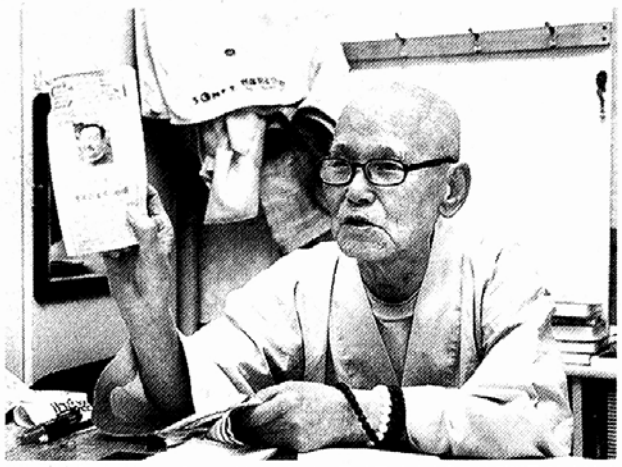
"선가에서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글을 무작정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글을 보다 보면 문득 수행으로 돌려야겠다는 때가 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 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스님은 강의와 법문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신문과 서적들도 두루 탐독하신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불서들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 않다. 불교의 알맹이, 즉 수행의 체험에서 나오는 책이라야 하는데, 종이 값조차 아까울(?) 정도의 내용없는 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스님은 신문에서 스크랩한 〈예수는 없다〉란 책의 기사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말이다"고 말한다.

불교는 산 종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스님은 그 이유를 우리의 몸을 예로 설명한다. 스님이 말하는 인간의 몸은 소우주 즉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 몸에 모든 진리가 다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 그 이치를 모르니 자꾸만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야기하지 알고 보면 이 몸 안에 다 있어요. 부처님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때문에 나를 찾을 때에는 여기 몸에서 찾으세요."



◇이론을 정연하게 갖춘 뒤 수행과 실천이 맞물려 돌아가야 우주의 진리를 알아 일가견을 이룰 수 있다는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호명스님.

> "분별심 생기는 것은 '나'라는 아상때문 현실 있는 그대로 보라"

스님은 우리의 입이 이 몸을 살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진리도 모르고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스님은 법문이나 강의에서 자비와 봉사를 자주 강조하신다. 몸이 곧 소우주임을 알라는 대기설법인 셈이다.

"며칠 만에 깎는 머리카락이지만 이것도 입의 봉사로 자라나거든. 손톱도 발톱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안하거든. 왜 안할까요. 바로 '나'라는 집착 즉 아상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소우주와는 대치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상에서 살고, 이 놈(몸)은 봉사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자연(우주)의 법칙이 아상과 대치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야. 그것이 바로 잡아져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한참 자비와 봉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은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내 얼굴이 찡그려지면 우리 생활 자체가 찌그러지거든. 그 얼굴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 나갈 수 없어. 아름답게 살기위해서는 집착을 없애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스님은 평소에도 많은 상담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90에 가까운 나이지만 스님은 신도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대 소사를 다 들어주고 또 자상하게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

6년 째 경주에서 통도사를 오가며 스님을 시봉하고 있다는 임태주(경주 성건동) 보살은 "스님은 천진불(天眞佛)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항상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불자들에게 신행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쉽고 명징하게 가르쳐 주세요. 뵙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뵙고 싶은 분이 바로 호명 스님이세요"라고 말한다. 스님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다.

선은 우주의 진리를 우리들 생활로 동화시키는 작업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이 요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공부모임 경심회(耕心會) 지도다. 보살과 거사 두 팀으로 나눠 매주 직접 강의한다. 참선을 하기 전에 경전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삼위일체 이론화 교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스님이 화두를 주는 것처럼 한마디 툭 던지신다. "선은 '간'이야. 부처님은 간이 맞는 분이지."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태경스님

태경(台炅) 스님은 아주 재미있는 도반이다. 그래서 그와 종일 같이 있어도 힘들거나 짜증스럽지 않다. 바로 스님의 입담과 익살 때문이다. 어쩌다 스님과 함께 여행을 해보면 해학이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인해 여정이 더 즐겁고 신난다.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폭소가 터진다. 그와 있으면 정말 배꼽 잡고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시들시들하던 기분도 스르르 풀어진다.

미국 스텐포드 대학 윌리엄 프리이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크게 웃을 때 우리네 몸 속의 650개 근육 중에 안면 근육 80개를 포함하여 모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에어로빅 5분 효과와 같다고 하니까, 한번씩 박장대소할 때마다 엄청난 근육 운동을 하는 셈이다. 고혈압과 스트레스 등 현대 질병도 알고 보면 웃음의 사각지대에서 오는 병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태경 스님은 훌륭한 웃음 요법 치료사나 다름없다. 그는 늘 좌중을 즐겁게 만든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인기가 만점이다. 스님을 5분만 보고 있으면 울던 사람도 웃음보를 터트린다. 그만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다양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가수 모창에서 성대모사에 이르기까지

늘 좌중 즐겁게 '웃음 치료사'

수행할 땐 철저…기도 열심

그의 재주는 개그맨을 능가한다. 특히 그가 잘하는 모창은 나훈아 노래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한번쯤은 진짜 나훈아로 착각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너훈아 스님'이다.

웃음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동이나 표정을 코믹이라고 한다. 이미 해인사 학인 시절부터 코믹한 그의 재주는 산중에 소문이 자자했다. 5월 단오 때마다 해인사 산중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축구와 배구가 주 종목으로 치러진다. 그런데 태경 스님이 해인사에 살기 시작하면서 단오날이면 더 재미있게 운동경기를 구경할 수 있었다. 스님이 입담을 발휘해 축구 경기를 아나운서처럼 생생하게 중계했기 때문이다. 축구도 박진감 있었지만 그의 중계 방송이 더 현장감 있었던 것 같다. 그 많은 축구 용어들을 재빠르게 구사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아나운서 경력이 있는 사람쯤으로 여길 정도다. 스님이 최근까지 대구불교방송에서 포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알고 보면 이러한 순발력 있는 능력 때문이다.

인도를 여행할 때의 일이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태경 스님에게 몰려들었다. 학생들을 인솔하던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저만치 가고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사인을 해달라고 조르는 광경은 마치 유명 스타의 공연장 같았다.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보면서 유명 배우 제스처를 해보였는데, 그것이 여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태연하게 사인해주는 그의 모습이 정말 배우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스님의 행동은 때때로 익살스럽고 즉흥적이다.

이러한 유머 있는 모습 때문에 수행자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불과 기도할 때는 확 달라진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을 잘 웃게 만드는 일도 수행의 한 방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 그는 설악산 봉정암과 선운사 도솔암에서 100일 기도를 주야로 한 적이 있다. 칠일 밤낮을 법당에 서서 기도하여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청송 주왕산에서 천막으로 토굴을 짓고 정진할 때는 정말 업식(業識)이 맑았다고 한다. 하루는 마을에 갔다가 산으로 오고 있는데 마을 청년들이 계곡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전기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잔인한 방법을 보고 "닭 한 마리 사줄 테니 고기 잡지 마시오" 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였다. 그 행동을 보고 그가 마음으로 '오늘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마라, 이놈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다음 날 마을 청년들이 찾아와서는 닭 한 마리 값 받으러 왔다고 농담을 하더란다. 깜짝 놀라 사연을 물어보니, '어제 스님이 지나가고 난 뒤로는 경운기 시동이 자꾸 꺼져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의 기도가 신통으로 변한 예는 또 있다. 마을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밤마다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저 놈의 개는 목도 쉬지 않는구나" 하고 말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그 집을 지나면서 보니까 개가 목이 가라앉아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낑낑거렸다. 이 같이 중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그 힘의 전달력이 몇 배 강해지는가 보다. 이번 여름 안거를 끝내고 강원 시절 도반들이 태경 스님이 머물고 있는 절에서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또 그 시절로 돌아가 여전한 그의 익살에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웃을 수 있었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귀신침범비법 · 산소침해비법(탈) · 빌미 · 부정병비법 · 응기 판단비법 · 비방비법

위 각 육임비요형이상비법 상해(六壬秘要形而上秘法 詳解)

찾아오거나
전화해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을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에게 지금.

一. 어떤 귀신, 누구 산소, 무슨 빌미, 어떤 부정병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一. 그 귀신, 산소탈, 빌미, 부정병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는지.
一. 천도, 시식, 부적, 굿 등의 수법을 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없을 것인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一. 수법을 행했을 때, 언제 어느 날 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언제 완전해 질 것인지.
一. 모망, 승진, 구재, 구직, 시험, 결혼,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여행, 도난, 실종, 가출, 면접,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락, 묘지, 기후사 등의 중요사가.
언제(어느 월, 어느 일) 이루어 질것인지.

이상의 형이상사(形而上事)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학술이 갈망되어 왔으나 육임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이 비요(秘要)로 전해져 오고 있는바, 이를 이번에 정확히 밝히게 되므로서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경지가 한차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셔서 활인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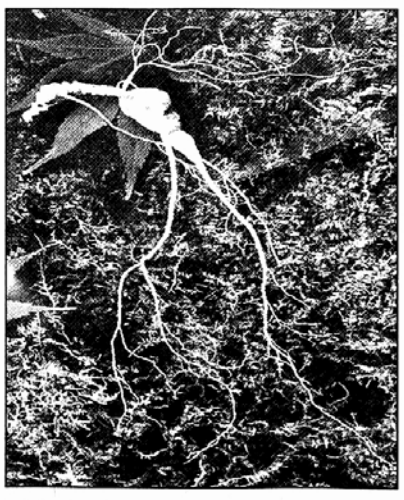
주문전화 : (02)993-8680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입금구좌 : 한 빛 은 행 066-475024-02-001 김 나 여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문인 시각전

10월 14일까지 영인문학관

서화에 담은 작가들의 상상력

만해 스님 · 서정주 시인 유품 전시
게오르규 등 외국문인 육필 '감상'

작가적 상상이란 현실 속에서 사라진 것들, 혹은 부재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문인들은 이따금 자신의 글을 시각 언어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언어의 이미지를 시각 미디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경우다. 더구나 옛날에는 글과 그림의 경계가 오늘날처럼 명확하지 않아서 같은 붓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서화일체의 세계다. 활자문화가 생겨나자 이러한 세계는 사라졌다. 하지만 상상력의 원천에서 그것들이 한데 엉켜 문인화나 서예로 표출되기도 한다. 단순한 여기로서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시각예술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문인들의 서예와 그림은 아무래도 기교면에서 전문가들보다 뒤질 수밖에 없지만, 언어표현을 다른 장르의 표현양식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필적을 가까이서 접하고, 서정주 시인의 육성이 느껴지는 자필서한에, 조병화시인의 멋드러진 유화까지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평창동 영인문학관이 준비한 기획전 '문인 시각전(視覺展)'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 한국문학의 대표 작가들의 친필 서한과 미술 작품, 유품들을 한데 모은 이 전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의 자료들은 1979년에 관장인 강인숙씨가 건국대에서 연 '문인필진 전시회'를 전후해 수집한 것을 근간으로, 작가들에게 개인적으로 기증받아 소장해 온 것들이다. 박두진시인의 서첩은 이번 전시를 위해 박 시인의 부인이 특별히 빌려주었고, 수필가 전숙희씨도 소장 도자기 십여점을 선보인다. 또 구상, 김남조, 김우종, 김화영, 최인호, 이외수, 박범신, 함혜련, 장석남씨 등 시인과 소설가들이 새로 작품을 기증해 문인들만의 독특한 시각을 엿보게 한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서예 작품은 한용운, 이광수, 정지용, 김동리, 박두진, 박종화, 서정주 등 19인의 친필이 담긴 서첩과 병풍이, 그림은 오영수, 한무숙, 손소희, 김상옥, 조병화, 어효선, 김승옥, 이제하, 강석경, 김화영 등 20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유진오, 김동리, 서정주, 전광용, 정한숙, 정비석, 이어령, 이호철, 최일남, 김병종 등 26인이 만든 도자기가 출품된다. 김광균, 박재삼, 박경리, 박완서, 최인호 등 17인의 국내작가와 게오르규, 루이제 린저, 이오네스코, 로브그리에 등 외국 문인의 육필도 볼 수 있다. ☎02379-3182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필적.



◇이외수, 박범신, 김성동의 공동작품



춤과 소리로 만나는 '심청'

김매자 - 안숙선 협연

20일까지 LG아트센터

명무(名舞) 김매자씨와 명창(名唱) 안숙선씨가 만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냈다.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씨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인 안씨가 18일~20일까지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무대에 올리는 '심청'이 바로 그 울림이다.

'춤으로 듣는 소리, 소리로 보는 춤'이라는 부제를 단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차례 재해석하여 무대화되어 온 바 있는 우리 고전 〈심청전〉을 판소리와 창작춤이라는 이질적인 장르간의 조화와 충돌로 빚어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 완창 판소리 심청가와 창작춤의 만남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고유한 우리 예술인 판소리를 보편적인 세계언어인 춤으로 그려내어 공감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심청전 속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 심성인 효를 인류 공통의 언어인 춤과 소리로 표현해내고, 무용이나 창극의 서사적 구조를 벗어나 이미지 위주의 자유로운 전개방식을 통해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우리 전통문화를 되살려보자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02766-5210

이은자 기자

통도사 박물관 '경주 남산 사진전'

자연과 조화이룬 탑-불상-절터

경주 남산은 불교미술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4개의 계곡에 147개의 절터, 106분의 부처님, 82기의 탑, 14기의 왕릉 등이 자연과 절묘한 조화의 세계를 연출해 내는 곳이 바로 남산이다.

20여년간 사찰을 비롯한 우리 전통건축을 촬영해 온 사진가 박근재씨는 그런 남산에 매료되어 수년간 남산을 오르내리며, 신라인이 공무었던 이상세계와 삶의 흔적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통도사성보박물관이 특별기획초대전으로 마련한 박씨의 '경주 남산 사진전'은 22일~10월 8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봉화골 칠불암, 용장사지 삼륜대불, 탑골 마애조상군, 용장골 대연화좌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055)382-1001

불교문학 거장 김달진 문학제

22·23일 진해 생가 등서



지난 1989년 작고한 불교계 시문학의 거장 월하(月下) 김달진 선생을 추모하는 제5회 김달진 문학제가 22~23일 고향인 진해 생가를 중심으로 시민회관과 경남문학관에서 열린다.

경남시사랑문인협의회와 김달진문학제전위원회, 경남시사랑문인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2일 경남문학관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문학심포지엄, 제1회 시낭송 페스티벌, 제3회 진해사랑 청소년시낭송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진해시 웅동 김달진 선생의 생가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전국 초·중·고교생이 참가하는 백일장이 개최된다.

특히 올해 첫 행사로 열리는 시낭송 페스티벌은 '시인 만세'를 주제로 첨단 멀티미디어를 이용, 시와 음악 무용 등이 만나는 이색 행사로 진행된다.

오페라 '직지' 11월 재공연

지난해 청주시 문화사업단이 주축이 돼 선보였던 창작 오페라 '직지'가 오는 11월 13일과 14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재공연된다.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서울에 이어 11월 17일, 18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어진다.

청주시 문화사업단은 현재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의 공연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고양이가 마음대로 뛰놀다가 주인에게 뒷덜미를 잡히니 꼼짝도 못한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의 급소는 대개 허리(腰 혹은 要) 아니면 목(頭)이다. 그래서 급소를 허리와 목 즉, '요령'이라고 한다. 일하는 데에도 허리와 목이 있어, 요령을 파악하면 매사가 수월한 법이다. 동물을 잡거나 일을 처리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상이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요령이 있을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인 사단(四端) 즉,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인간이 갖추고 있는 영성, 이성, 감성, 오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로서, 인의예지란 요즘 식으로 하면 종교, 철학, 예술, 과학에 해당된다. 우선 과학으로 생활(生)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예술로 늙음(老)을, 철학으로 아픔(病)을, 그리고 종교로 죽음(死)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개 과학은 4박자, 철학은 3박자, 종교는 2박자, 예술은 1박자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동양사상의 기본구조 (1)

시간·공간·사람 세 좌표 속에서 찾는 존재조건

첫째로, 인간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먼저 과학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순환원리는 동서남북과 춘하추동의 4박자 리듬을 탄다. 인간의 체질은 태양, 소양, 소음, 태음의 사상(四象)으로 나뉘며, 하루는 아침, 낮, 저녁, 밤으로 이어진다. 선비의 길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수도(修道)의 과정은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즉 성문, 연각, 보살, 불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말하자면 귀, 눈, 코, 입이 차례로 통력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철학을 가지기 위해선 천, 지, 인 삼재(三才)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재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시간, 공간, 인간으로서 사람이 시공간의 좌표 속에서 자신의 존재조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삼박자로 이루어진 것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국사 대웅전 앞뜰의 왼쪽에는 매난국죽으로 조각된 다보탑이 있어서 '시간'을 상징하고, 오른 쪽에는 단순 평탄한 석가탑이 있어서 '공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두 탑과 함께 삼각형을 그리는 꼭지점에 위치한 대웅전의 부처님은 '인간'에 해당한다. 삼성각에도 대개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산신님 그리고 인간인 '나반존자'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인문학은 문(文, 詩經), 사(史, 書經), 철(哲, 易經)로 이루어져 있고, 주역의 원리는 변역(變易, 시간), 불역(不易, 공간) 이간(易簡,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의 몸은 그 성질상으로 보아 법신(법로자나불, 화엄경), 보신(아미타불, 법화경), 화신(석가모니불, 원각경)으로 나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특성에 따라 불교, 불도 불학으로 나뉠 수 있다. 가족은 부, 모, 자식으로 구성되며, 한글의 모음은 천(ㅏ), 지(ㅡ), 인(ㅣ)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진선미, 지덕체, 지정의, 탐진치 등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1,40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30,000원)
수분흡수와 방습기능은 일반천의 3배, 무좀이나 의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종교간 대화없이 세계평화 없다

한국 기독교와 신도들의 신앙 행태를 비판한 <예수는 없다>(현암사)를 쓴 캐나나 교포 종교학자 오강남(60 · 리자이나대) 교수가 이번엔 틱낱한 스님의 설법집 <귀향(Going Home)>(모색)을 우리말로 옮겼다. 안식년을 맞아 한 학기 동안 서울대와 서강대 대학원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한 오 교수를 만났다.

"귀향은 각자가 속한 종교에 깊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자기 종교 전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 틱낱한 스님이 강조하는 것도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틱낱한 설법집 '귀향' 오강남 옮김

오 교수가 틱낱한 스님의 책을 번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내놓은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이어 두 번째.

"틱낱한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 정의하고, 두 종교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더욱 아름다운 '길벗'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염원하는 마음에서 번역하게 됐습니다."

타종교 닫힌 눈·귀 열어 함께 나은 세상 만들기

〈귀향〉은 틱낱한 스님이 이 시대의 상처, 곧 우리 자신들의 영적 소외를 상태를 다루고 있다.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이어가는 후속편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세계 평화는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의 평화는 종교 간의 대화 없이 불가능하다'는 신학자 한스큰의 말을 예로 들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다. 미주불교법사회(회장 강형기) 주최로 지난달 25일 동국로알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기독교는 불교와의 만남에 의해 일방적인 신관, 유일신관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어요. 또 변화기 시작한 것은 믿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깨침을 강조하는 불교를 통해 기독교도 깨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교, 기독교는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배워 자기 종교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 교수는 종교 간의 대화에 앞서 '내 종교만'이라는 만만주의(근본주의)를 버릴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만만주의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지만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사찰 방화 등의 훼불 사건도 바로 이런 만만주의의 대표적 산물이란 것이 오 교수의 지적이다.

〈예수는 없다〉가 근본주의, 즉 말이나 관념이나 개념에 매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책이라면, 〈귀향〉은 다른 종교에 대해 눈과 귀를 닫아버린 한국 종교인들에게 오 교수가 권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오 교수는 화엄의 법계연기를 연구한 〈화엄사상의 연구〉란 논문으로 학위를 받을 정도로 불교학에도 조예가 깊다.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대학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선불교



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그는, 학위 논문을 토대로 일반인들을 위한 화엄사상서 출간의 원도 세웠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종교인은 어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웃종교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맑은 정신 깨우는 선의 정수

'선림승보전' 원철 스님 역



"내가 스승의 회상에서 공부할 때 스승께서 죽비를 들고 귀성이라는 당나귀 같은 놈에게 묻는 것을 보았다.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난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귀성이 가까이 오더니 죽비를 빼앗아 땅에서 던지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스승께서는 '눈먼 놈아' 라고 하였다. 그 때 귀성은 깨달았다고 한다."

신간 〈선림승보전〉(하권 장경각)은 광혜 원련선사(951~1036)가 대중에서 설한 선 법문으로 시작된다. 선림승보전은 제목이 말하듯이 선림에서 보물이라고 할 만한 선승들의 깨달음의 기연, 법문, 찬 등이 수록된 선종사서의 정수로 꼽히는 책이다. 수록된 선승들은 중국 조사선의 활화산기였던 송대를 살다간 선사들. 지난 99권 출간한 상권이 선림승보전 15권까지 번역했고, 이번에 출간된 하권은 16권 '광혜 원련선사' 부터 30권 '황룡불수유청선사' 까지 번역한 것이다. 옮긴이는 원전연찬 및 경전번역을 하고 있는 원철 스님.

선사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가운데 지엽들은 모두 버리고 정실만을 모아 놓은 이 책은 맑은 정신을 되찾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현실 직시하면 깨달음 온다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손혜석 지음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지만, 삶에 대한 불안과 의심은 오히려 커져만 간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이정표를 찾아 헤맬 때가 많다. 최근 들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상의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명상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출판가에도 갖가지 명상서들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책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명상법인 위빠사나 관련서들이다.

신간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아름드리미디어)은 위빠사나 명상 초심자들을 위한 명상 수련 지침서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연기사상으로 본 현대과학

'카오스와 불교' 김용운 지음



카오스 이론과 불교 사상을 연구해온 김용운(한양대 수학과) 교수가 내놓은 〈카오스와 불교〉(사이언스북스)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사상과 현대 과학으로 이어지는 서양철학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천착한다.

이 책에 흐르고 있는 불교의 사상은 모든 현상에는 본질이 없다는 제법무아(諸法無我),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라는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 그리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므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철학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카오스와 불교는 한결같이 모든 현상은 원인인 인(因)과 조건인 연(緣)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하며,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연기론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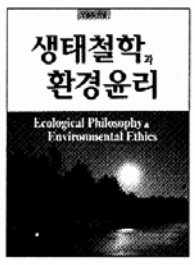
불교에서 바라본 과학 세계를 다루면서 틈틈이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사에 대한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침도 던져준다. 가령 어느 부분을 잘라내도 전체 모양과 닮은 프랙털 도형이나 코흐곡선을 설명하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의 의미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충족된 밀도에 있으며 그 시간을 위해 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학과 문명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인간과 자연' 공생 위한 성찰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구승회 지음



자연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존의 토대로서 인간과 공생의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망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자연의 인간'이 아닌 '인간의 자연'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를 연구해 온 구승회(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교수가 내놓은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동국대 출판부)는 인간의 자연관에 대한 변천사를 탐구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모색한다.

크게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로 구성된 이 책은, 자연에 대한 철학적 탐색의 역사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대의 자연관에서부터 근세 이후의 자연 이해 방식의 변천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머레이 북친과 사회생태론, 그리고 지은이가 주장하는 에코아나키즘, 에너지 위기 시대의 철학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은이는 에코아나키즘에서, 생태위기는 20세기 문명이 남긴 가장 큰 상처라고 진단하고, 에코토피아를 향한 에코아나키즘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휴머니즘의 원칙과 희망의 원칙 그리고 욕망의 법칙에서 필요의 원칙에로의 전화가 바로 그것이다.

'환경윤리'에서는 생태주의, 환경주의, 환경관리주의 등 환경윤리학의 문제 영역을 세분화하여 탐구한다.

독자들은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라는 책의 제목에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윤리는 철학에 있는데 독자적인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일 것이다. 책의 제목은 지은이가 주장해 온 생태철학과 환경윤리의 영역구분과 관련이 있다. 지은이는 들머리에서 "자연에 관한 철학, 생명유지체계로서의 생태계 전반에 관한 철학적 반성을 시도하는 영역을 생태철학, 그리고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 등 인간의 대자연 활동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처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영역을 환경윤리다"설명했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영가천도와 49재

죽음 이후 세계 왜 두려워 하나



49재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7일째마다 일곱 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죽은 이의 명복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이다. 그래서 '칠칠일', '칠칠재'라고도 한다.

신간 〈영가천도와 49재〉(민족사)는 불교에서 영가(죽은 이)를 의하여 영혼을 천도하고 49재를 지내는 이유와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49재를 지내는 이유는 영가가 속히 고통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 즉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지들은 영가를 위하여 부처님께 축원하고 또 보시를 통하여 명복을 기원하는 것은 망자를 위한 진리의 만찬이라는 것이다.

또한 책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영가가 새로운 생명을 받기까지의 49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티벳사자의 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고, 한글대장경 〈제법집요경〉에 수록된 '지옥품'의 내용도 실었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2	거울	원 성	이 레
3	발심삼론	탄 허	교 림
4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5	유식학 강좌	고 목	삼 양
6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7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8	깨달음의 꽃1	하 춘 생	여 래
9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10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집계 연속 1위의 화제의 신간!

이 시대 수행자들이 들려주는

나의 행자시절

풋풋했던 초발심의 행자시절을 거치며
묵묵히 출가의 길을 걷고 있는 45인의 스님들 이야기!

고봉 광우 도견 도법 도윤 동광 명고 무관 범룡 법흥 보경 보광 볼굴
상륜 석주 선용 송암 송월 영진 운경 원담 원소 원타 원택 월운 응각
이두 인묵 인환 일면 일진 장일 종립 종성 지명 진월 천운 탄성 퉁광
혜거 혜광 혜남 혜담 효림 효명

편암함과 쉬운 길만은 가려 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수행의 길을 제시한 맵짜한 '시집살이' 이야기!

월간 <해인>기자 박원자 엮음





헤남스님 감수
김영애 지음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

■ 우리나라 절 안의 생활 모습과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해설한 불자 필독서!
■ 불교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독송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의 원문과 해석을 실은 불교 입문서!

다흰미디어 TEL 02)528-0126/7
각권 값 8,000원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격월간 참여불교 2001년 9,10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티베트 불교, 현장 속으로!

특집 I 티베트 불교, 그 현장을 가다
- 탐방기 인과 믿으며 미래 기다린다 / 독립의 그날까지 비폭력으로 / 모든 사람 사랑하면 부처님 된대요
- 달라이 라마 스님과의 일문일답
- 우리가 티베트 돕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

특집 II 교단내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

권두칼럼 전사법 개정안, 정부 예속강화로 대국민 고립 자초
특별기고 10.27법난을 기억하십니까?
불교통일운동의 새로운 맥락과 실천
교계초점 - 사면복권
특별법 제정 화합전기 마련을 / '참회정진' 이 먼저다
만남 천주교 광주대교구 노동조합 박춘우위원장
"우리는 신앙인이자 노동자입니다"
거사열전 '불교적 경영' 실천했던 동명 강석진
기획연재 유럽의 참여불교
국가권력과 종교
이런일 저런생각 "사전 전달자 아닌 당사자로 살고 싶다"

"우리는 결코, 침략자 중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국내분자 수십명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친견하고돌아왔습니다.
방문단원들은 그 곳 티베트인들의 미소에 담긴,
독립을 향한 끝없는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연민의 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제침략시절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법관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지배에 들어간지 42년이 흐른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식민지입니다.
티베트 본토는 중국당국의 통치전략에 의해 상당부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다람살라 망명정부는 티베트 전통을 지켜가며 본토에 끊임없이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교로 민족전통을 이어 가는, 우리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언어도 유사한 식민지의 나라 티베트.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니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불교전통과 조국사랑의 지혜를 말입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수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정기구독신청 02-725-6231

"불교사와 석굴암 공덕주는 김대정"

강우방 교수 '미술자료' 66호에 기고



"불국사와 석굴암은 김대정이란 개인의 신앙과 예술적 감성의 소산이다."

강우방(이화여대 미술사학과 · 사진)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곧 펴낼 〈미술자료〉(반년간) 66호에 기고한 '불국사와 석불사의 공덕주(功德主)'를 통해, 신라의 전제정치를 옹호하고 이를 미화하기 위해 경덕왕이 석굴암을 창건했다는 역사학계의 주장에 대해 미술사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 교수는 두 사찰이 건립된 시기는 정치적 대혁명이 일어났던 극도의 사회적 혼란기로 국가는 이미 대찰을 건립할 만한 힘을 상실했고, 완성을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라는 화엄사상을 정치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불국사와 석굴암의 건립은 국가나 왕실이 아닌 김대정(김대건을 지칭)이란 개인의 신앙과 예술적 감성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즉 두 사원은 정치적 동기를 찾기 어려울 만큼 예술성이 높고 그 속에 내재한 정신 고매하다는 논지다.

강 교수는 김대정이 현생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지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30년 가까운 오랜 공사기간에 걸친 대찰을 지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화 같은 효 이야기는 후대에 꾸며진 것이 틀림없다는 것.

이 외에도 강 교수는 김대정은 명문대가의 왕족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미술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던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의 사원건축 가운데 가장 높은 예술성을 띠고 있는 두 사찰은 국가의 정치적 소산이 아닌 예술적 통찰력이 뛰어난 공덕주 김대정이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대정 개인이 어떻게 대찰건립이 가능했을까. 강 교수는 〈신당서〉 '신라전' 기록을 토대로 김대정은 성덕왕대에 중시를 지낸 김문량의 아들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토대로 정계에서 은퇴한 후 정치와 관련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숭고한 예술품을 창조하려고 혼신을 힘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선어록 번역 정확성 재검토"

송인성 교수, 한국선학회 발표회서 주장

'번역은 반역이다'는 말이 있듯 번역에는 '오역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하지만 번역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상하리만큼 불교학계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 한문으로 된 원전을 번역한다는 게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거니와 연구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 때문이기도 하다.

〈한글대장경〉이나 각종 선어록 관련 번역 문헌에 대해 정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진원지는 15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월례 발표회.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선종사 문헌인 〈조당집〉의 국내 번역본이 그 대상이었다.

'〈조당집〉 번역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한 송인성 교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 조교수 · 사진)는 〈조당집〉의 유일한 완역본인 〈한글대장경〉의 〈조당집〉(183, 184권)과 법장 스님이 모두 20권 가운데 우선 1~5권을 번역해 내놓은 〈조당집 주해 Ⅰ〉을 대상으로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책에서 모두 '광주의 남쪽'으로 번역하고 있는 〈조당집〉 권3 '혜충(惠忠) 선사' 편의 '광남(廣南)'이 대표적 예로, 광남은 송나라 초기 존재했던 지명이다. 뒤에 이어지는 '광주의 남쪽 조계산…'과 관련시켜 살펴봐도 '조계'는 실제로 광주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중국의 역사나 문화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온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역시 단어 관련 오류다. 〈조당집〉에는 당시의 구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구어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잘못 번역한 예다. '동서(東西)'는 '움직이다'는 뜻이므로 '동서로 서로 자유로우니라'(권4 약산화상(藥山和尙))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네'로 번역해야 맞고, '조심하다, 주의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호여(好與)'를 '주의하게'가 아니라 '더 주어야 좋겠다'고 번역한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논평에 나선 박영록(충주대 중국어과) 교수는 "사전적으로 A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꼭 A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예컨대 단순히 '움직이다'로 번역해 버리면 '동서'에 들어있는 '반복성과 방향성'이 살아나지 못해, 약산 스님이 질문한 '來去(왔다갔다 하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못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설전(舌戰)은 단순히 글자 한 자, 자구 한 구절을 둘러싼 번역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송 교수는 "국내에서 선어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선의 어록〉(전 10권)을 재번역한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불교학의 수준이 우수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류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미 나온 번역본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원문을 읽고 원문을 올바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당집' 번역 오류 많아 일반인도 활용하도록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 내년 5월 열린다

30여 불교학술단체 대표자 결의 대회장에 목정배 교수 추대

전국 규모의 불교학 대회가 내년 5월 3~4일 동국대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학회를 비롯해 불교학연구회, 인도철학회, 고려대장경 연구소 등 30여 개의 불교 학술단체 대표자들은 8일과 12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또 대회장에는 목정배 한국불교학회장(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을, 조직위원장에는 해주 스님(불교학연구회장), 단체협의회장에는 장충식 동악미술사학회장을 추대키로 했다. 조직위원장 산하에는 총무, 홍보, 학술, 섭외, 편집, 기획, 전산 분과위원회를 두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또 불교학 결집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계의 학술 단체장들이 주축이 된 '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목정배 회장은 "내년 결집대회에는 불교학뿐만 아니라 불교문헌학, 불교사학, 불교예술, 불교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하며 연구하는 2백여 명의 불교 인재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단순한 고전문헌연구나 학술 논문 발표회의 차원을 넘어 불자들이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참신한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집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목 회장은 "대회 시작 전부터 어느 일정분야를 참가자들에게 지정해 주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어렵게 된다"며 "어떤 분야에서 무슨 방법으로 연구했든지 자신의 연구결과가 교단사적으로 불교 결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등 30여 개 학술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내년 5월초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모임에는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동악미술사학회 △인도철학회 △한국선학회 △회당학회 △고려대장경연구소 △보조사상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 △원광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동국대 불교대학 △위덕대 △중앙승가대 △진각대 등 26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高僧 다시보기

소현 스님과 유가종풍

소현(1038~1096) 스님은 고려 중기 유가종풍을 드높였던 고승임에도 일반인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대학생들이 즐겨 보는 한국사 개설서에는 '보수적 귀족불교인 법상종(法相宗)은 당시 최대 문벌 귀족인 인주 이씨 가문과 연결되어 도움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법상종을 크게 흥성시킨 인물로서보다 정치적 경향이 짙은 승려로 오해될 여지를 남겨둬 아쉬움을 준다.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 불교의 교종을 대표하였던 유가종(瑜伽宗)은 홍왕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불교계를 주도하였고, 스님에 이르러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일명 법상종이라고도 한다. 유가종은 현종대 현화사가 창건되는 것을 계기로 대지국사(大智國師) 법경(法鏡) · 혜소 국사(慧炤國師) 정현(鼎賢) · 지광 국사(智光國師) 해린(海麟) 스님 등이 활동하였고, 스님 때에 와서 전성기를 맞이하며 무신 집권 무렵까지 유명 문벌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 유가종승으로 출가했다.

따라서 스님은 고려의 유가종을 대표하는 고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스님이 유식학 관련저술을 남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스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스님이 입적한 곳에 세워진 비문에 의하면, 스님은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인주 이씨 가문인 이자연(李子淵)의 다섯째로 태어났으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어머니인 인예 태후의 동생이다. 스님은 문종 2년 지광 국사 해린에게 출가하여 늘 스승과 함께 하였고, 해안사 · 금산사 · 현화사 등 유가종 주요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다.

유식학 저술 32부 353권 조판 간행
유가종 사찰 총괄기관 설립 앞장

스님의 행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금산사에 광교원(廣敎院)을 짓고 〈법화현찬(法華玄贊)〉과 〈유식술기(唯識述記)〉를 비롯한 규기(窺基) 스님의 유식학 관련 저술 32부 353권을 교정하고 조판 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의천 스님이 경전을 수집하고 목록을 간행한 사실과 비견되는 일이며, 실제로 스님은 의천 스님의 부탁을 받고 〈아미타경〉과 관련되는 서적 13부 20권을 간행하였는데, 당시에 경(經)과 함께 논소(論疏)를 간행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유가종의 사찰을 총괄하는 기관인 선리관(繕理官)을 두도록 왕에게 건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현장(玄奘) 스님, 규기 스님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가종 여섯 스님을 선정하여 유가종의 본산인 현화사에 영정을 모시고 전국 각지로 보냈다. 앞으로 더욱 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터이지만, 고려 후기 수선사 내지 백련사 결사운동에 앞서 유가종에서 먼저 결사운동이 행하여진 것도 스님의 이러한 정신과 실천성을 계승한 것이 아닐까….

이처럼 스님은 당대의 최대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오로지 유가의 계통을 바로잡고 민중들에게까지 종풍을 널리 펼치고자 노력하였던, 고려 유가종을 대표하는 고승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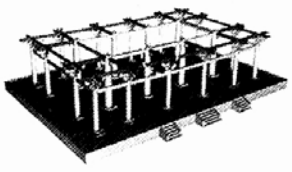
안동 봉정사 극락전 해체 보수작업 착수

2003년 6월 완료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인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사진)이 해체 보수된다.

문화재청은 6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10월 해체 보수 작업에 착수, 2003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봉정사 극락전은 1972년 수리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처마와 공포부재에 처짐이 발생하고, 벽면에 균열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 8월 23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물의 보존을 위해 해체 보수키로 결정됐다.



부석사 무량수전 3차원 영상 재건축

이현수 교수 CD · 책 발간

국보 제18호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디지털 3차원 영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이현수 교수는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석사 무량수전을 3차원 영상으로 재건축하고, 그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량수전〉을 책과 CD로 발간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무량수전의 시공과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CD 롬에는 한번도 해체 복원된 적이 없는 무량수전의 건축과정을 3차원 영상에 담았다. 이은자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에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향림 빌딩 2층 204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 대표전화 : 02) 679-5902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일이면 레이키요법가(氣 치료능력자)가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사람과 빛이 담겨있는 우주의 생명 기운(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바로 끌어다가 질병도 치료하고 생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3일만에 하는 것이 박희준 식 레이키 입니다.

단 3일간의 교육으로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침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봉사자
 * 만성병 환자, 성인병 환자, 그 가족
 * 임신, 태교, 순산을 원하는 부녀자나 그 남편
 * 마음의 정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氣능력자로서 활동하려는 분등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 들면 전반적으로 기운과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같은 기운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 병이 낫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레이키 요법은 세계에서 제일 효과가 높은 리랙세이션(잠을 잘 자게 하는)법입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가족(유학을 가 있는 자녀)에게도 여기서 먼데 치료(원격치료)를 해주고 기운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빌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 있는 한국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의 레이키계에서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핸드폰 019)392-2557, 018)850-1680

운세 30초이내 적중! (명리학)

● 공개 감정(실전 30초 이내)
 월~금 16시~18시
● 전화상담 전문인 양성
 (기초가 된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음)
● 교재 (사주 첩경, 이석영 저)
● 명리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5년
● 명리학으로 생에 대한 모든것은 물론 코에 있는 점까지 조명해내는 이론, 신기합니다.
● 통장으로 입금되는 상담, 이제는 핸드폰으로 결제되는 시대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 위치 : 지하철 7호선 장승백이역 하차 3번출구 100M 전방 종로약국 근처에서 전화요망!
● 연락처 :02)822-0595
 051)758-3427(토요일/일요일)
 011)498-5067

명리연구인 김 진 동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친년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목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탑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行住坐臥를 언제나 마음에 담아 둘지어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㊽

(47) 만법귀일(萬法歸一)

혜가는 달마 조사가 말한 하나(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부처님이 설한 만법귀일의 일(一)이나 고불(古佛) 이래 전해져 온 삼진귀일(三眞歸一)의 하나(一)가 단순히 글자 뜻풀이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혜가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제자는 하나(一)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부디 자세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달마는 그런 물음이 있을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라는 것은 무극(無極) 안에 있는 한 점(一點)의 영성(靈性)이니라. 이 하나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진경(眞經)의 골수(骨髓)이니라. 모든 백성과 만물(萬物) 그리고 일체의 영물이 모두 이 하나에서 생겨났느니라. 삼계(三界)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말미암아 생성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는 하늘(天)과 땅(地)을 안정시키고 양의(兩儀)를 판정(判定)케 하여 음양을 낳고, 남녀를 생기게 하여 인근(人根) 곧 사람의 근본을 제정(制定)하였느니라. 이 하나는 삼보(三寶)를 생기게 하고 이것이 삼교(三敎)의 강령(綱領)이 되었느니라. 삼재(三才)를 거느리고 삼계(三界)를 세워서 건곤(乾坤) 곧 하늘과 땅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것도 이 하나이니라. 바로 이 하나가 태(胎)·란(卵)·습(濕)·화(化)의 사생(四生)을 낳고 사상(四相)을 정위(定位)하고 사방(四方)에 통하고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계(四季)를 구분했느니라.

무극 안에 한 점의 영성

이 하나는 오곡(五穀)을 낳고 오기(五氣)를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행(五行)도 생기게 했느니라.

이 하나는 육미(六味)를 낳고, 육기(六氣)를 분성(分性)했느니라. 육효(六爻)를 안배하고 육축(六畜)을 화육하고 육도(六道)로 윤회(輪廻)케 하느니라.

이 하나는 일곱 개(七)의 구멍을 낳고 칠정(七政)까지도 생기게 했느니라. 방위(方位)마다 칠숙(七宿 : 일곱 별)을 세웠으니 곧 북두칠성이 그것이니라.

이 하나는 팔괘(八卦)를 낳으니 이를 팔대신성(八大神聖)이라 하느니라. 팔방(八方)을 나누고 팔해(八海)를 제어하여 팔부용신(八部龍神)을 생기게 했느니라.

이 하나가 구강(九江)을 낳고, 구곡주(九曲珠)를 정하고, 구궁(九宮)을 구별하고 구관(九關)을 있게 하여 구전(九轉)하여 단(丹)을 이루게 하느니라.

이 하나는 십(十)과 천(千)을 낳고 십불(十佛)로 하여금 온 세계를 보살피게 하느니라. 시방(十方)을 안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십전염군(十殿閻君)을 두게 했느니라.

이 하나는 무극(無極)에서 비롯된 선천운화(先天運化)이니 천불만조(千佛萬祖)와 무수한 진인(眞人)을 낳았느니라. 별(星斗)들과 산하(山河)와 초목(草木)과 만백성을 태어나게 한 것이 이 하나이니라.

이처럼 하나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의 현묘(玄妙)한 이치는 말로 다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로 깨달아 얻게 되면 만사가 해결되고 사생(死生)도 없느니라."

三寶를 연마 일품 이루면 십전염군도 능히 피하고 현빈의 문으로 출입

스승의 자상한 가르침에 혜가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뭉클 솟아올랐다. 그는 하나야말로 선천(先天)의 대도(大道)이며 무궁한 조화(造化)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다. 절로 마음이 밝아오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혜가는 그럴수록 더욱 깊이 알고 싶은 욕구를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스승이 말한 일·삼·오(一·三·五)의 수(數)의 이치는 정미(精微)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고, 하도(河圖)로 귀결되는 하늘(天)의 생수(生數)임을 그는 알았다. 마찬가지로 땅(地)에도 생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사(二·四)의 수리(數理)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이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답함을 벗을 길이 없었다.

혜가는 스승 달마 조사에게 경건하게 예의를 갖춘 다음 두 무릎을 꿇고 앉아 간청했다.

"스승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는 일·삼·오(一·三·五)의 수(數)와 이·사(二·四)의 수에 대한 가르침을 바라옵니다."

달마는 대답했다.

"일·삼·오(一·三·五)의 수는 합하면 구(九)가 되지 않느냐. 역(易)에 이르기를 양(陽)은 구수(九數)를 쓴다(用)고 했느니라. 이·사(二·四)의 수는 합하면 육(六)이 되니 역에서는 음(陰)이 육수(六數)를 쓴다고 했느니라. 구(九)는 양에 속하니, 양은 가볍고 맑은 기(氣)를 갖는 것으로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느니라. 육(六)은 음에 속하니, 음은 무겁고 탁한 기를 갖는 것으로 아래로 내려와 응고하여 땅이 되었느니라. 수도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탁함을 떨쳐 버리고 맑음이 머물게 해야 하느니라. 삼교(三敎)의 성인(聖人)은 예외 없이 일·삼·오(一·三·五)를 합친 구수(九數)로 된 도(道)를 닦았느니라. 이·사(二·四)를 합친 육수(六數)는 쓰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천당(天堂)과 지옥(地獄)도 바로 수리(數理)와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善)을 행하면 천당으로 올라가고 악(惡)을 행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이치는 자명한 것이니라. 수도하는 사람이 방문(旁門)을 피하고 정문(正門)으로 들어가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느니라."

혜가는 두 손을 맞잡은 자세로 거듭 스승에게 물었다.

"이·사(二·四)의 수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이(二)는 한 마디로 심원의마(心猿意馬)를 말하는 것이니라. 심원은 원숭이같이 변덕스런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의마는 말처럼 날뛰는 뜻(意)을 말한다는 것쯤은 그대도 알 것이렷다.



◇이흥기(1956~)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사(四)는 눈, 귀, 코, 혀 곧 사상(四相)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二)와 사(四)가 합하여 육근(六根)이 되고 육근이 육적(六賊)으로 화하여 분출(分出)하느니라. 육도윤회(六道輪廻)도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느니라. 그래서 인도(人道)는 둘이고 축도(畜道)는 넷이라고 하느니라. 대저 사람의 진성(眞性)이 어머니 뱃속인 선천시절(先天時節)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일기(一氣) 곧 한 기운으로 상통하느니라. 그때는 심의(心意)가 한 데로 모이고 사상(四相)도 화합하느니라. 오로지 한 구멍(一竅)이 있어 삼보(三寶)로 통하고 오원(五元)이 혼합하여 일체(一體)를 이루니 능히 움직이되 말은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열 달이 차서 만삭이 되면 마치 오이가 익어 꼭지가 떨어지듯 한 주먹 고깃덩이가 세상에 떨어지게 되는데 태중(胎中)을 벗어나서 탯줄을 끊으면 선천의 기운은 거두어지고 후천의 기운을 받게 되느니라. 아기가 왜 큰소리로 울며 세상에 나오는지 아는가? 그것은 이제 고해(苦海)에 떨어져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혜가가 스승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고해란 사바 세상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뜻이라도 있는지요?"

달마는 싱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눈, 귀, 코, 혀를 일컬어 사대고해(四大苦海)라고 하느니라. 본성이 눈을 통해 소모되면 난생(卵生)으로 떨어지고, 본성이 귀로 소모되면 태생(胎生)으로 떨어지고, 본성이 코로 소실되면 화생(化生)으로 떨어지고, 본성이 입으로 소실되면 습생(濕生)으로 떨어지느니라. 여기에 심의(心意)가 한 번 동하면 육욕(六慾)이 생기니, 육진(六塵)을 일으키면 무겁고 탁한 기운이 덩어리가 되어 지옥이 되느니라. 사람이 짐승으로 전생(轉生)하고 짐승이 사람으로 전생하니, 낳아서 죽고, 죽은 뒤 태어나는 윤회가 그치지 않느니라. 본래 사람의 본성은 선(善)한 것으로 천성과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습관에 따라 차츰 멀어졌으니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달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게송을 읊기 시작했다.

"삼귀오계(三歸五戒)의 법어(法語)로 청정(淸淨)히 하고, 그대의 영명(靈明)한 현관일규를 지점(指點)하노라. 삼심사상(三心四相)을 모조리 쓸어내고 십악팔사(十惡八邪)를 깨끗이 제거하라. 삼보(三寶)를 연마하여 일품을 이루면, 육적(六賊)을 거둬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라. 호흡이 뚫려 한 구멍(一竅)으로 돌아가니, 현빈의 문(玄牝之門)으로 출입하게 되리라. 이로 말미암아 고뇌에서 벗어나니, 십전염군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신불(神佛)의 도(道)이니, 행주좌와(行住坐臥)를 언제나 마음에 담아 둘지어다."

혜가는 감격하여 온몸이 떨렸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승을 우러러 경의를 표했다.

"스승님의 과분하신 가르침에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스승님, 저의 백배(百拜)를 받으소서."

혜가는 정성을 다하여 천천히 백 번의 절을 달마에게 올렸다. 백배는 사은(謝恩) 예절의 극치인 동시에 상징이었던 셈이다. 혜가는 다시 달마를 우러러보며 가르침을 청했다.

"스승님의 자비를 간청하나이다. 삼관구규(三關九竅)가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즉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긁게 담은 입에선 아무런 말씀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혜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마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기다릴 따름이었다. 이윽고 달마가 눈을 뜨며 말문을 열었다.

"삼관구규란 세 개의 관문과 아홉 개의 구멍을 이르는 것이니, 그렇게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을 알면 십전염군도 능히 피할 수 있고, 효(爻)를 뽑아내어 상(象)을 변환시킬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 같은 초입자는 기초도 닦지 않은 터에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지어다. 삼관구규의 도는 이름하여 최상승(最上乘)이라고도 하느니라. 능히 범골(凡骨) 즉 보통 사람을 선진(仙眞) 곧 신선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니, 진성(眞性)의 일점(一點)은 삼계(三界)를 초월하여 시방(十方)의 만령(萬靈)을 모두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니라."

저의 백배를 받으소서

혜가는 달마 조사의 엄숙한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침착하게 스승에게 물었다.

"성명(性命)이라는 두 글자의 근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루 온종일 어느 곳에 안신(安身)하여야 하는지도 교시(敎示)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는 은유법으로 대답했다.

"잠자는 곳은 산 속 바위 틈이라지만, 삽시간에 바다에 날고 하늘에도 오른다. 앉는 곳은 항상 밝아 밤이 없지만, 가는 곳은 바다와 같이 넓고도 넓도다. 일월갑자(日月甲子)를 운행하니 불도(佛道)의 종지(宗旨)를 증명하도다. 아침은 동녘에서 뜨고 저녁은 서녘에 지니, 자오남북(子午南北)이 상통하도다. 황정(黃庭)을 돌아와 편히 쉬니, 그 묘한 작용의 황홀함이 무궁하도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를,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점64」를,
3월호에는 「철판신수」와 「법륜공」을,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5월호에는 「윤달의 산소이장법」을,
6월호에는 「조선의 무격」을,
7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대하여,
8월에는 「중국민간에 전해지는 회춘비결」을,
9월호에는 「한가위 차례 지내기」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이다.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관,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양(+)의 전하(electric charge)를 발생한다. 이 +·-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땅에서는 특별한 지기가 발생하는데, 이 지기가 생기(生氣)이며, 이곳이 바로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에서-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 혈)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함금된 센서를 장착하고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혈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번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번성한 가문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께는 「월간역학」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 지난호(창간호~2001년 8월호)를 88만원에 판매하며, 단,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명당 탐지기 - 관룡자

9월 15일(土) 충남 예산의 명당 풍수견학, 회비 2만원(교통편, 중식포함)

월 간 역 학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전국 시외전화료 없음)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청옥빌아트 101호

종립학교를 가다

(14) 금정중학교

'유재명군 유엔아동특별총회 한국대표 선정' 부산시 범어사 사하촌에 위치한 금정중학교 교문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영어회화반 회원인 유재명군은 9월 16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아동특별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이는 그동안 금정중학교가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한 특기적성교육의 성과다.

금정중학교에는 취미와 관심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결성한 체육, 취미, 학예 분야의 50여개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 50여개 … 특기교육 자랑

학생대표 유엔아동총회 연설
교직원 100% 학생 60% 수계
낙동강 조사 등 생태탐방도
멀티미디어 이용 첨단교육



◇부산 범어사에서 설립한 금정중학교는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지역 최고의 명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사진은 선재지역단의 활동모습.

그 중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는 K.I.C(Kumjong Internet Club)라 불리는 인터넷부와 편집부, 불교보이스카웃, 영극영상반 '해오름', 레슬링부 등이다. 특히 창단 10년이 넘은 레슬링부는 지난 6월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정성화, 강진규 등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다. 또한 연극영상반은 방학을 반납하고 매일 학교에 나와 연극연습을 해 지난 9월 8일 금정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문열 원작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무대에 올렸다. K.I.C.도 학교신문과 인터넷 신문(http://www.kjjhg.wo.to)을 발행하며 학교를 알리고 있다.

종립학교로서의 신행 활동은 단연 전국 최고를 자부한다. 불교학생회, 전국 유일의 불교보이스카웃 지역대인 선재지역대, 명상수련반, 파라미타학생회 등 불교관련 동아리들은 정기 법회는 물론 부처님 4대 명절 기념 법회, 1080배 철야정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한 교직원 가운데 7명이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수계식을 개최해 교직원 100%, 학생 60% 정도가 계를 받았다.

학생들에 못지않게 학부모들의 신행도 대단하다. 매달 100여명이 한차례 법회를 보는 봄자어머니회(회장 강성덕광)는 수련대회 등 학교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도움을 주고 있고 매달 십시일반 보시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임원들이 윤독회를 구성해 경전공부도 열심이다.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실천교육은 금정중학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다.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법기, 회동수원지, 명장 정수장, 생곡 쓰레기 매립장 등을 견학하고 온천천과 낙동강 생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태탐방 및 오염 현장 견학은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실천수업공모에 응모, 올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금정중학교의 모든 교실에는 펜티엄Ⅲ 컴퓨터, OHP, 43인치 대형 프로젝션 TV 등 최신 교육 기자재가 갖춰져 있다. 그만큼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금정중학교는 최근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학습방법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으로 개선하고 있다. 개인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키워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습자료 개발실을 운영, 과목별 최신 학습자료를 비치하고 선생님들이 교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업방법의 변화는 학생들의 인격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수업시간 또는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성, 진로, 인생에 관한 고민을 선생님과 이메일로 상담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

1909년 범어사 침계료에서 처음 당간을 올린 지방학림(중등교육기관정도)을 모태로 교육불사에 매진하기 시작한 금정중학교는 일제시대 두 번이나 폐교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46년 금정 초급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재 개교해 현재 이사장 벽파스님의 후원아래 1,118명의 청보리들이 '민족학교', '지역 최고의 명문사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지식보다 인간존중 교육"

금정중 유기윤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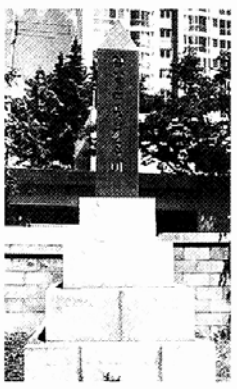
75년 부임해 33년을 근무한 유기윤 교장은 금정중학교의 터줏대감이다. 학교 구석구석에는 그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

유 교장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생과 교사간 그리고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왕따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존중이 올바른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법당에 들러 부처님을 참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유 교장은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그는 또 불교장학금이 1년에 천만원이 넘는다며 장학금 하나만 봐도 지역 최고의 수준이라며 은근히 자랑한다.

3·1운동, 4·19 기념탑 위용

금정중의 자랑



3·1운동 당시 금정중학교의 전신인 지방학림 학생과 동문들이 '一死 는 자유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격문을 수백매 작성하여 동래시장에 뿌리고 동래경찰서로 몰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34명의 학생들이 재판을 받았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를 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1926년 다시 개교한 후 43년 12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에 당시 금정학원 김법린 원장이 관련되어 두번째 폐교를 당했다. 교문을 들어서면 안쪽에 서있는 3·1운동 유공비은 이를 기리고 있다.

"잃은 주권과 빼앗긴 자유를 한사코 찾겠다는 겨레의 비원이 … 동래 시장통에서 젊은넘들이 민족의 정기에 호소하고 우리 주장을 널리 선포하여 만세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운집한 군중이 거리를 메우었을 때…" 3·1운동 유공비에 새겨진 비문의 일부분이다. 짧은 글이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금정인의 굳은 기개를 느낄 수 있다.

한편 3·1운동 기념탑 옆에는 4·19민주혁명추모탑이 서있다. 이 추모탑은 4·19민주혁명 당시 금정중학교 출신의 신정융 열사가 경찰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서거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 1981년 세워졌다.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던 숭고한 정신. 금정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 하교때마다 금정의 살아있는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 지도자 과정 개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호 스님)는 17일부터 12월1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월·금요일 저녁 7시부터 3시간동안 마련되는 이번 강좌는 특강과 종합실습을 포함해 총 7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성훈 선재이벤트 실장 등 불교계 전문 강사들이 강의할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불교교리 △레크리에이션 개론 △스포츠 댄스 △노래지도 △만들기 △실내외 게임 △캠프 교육 △이벤트 및 야외활동 진행 실습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교육비는 교재와 실습비를 포함해 3만원이며, 60시간 이상 이번 과정을 이수하면 수요강좌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02)738-7860

청소년 단신

신라문화원 불우아동 초청 기림사 등 불교문화 탐방

신라문화원은 14일부터 2박3일간 서울·부산·대구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총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답사에서는 경주문화유적 슬라이드 강의를 비롯해 불국사, 분황사, 기림사 사찰참배와 사찰예절 실습, 골굴사 선무도 수련체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성준장학금 6천만원 전달

속초 신흥사 성준장학재단은 15일 신흥사 포교당 원각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스님 9명, 중고생 47명, 대학생 44명 등 총 1백명에게 6천4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성준장학재단은 지난해 10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속초 관내 중·고·대학생들을 위해 신흥사에서 설립했다.

진각종 '자성동이' 재창간

진각종 통리원 포교부는 9월말 어린이 월간 포교잡지 〈자성동이〉를 재창간한다.

이번에 나올 10월호에는 이달의 시를 비롯해 불교전설, 한자공부, 자성찾는 이야기, 우리들 솜씨, 생활속의 지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돼 있다. 진각종은 어린이 포교잡지 연구와 함께 〈자성동이〉를 매달 2천권씩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⑯



• 스트레칭 •

팔·발 들고 내리며

단전 기 모으고 펴

1. 양손을 단전에 놓는다.
2. 단전을 수축하며, 무릎을 서서히 굽히면서 오른팔과 오른발에 기를 보낸다.
3. '이' 소리를 내면서 오른발을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서 90도 각도로 편다. 오른손도 천천히 들어올린다. 이때 몸무게를 양다리에 고르게 싣는다.
4. 단전을 이완하면서 오른발을 왼발옆으로 나란히 내려놓는다. 이때 오른손은 팔목을 돌려 기를 손가락을 통해 보내고, 다시 손목을 이완해 천천히 팔을 앞으로 가져와 처음의 단전 자세로 돌아온다.
5. '뭐' 소리와 함께 왼쪽발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한다.
6. '꼬' 소리를 내면서 다시 오른발로 시도하고, 손은 양손을 함께 시도한다.

교법사실에서

현익채·이종군·이석언 교법사

"인생 얘기하며 불심 퍼트려"



◇현익채



◇이종군



◇이석언

종립학교 가운데 교법사가 가장 많은 학교가 바로 금정중학교다. 교학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명의 교법사 가운데 현익채 교법사는 맏형이나 다름없다.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듯 금정중학교 불교활동은 현 교법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69년 대불련 활동을 시작으로 불교에 귀의한 그는 부산불교중고등학생회를 지도한 인연으로 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불자신행의 길잡이〉, 〈청소년 법회 길잡이〉 등의 책을 편찬하며 청보리들에게 올바른 신행의 방향을 제시했었다. 지금도 레이크리에이션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옆집 아저씨와 같은 포근한 인상의 이종군 교법사는 교학시간에 불교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봄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교학시간에 인생을 이야기하며 불교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남의 종교를 알아야 자기 종교를 더 이해하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가르친다. '나'라는 것보다 '우리'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이석언 교법사도 교학수업방법이 기존의 강의식이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불교야사, 역사, 문화 이야기를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다. 특히 그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연극을 한 경험을 살려 연극영상반을 운영하며 학생지도에 여념이 없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마음 한번 돌리면 흥겹게 살 수 있어

아이들 걱정돼 다시 살지만

문 저는 올해 36살의 가장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집사람이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고 전화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싸우기도 무척 싸웠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하는 사업이 어려울 때였고,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저는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다른 일로 구치소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오다 아이들이 걱정돼서 다시 살기로 하였지만,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보면 미련스럽다할 정도로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과 집 이외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충격도 컸나 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자식 셋을 낳고선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나갔다는 겁니다. 춤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돈을 자꾸 솔솔 빼다 쓰고 그러다 보니 집까지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착하고 약하기만 해서 그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도 자식들이 있으니깐 이혼도 안 하고 '다시 딴 사람을 얻느니 그래도 애들 엄마를 데리고 사는 게 낫지.' 하고는 이태 삼 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깐 그 남편이 그냥 속이 썩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니 이것을 어떡합니까? 그렇게 병이 들어서 차도 못 타고 그냥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인도 나무라지 말고 아무도 나무라지 말고, 신경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몸을 쉬어 가면서 모든 건 주인공한테 맡겨 놔라. 주인공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가든 들어오든 이혼을 하든 그거를 사랑으로 생각지 말고 주인공만이 해결해 주게끔 해라." 이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증오 안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 주노라고 하면서, 그래도 언젠가 당신이 내가 생각날 때가 있걸랑 그 때 다시 와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자식 삼 남매를 위해서라도 받아주겠노라고 하면서 그냥 놔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용돈이 없을 테니까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그때 돈으로 아마 몇 십만 원을 줬나 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런 남편을 두고 나온 자기는 이리 가도 눈물이 나고 저리 가도 눈물이 나고, 이태 삼 년밖에 안됐는데 나중에는 그냥 남편 생각만 나서 꿈에도 남편, 그저 그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중에 들어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하고 빌면서 들어오니깐 할 수 없이 남편이 그 집을 팔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 떠났어요. 떠나서 행복하게, 그 여자는 행복하게 내내 남편을 참, 임금 모시듯 했답니다.

그것이 현실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남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분기가 치밀고 곧 죽여버리고 싶은데도, 그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도 참고 선원에 찾아왔는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턱 놔 버렸더니 세상에, 나중에는 이러한 행복이 우리한테 깃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난 스님의 말씀을 믿고 삼 년을 애들로 인해서 장가들지 않고 기다렸노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었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인간에게는 자력이 있습니다. 그게 조절입니다.

그리고 본래 나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넋을 다룰 때 말입니다, 그 영혼이 아주 나쁘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넋을 거두니까 애당초부터 나빴던 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불성은 다 똑같습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이 마찰이 되기 때문에 나빠졌던 거죠. 서로 때리고 서로 증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인제는 그런 것을 다 버리겠나이다 하구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릴 때는, 본래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나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겸손하고, 항상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착이 없이 겸손하고, 무심으로 겸손하고, 무심으로 행하고, 무심으로 말을 하고, 적을 만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뭐 가질 게 있다고 증오하며 원망하며 힘들어 하겠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보다 나아 보여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몸이 사라질 건데, 사랑한다면 다 가져라 하고 줘 버리지, 너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뜬구름처럼 연기와 같이 사라질 몸을 가지고 그걸 착을 두고서 거기에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적을 지게 하지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해 보고 싶은 대로 다 해 보소 하고 다 주면 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 개를 두고, 스무 개를 두고, 백 개를 두었는데도 도대체 대책도 없어. 그러니 진짜 조강지처의 마음이란, 아니 조강지처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 후에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새를 가진 사람 앞에는 아마도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겁니다. 우주간 법계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줄 겁니다. 이 세상 판사가 법정에 서지 않아도, 법정에까지 설 것도 없습니다, 판단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위에 뚜벅뚜벅 무심으로 걸어가는 행,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도리를 알기에 얼마만큼 피를 흘렸는 줄 아십니까? 나도 사람인데 어찌 사랑을 모르고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마는, 진짜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여러분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도 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그 속에는 묻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것이 한 가닥 무엇인가? 흘러가다 헤어지면 그뿐인 것을 왜 그렇게까지 증오해야 하며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어를 쓰면서 사는 걸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 보세요. 내가 거짓말 조금도 안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렇게도 한다는 거, 공을 던지면 튀어 오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이 부처님 법 아니고서 뭐가 부처님 법이겠습니까. 마음 심(心) 자 하나로 인해서 팔만대장경이 나왔고, 수많은 말이 나왔고, 이 세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그냥 나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과 부처의 불생불멸

문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많이 알고 싶고 또 바른 법을 깨닫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읽다가 스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몇 자 질문 올립니다.

조상님 천도하러 절에 갔다가 염주와 〈금강경〉을 그 절 스님께 받고 나서 저 혼자 〈금강경〉을 읽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 전체가 부처님이 아니실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눈물로써 말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을 때도 계시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원래의 양심이 부처님이신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제 눈을 통해서 주인공은 이 글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주인공이 부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제 자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문 중에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을 깨달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문득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후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불생불멸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시 살아나신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여러분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보고 절하실 때 어떠한 생각으로 절을 하시는가요? 저 형상은 내 몸 형상과 둘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도 그 생명도 둘이 아니요, 또 움죽거리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작은 물건 하나도 역력히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기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겁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 생각으로서의 마음이 없다면 부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와도 바로 둘이 아니요, 변소에 가도 둘이 아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그렇게 가깝게 두고, 윗 속눈썹 아랫 속눈썹이 깜짝거릴 때 한 찰나에 깜짝거리듯이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게 그렇게 같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삼천 년 전의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마시고 삼천 년 전만 아니라 몇 천년 전, 몇 만 년 전에도 부처님은 계셨고, 지금도 부처님은 계시고, 미래에도 부처님은 영원히 끌간데 없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는 한,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또 생명이 이렇게 푸르르게 생동 있게 움죽거리는 한 아마도 그 뜻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세니 말세가 아니니 운운하지마는 그것을 떠나서 우린 영원히 이렇게 물 흐르듯이, 발 없는 발로 손 없는 손으로, 어디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닫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몸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옷 벗은 거와 같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생명이 살고 있는 한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수없이 나투고 수없이 그렇게 해서 내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가셨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은 못합니다. 살아서 우리가 마음을 발견해야지 죽어서 무슨 발견할 게 있습니까?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기독교 교리로 말할 것 같으면, 살아서 부활해야지 죽어서 무슨 부활을 합니까? 살아서 모르는 자가 죽는다고 알까요? 부처님께서는 살아서 부활을 하셨고 살아서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영에 머무른 게 아니라 나툼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걸 말씀하셨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도리만 알면, 참 자기란 어떠한 걸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툼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씩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하고 돌아가는 이 나툼에 의해서, 행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게 윤회가 아니라 나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한 발을 내미신 것도 기독교교리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본래 살아 있질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 없으니 살았다 죽었다 말하지 말라 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발이라는 건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진 게 아닙니다.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을 내민 겁니다. 왜? 길은 끊어진 게 없다는 거죠. 이건 무한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발이라는 건 걷고 다니기 때문에 무한의 길을, 영원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발로 나툼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아, 저건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무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 이 도리를 아시려면 꼭 자기부터 발견을 해야 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도리도 알고…,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해서 살아 생전에 천차만별로 부활이 됐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어서 부활을 한 게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부활을 해서 천백 억 화신으로 나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투는 자체를 알아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를 알아야 생전에 부활했느니 뭐니,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싸우질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부터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요, 삼합이 한데 합해서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처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깐 내가 믿고 모든 거를 주처에다가 놓는 것이 바로 예수이자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걸 바로 맡겨 놓고 거기서 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아예 결사적으로 작업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부활절도 초초마다 부활절이요, 초파일도 일 초 일 초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도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고 그러니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부활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싫은 사람이 참 많아요

문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인지 몰라도 싫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해도 한번 싫어지면 만나는 일이나 얼굴 보는 일을 제 스스로가 피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반성해도 잘 안돼요. 식구들은 저보고 너무 완벽하게 굴면 스스로 더 피곤해진다고들 하지만, 전 이제까지 살면서 남에게나 제 스스로에게나 항상 솔직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에게까지 절 속이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되겠죠. 어쩌면 좋을까요?

답 마음 공부를 해 나가시기 위해서 선원에 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늙고 젊고를 떠나서 100% 흥낙한 것은 아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고정됨 없이 돌아가는 게 진리이니 노예처럼 살지말고 자유롭게 살라

부처님도 나와 둘이 아니기에 내가 있는 이자리에 함께 있어

기막힌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자신에게 내재한 불성 믿으라

☞ 19면에서 계속

닙니다. 어떤 사람은 밉고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주위의 싫고 좋음을 볼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 잘잘못을 볼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을 다투면서 나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끔들 자기가 자기 과제에서 벗어나려고 나가는 길에 거기서 이 돌 차고 저 돌 차면서 장난하면서 허송 세월을 다 보내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미운 생각을 하면 한없이 밉고 이쁜 생각을 하면 한없이 이쁜 겁니다.

'그건 왜냐? 물론 서로가 이쁜 짓을 못했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지 않겠죠. 허나 그거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일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대가를 받는 거지, 제 삼자가 그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게 행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 볼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남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거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 볼 여지가 없고, 잘못되는 거를 볼 때 '아, 내가 몰랐을 때 예전에 내 모습이로구나.' 또,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나도 전자에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남에게 참 불순했겠지.' 이렇게 자기한테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로 돌려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남의 탓을 하고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절대 남을 리드할 수도 없고 내가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무슨 공부인 줄 아십니까? 죽어야 하는 공부입니다. 왜냐? 산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건지려면 죽은 소굴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부터 봐야, 죽은 사람부터 나하고 친구가 돼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어떻게 잘못한 차원에서, 어떠한 차원에서 들어갔는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차원에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가? 이거를 상세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절대로 남을 한 명도 건질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인공에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살아온 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너는 그렇게 하면 좋지 못해!" 이렇게 몰팡스럽게 말을 던지거든요. 또 때로는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어휴! 저거는 죽지도 않어." 이러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원수로 태어나서 저렇게 내 속을 썩이고 죽게 만드나, 그런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없애려고 든다면 그 속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나와서 인과성으로 온 건데, 그걸 바깥으로 말을 해서 없애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 생각들이 나온 그 자리에다 되 넣어서, 과거에 입력된 것에 자꾸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면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져야 만이 그게 없어지고 착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고 들리는 잘잘못을 넓히고 펼쳐서 스스로 고를 만들지 말고 공을 만들듯이 똘똘 뭉쳐서 근본에 던져 놓고 자유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궁합과 사주가 아주 나쁘다는데

문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다 가르침을 구합니다. 27세 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26살로서 각기 다른 대학을 나왔으나 전공이 같고 같은 혈액형을 가졌으며 성격도 잘 맞고 잘 어울리는데, 궁합과 사주가 아주 나빠서 결혼을 하고 나면 병을 얻게 되고 헤어질 수라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렇게 사주를 보고 와서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여쭙니다. 자기들만 좋다고 하면 내 생각으로는 그들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음 약한 중생들인지라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께서 길을 일러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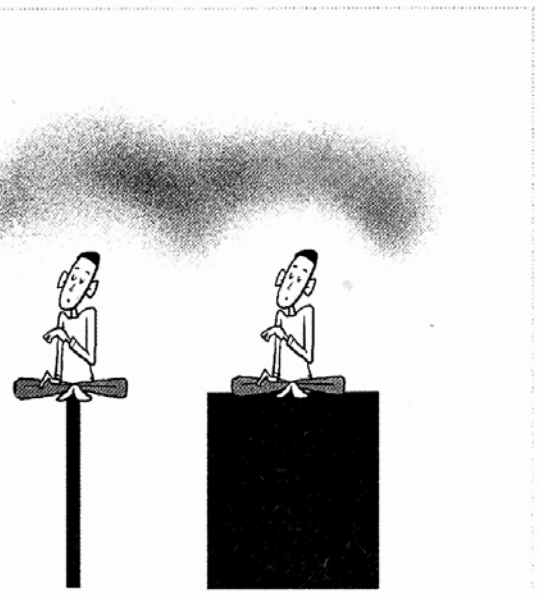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산사람 건지려면 죽은사람부터 봐야

사주 궁합 따로 없고 마음먹기에 달려

답 여러분이 전자에서부터 관습으로 살아나가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무엇을 봐야 된다, 혼인을 해도 궁합을 봐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 궁합들을 잘 봐서 모두들 그렇게 잘 사십니까? 그리고 이사 가는 날짜를 잘 봐서, 그렇게 손을 안 타서 애고도 없고 병고도 없이 다들 그렇게 잘 사십니까?

내가 꼭 이사를 가려면 내가 가고 싶은 날이 그냥 이사 가는 날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날, 식구들이 모두 노는 날이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하고 신부 될 사람이 서로 봐서 아주 나하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서로 가지면 그대로, 주위에서 데리고 살 것 아니니 그대로 궁합이 좋다고 그냥 결혼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되는 데도, 장가를 든다 시집을 간다 하는 데도 말입니다. 궁합이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또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랑 신부가 걸맞는가, 그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걸 봐야죠. 이게 궁합이지 다른 게 무슨 궁합이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날짜에 궁합이 붙고 무슨 윤회에 궁합이 붙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잘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보고 맞으면, 아주 좋으면 그냥 그게 궁합이 맞는 겁니다. 여북하면 궁합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궁합도 맞는 거지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모두가 그냥 엉거주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바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노예죠. 부처 될 가능성이 99%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예가 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는 대로 노예가 되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대로 노예가 되고 이런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죽는 게 있으면 살아 나오는 게 있고, 살아 나오는 게 있으면 죽는 게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요. 이 상대성 원리에 인연의 끈이 달려 가지고 있는데, 온통 달린 그 끈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빼지 못해서 애를 쓰고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거미줄이 됩니까? 그것도 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석연치 않아서 온통 야단들을 하죠? 이사를 잘못 가면 뭐 잘못된다고 해서 날짜를 생각을 안하나, 아니, 혼인을 해도 그렇질 않나,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뭐가 궁합이 따로 있습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요만한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걱정하는 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걱정들을 마시고 좀 활달하고 자유스러운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끝간데 없이 진리는 그렇게 지금 과거나 미래나 현실로 돌아가면서도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모두 어디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물리가 탁 터진다면, 하나가 터지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터지게 되어 있으니 자기를 이끄는 그 주처를 믿고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를 다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길한 징조 어떻게 대처할지

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 생활에 커다란 용기를 얻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히, 주인공을 철통같이 믿으라는 말씀이 무척 와 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연한 징조 같은 데 무척 예민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큰 시험을 하나 두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인근의 선 센터를 찾아 108배를 하던 중, 합장 주가 끊어져 구슬들이 바닥에 다 흩어졌습니다. 당시, 내심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하고 무척 신경이 쓰였으나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요? 과연, 그러한 징조가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마음 상태가 그러한 것들을 자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우연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밤중에 눈을 감고 한번 앉아 보세요. 여러분이 부산에 갔다 왔으면 부산에 갔던 일이 다 환하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거 아는 놈이, 그놈이 자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생각을 좋게 해서 맡겨 놓으세요. 안되겠다, 안 좋은 징조다, '아휴, 이거 또 안될 꿈을 꾸었네, 이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하고 아주 그냥 골탕을 하고 이래서야 어디 부처님답습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본래불!"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본래 불(佛)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분들이 새털 같은 날에 끝간데 없이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길 없는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하고 발 없는 발로 디딜 줄 알아야 하고, 손 없는 손으로 만 가지 칠보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 자성을 찾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우선 믿으세요. 찾기는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한테 그냥 자리하고 있는데. 좀 믿어 봐라 이거예요. 불심지처럼 물러서지 말고. 믿는다면 거기다가 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용돌이 속에 내가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탁 버리겠다.' 이런 패기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살아요, 죽고 사는 게 없는데 왜 살수가 없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자성불이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그랬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좋게 해라. 안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게 어디 있나? '안되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데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겠지.'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안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해 달라지 않아도…. 그러니 더 잘 알고 있는 그놈이, 자기가 지금 되고 싶어하는 거를 알고 있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이는 대로 돌아서 회전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되게 해 주시오' 이럴 필요도 없죠, 알고 있으니까. 말은 안하고 '난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것 좀 가졌으면 이러거든요. 난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그거 잘 생겼는데 이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도 자성이 알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못 믿지 마시고, 반드시 믿으시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성계의 꿈 이야기 해드리죠? 꿈을 꿨는데 죽을 꿈을 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허, 새털 같은 날에 죽는 것 사는 것이 따로 없는데 어찌 죽을 게 있노, 좋은 일 생기겠구만, 승진하겠구만, 하고 거기에 맞춰 용도에 따라서 딱 생각을 해 버리는 겁니다. 밀어 던져요,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아픔과 내 아픔이 둘이 아닌 까닭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 한번 돌리면은 모든 것이 그냥, 이 몸뚱이 속에 모든 것이 회전해 줄 텐데도 근본을 믿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좀 그러지 마세요. 알고 있는 그 자성을 믿고 놓을 수 있고 생각을 잘해서 놓을 수 있다면, 회전이 돼서 50% 안 보이는 데서 50% 보이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는 사람답고 흥겹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밝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듬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 / 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 / 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299-7700

모십니다
기도 하실 공양주 보살님이나, 한가족 같이 사실분 찾습니다
(관음기도도량)
055)552-4542
011)855-111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환영
032)435-04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포교당 운영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1)953-142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본인은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는 선방수자 입니다.
천도재 49재 각종 제사 기도회향, 법회의식, 기타등등 의식이 필요한 사찰에서는 연락바랍니다.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011)883-1055
대우스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구운마늘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원조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조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어성초 · 삼백초 동우회원 모집

좋은 토굴을 수행하는 스님께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경남 거창
055)943-7122
▷ 대구
053)625-5960

사찰경비견 분양
- 우수 혈통의 풍산견/진도견 다수 보유
- 희귀종 자견 보유, 가격 절충

051) 263-9623
264-9621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철마산 보각사
032)522-8131

삼명 수려한
좋은 도량 입니다
참선기도 수양공부 하실 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 강 사
055)932-5706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정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지붕 개 · 보수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각 사찰, 암자, 토굴, 요사채 비새고 허물어 진 곳 지붕개량 및 보수해 드립니다.
054)833-0677
011)9307-0609
지원 합장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초보 찬불가 피아노 3개월 완성 ◇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개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중장연주(법회 산사 중악회 결혼식)
■ 연주를 끝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중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시열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경기 여주
031)885-0168

거제도 노자산 혜양사
▷여 경리 구함
055)633-2178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대
033)661-5878

불교 공부 하실 분
조그만 암자에서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정진 하실 분
- 스님이 직접 지도 함
불교대학 강사
▷ 삼랑진 복천사
055)352-6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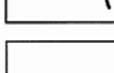
제주도 조그만 암자에서 기도 생활 하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7)692-0956
064)782-2946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홍삼액 제조기
저렴한 가격으로 홍삼액을 드실 수 있습니다
▶ 판매처 : 백운파낙스
공장 053)762-2211

효도상품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酢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 외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지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불편감이 없어져 몸이 기분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토굴 안내
- 가액 : 천만원
- 충북 충주시 동양면 소모천
- 현옥에 목욕탕, 현대식 부엌, 거실 있음
- 토굴마당까지 차량진입 월할

055)383-1288

아마타 불상을 모시고자 합니다
상호원만한 좌대포함 3자반 불상 특수불 제외.
(불상모시는 대금을 지불해드립니다)
055)382-5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내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아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지리산 토굴터
- 경남 함양 마천
- 부지 : 1291평, 대지 : 100평
- 특징 : 600고지, 천왕봉안대
- 가액 : 3,000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안내
- 위치 : 김천에서 15분 거리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 유명 약수터 근접, 도로 인접
- 대지 : 1700평
- 건평 : 요사채 포함 70평
- 가액 : 2억 3천 (주지 직접)

054)432-2840/054)431-4898
017)513-4898

개인 선방 안내
- 풍광 : 앞은 예당 호수 뒤는 봉수산이 어우러진 비산비야의 명당 남향집
- 용도 : 선방, 전원주택, 서예실
- 위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산읍에서 15분 거리, 예당호수에서 150m)
- 대지(76평) + 전(204평) = 280평 책정(천원이상), 불박이가구일체, 커텐, 비틱칼포함.
- 가액 : 8900만원(급 매물)

041)333-3394
017)470-017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051)245-4012
011)617-4013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찰 (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시내 소재)
- 건물 3층 법당(46평)
- 기존 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협성부처님(크기 3자), 문수 원불 52불, 관세음 보살 원불 30불, 대형 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 주방포함
- 가액 : 15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가액 절충가능)

053)565-0430/016)875-0934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건평 70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3억 5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부지 터 안내
명당 절터로 옛 도사가 지정한 곳 좌청룡우백호 경전 해수관음상 전면에 호수와 같은 바다와 옆으로 해송이 자연 경관을 이룸. 약수가 나옴 절터 바로 밑으로 논 230평 있음 임야 4층 공 20평 답 230평
- 위치 : 경남 남해군 해안지역 (사리암절터보다 낮다고 함)

011)694-2986 (주인집)

암자 안내
- 위치 : 김천시에서 거창가는 쪽
- 부지 : 500평 • 부처님 봉안
- 건물 2동 (법당 1, 요사채)
- 가액 : 6천만원

054)434-3392
011)9505-0101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16)501-2725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학인모집 (통신생 포함)
- 과 목 : 풍수, 역학, 한의침술
- 자 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각과정 : 3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 강 사 : 스님(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 현재수업 진행 중, 학인에 따라 진행시간 조정 함

기숙하면서 수업가능, 출가자 지원과 각과목 개원시도 협조함
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69-6 원통사 승가대
☎ 061)334-9930
H · P : 016)639-916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신 중앙시장 옆건물 3층
- 평수 : 47평
- 법당 : 방 3개, 주방, 목욕탕
- 보증금 포함 3,200만원 월 30만원

053)783-8367
016)539-8367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당 : 24평
- 1층 요사채 : 35평
- 가액 : 보증금 36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암자 안내
- 경북 청도(청도역에서 승용차로 15분)
- 대지 130평, 청정 산수가 식수임(풍부함)
- 라일락, 감나무, 석류등, 국화, 조경좋음, 입식주방, 요사채와 연결, 사워실 有, 기름보일러
- 법당, 요사채, 스님기거하시는 방, 모두 최고급 벽지와 장판으로 수리 했음 법당이 작은 무악산을 등지고 있고, 옆의 땅, 매입해서 확장 할수도 있음.

019)284-4939/019)368-4939
가액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
054)373-556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평수 : 3층건물 중 3층 60평
- 요사채, 큰방 주방 외에 방3개,
- 내부시설 : 석가모니불, 관음,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피아노, 대형에어콘, 시설 A급
- 보증금 : 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8)532-7249

임법당 안내
- 위치 : 의정부 도봉산 산하
- 건물 : 24평형, 2층, 삼존불
- 특징 : 주택가, 교통편리 (화룡역 옆)
- 가액 : 5천 3백만원

016)353-8025
031)876-9644

미주사찰 안내
- 위치 : 미국 뉴욕시 한인 거주 지역
- 건평 : 60평 2층 건물
- 가액 : 미화 46만불 (5억 7천만원)

※ 종교이민 영주권 상담해 드림
0011) 212-244-1443
한국시간 PM 11:00~AM 7:00
미국핸드폰 718-986-8826
212-244-1443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사 찰 안 내
사찰 전세
- 위 치 : 서울시 정릉 소재
- 부 지 : 300평(국유지)
- 법 당 : 20평(인법당)
- 요 사 : 20평(한옥)
- 전세가 : 7천만원

※ 뒤는 산이며, 대로변 300M

사찰 전세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소재
- 부 지 : 200평
- 법 당 : 인법당
- 요 사 : 30평
- 전세가 : 1억 5백

※ 뒤는 산이며, 도심 정진 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양도안내
- 대지 : 600평
- 대웅전 : 30평 • 삼성각 : 8평
- 요사(2동) - 1동 : 70평 - 2동: 30평
- 위치 : 포천 근교
- 특징 : 산세와 주변 경관 수려 기도영험도량, 교통편리지역
- 가액 : 3억 5천

사찰전문융역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부지 : 2000평,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연꽃안에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 기획건물 : 40평, 방 8개 주방 욕실 법당이 되어 있고 천탐을 조성하기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가 되어있음.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2억 3천 답사 후 절충

018)533-7780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에서 30분 거리 (절터로 명당)
- 대지 : 1100평 • 건평 : 100평
- 건물 : 황토방 요사채, 본당목조건물
- 특징 : 산세가 좋고 자연공원 소나무 숲속에 위치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833-4669
052)269-466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소사 요지 (소사역도보 5분, 버스정류소 앞)
- 법당, 방2, 부엌1 (총 50평)
- 가액 : 보증금 1500 월 80만원
- 시설비 : 절충

011)9070-101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3포,5포, 급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71/018)689-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 법당 : 30 (목조포집)
- 요사 : 6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5억

- 위치 : 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억 4천

- 위치 : 인천
- 법당 : 30평(포교당)
- 요사 : 20평

※ 시설비 없음
- 가액 : 6천(전세)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시 중동
- 평수 : 70평 5층건물에 5층 옥상사용함
- 보증금 : 1400만 월 100만원
- 특징 : 법당 40평 요사체 방 5개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7)289-7464

토굴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노고재 아래 보현산
- 대지 : 238평 • 건평 : 토굴 13평
- 특징 : 병풍을 두른 산과 옆 계곡 삼존불, 미안마아미타 동불, 약사여래고불, 진신사리 봉안, 기도 수행 정진하기 좋은 곳

전화, 전화, 전기, 암반수조경 설치 사정상 땅값 측정 • 가액 : 3,500만원
011)540-6467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5억 3천 (융자 1억 포함)

교통 및 주변 여건 아주 좋음
(불기구 약 5천만원 상당, 무상제공)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873-156 신화부동산
031)446-1133
016)356-1133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 거리)
- 부지 : 363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창고겸 화장실 7평 답사 후 가격절충

011)455-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30평
- 가액 : 3억 9천만원
- 부지 : 75평
- 요사 : 35평
- 특징 : 산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량섬)
- 부지 : 임야 3800평
- 종교시설허가용지 : 400평
- 법당, 요사채 : 35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기타 모텔 부지로도 가능함
전면 청정해역 바다
뒷산 산세수려하고 계곡물이 아주 좋음

011)845-3430
017)844-9448

토굴 안내
- 대지 : 165평, 재래식 혹집
- 방 2칸, 부엌 1칸
- 가액 : 1750만원

054)437-0150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복리 내천마을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거리)
- 부지 : 건물 2동 논, 밭 6000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송림 울창한 적정처. 주위에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정원 잘 꾸며져 있음. 전기 전화 있음 가제도구 다 줌
- 가액 : 6,500만원 절충 가능

051)257-0052/018)762-4387

지리산 사찰부지
- 위치 :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이 모셔져 있고 일백이 스님께서 예언한 혜동제일의 명당씽게사를 미주 하고 있는 화계장터 심리 벗꽃길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시배지
- 현재 100% 녹차 밭 (1954평)
- 지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30, 606-2, 607
- 도로접 즉시 건축 가능
- 가격 : 평당 10만원, 주인직접

011)875-5500

암자 및 토굴터
- 지리산 쌍계사에서 1.5Km
- 계곡낀 동남향 경관수려
- 부지조성
- 대지 387평
- 주인직접
- 가액 평당 10만원

011)559-3501

혈압 / 혈당
"신비의 명치"
- 혈당조절과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 자연의 힘, 직접체험해 보십시요 15일후면 만족하실 겁니다
- 3代째 만들어온 제품으로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구입문의 031)966-5785

아미타불은 진리요 생명이요 광명이다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행법 노정을 일갈고 욕망이 세속과 승기에 만연하니 물량불사로 신심을 괴롭힌다 오탁악세에 성불하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염불수행을 선택하면 영혼 윤회 절대신 해탈음으로 부터 해방되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① 염불신앙의 원리와 비결
② 정토에 태어나 성불합시다
③ 한국의 염불 수행
④ 도로아 미타불 (아미타경소, 유심안락도 대승육정참회)
총 4권 25,000원 우송해 드립니다.
연락처 033) 254-5397

인생상담요원교육
포교원 등에서 인생상담을 하실 분, 또는 전화에 의한 1:1인생상담을 하실 분들을 위한 전문교육
■ 과 정 : 기초에서 고급까지
■ 기 간 : 4개월 (책임완수)
02)426-2182 자비사
(명일동 굽은다리전철역 4번 출구)

詩碑로 전하는 조주 '차 한잔' 공안

10월19일 中 백림선사서 제막식

한중 문화교류 기념 학술대회도

'차나 들고 가시게(喫茶去).'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연원이 된 화두 '끽다거'는 1200여년간 선과 차를 연결시켜온 중요한 화두다. 불자들은 물론 차인들에게 '끽다거'란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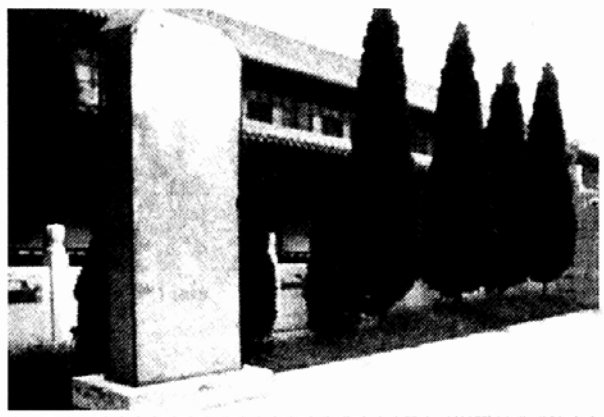
◇조주선사 사리탑에 새겨져 있는 조주선사의 영정(탁본).

삼심의 도리를 일러준 조주종심(趙州從諗;778~897) 선사를 기념하는 차 시비가 스님이 주석했던 중국 하북성 조현시 백림선사(옛 조주관음원)에 한국 불자들에 의해 세워진다.

'조주 선사 차 시비 건립 문화사절단'(단장 진제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과 백림선사(주지 정혜스님)는 10월 19일 백림선사 경내에서 한중 우호기념 조주선사 차 시비 제막식을 갖는다.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이 증명한 2m 높이의 이 차비 앞면에는 조주선사의 행적과 한중 법맥의 원류, 차선일미의 사상을 기록하고 비 뒷면에 동참자들의 이름을 명기하게 된다.

서옹스님은 '조주선사 선차 비명'을 통해 "여래가 누워 있음이여 상서로운 모양이 아니고(如來臥兮非瑞像) 온 기틀과 큰 쓰임이 성인도 측량하기 어렵도다(全機大用聖亡測). 세치의 연한 혀가 방과 할을 뛰어넘으니(三寸軟舌超亡測) 조주조사가 차를 마시니 오래도록 그 빛이 끊이



◇조주선사 차시비가 건립될 백림선사의 경내.백림선사 중수비(왼쪽)옆에 세워진다.

지 않도다(趙州喫茶永不息)"라고 노래했다.

문화사절단은 이날 제막식에 이어 한국과 중국의 헌다 의식과 '조주선사의 선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도 갖는다.

조주 선사의 선사상과 다도사상을 처음으로 조명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북경대 루우열(중국철학) 교수가 '조주 선사의 선사상'을, 백림선사 강주 명혜스님이 '백림선사에 대한 고찰', 부산 미륵암 주지 백운스님이 '조주선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최석환 불교춘추사 사장이 '조주의 다선정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번 조주선사 차비 건립은 달마대사로부터 조주-석옥-태고로 이어지는 한국 선맥의 복원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전망. 실무를 주관한 불교춘추사 최석환 사장은 "중국 선맥은 임제에서 석옥, 태고로 이어진다"면서 "조주선사는 신라 사자산문을 연 도원선사와 법형제 관계로 조주선사 차 시비 제막은 한중 선맥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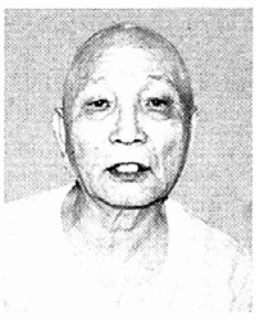
당나라 때의 고승인 조주 선사는 송대에 형성된 선종오가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화두를 많이 남겨 후대 선승들의 수행 과제를 제시했다. 〈벽암록〉에 전하는 100개의 화두중 12개가 조주선사의 것으로, 특히 무자화두(無字話頭)와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앞의 잣나무)가 유명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전쟁 나면 공멸" 30여년간 군포교

가평사암련 무공스님



"전쟁이 나면 공멸합니다. 끝없는 복수를 낳는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평화롭게 잘 살도록 도와야합니다."

경기도 가평지역은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이다. 서울과 춘천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산업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노인층이 많은 지역주민의 종교분포도 불교에 이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런 포교취약지구에서 30여년간 군법당에서 법문하며 군포교를 지원해 온 스님이 있다. 바로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무공스님(청오사 주지)이다.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의 군부대를 빼고 1군단 및 5군단 예하의 군법당을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군포교에 매진해 온 무공스님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법당 지원을 통해 군인들의 정서순화와 마음공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보강연 군인 정서 순화

마을회관 · 꽃동네 돌며 봉사

77세의 노구에도 군포교에 대한 정열이 식지 않은 무공스님은 1950년 부산 동아대에 재학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 같은 해 범어사에서 전 조계종 종정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모시고 참선정진하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다가 8년간 토굴에서 정진하기도 했다. 이후 30여년간 홀로 폐사가 된 청우산 청오사에서 정진하면서도 군불교진흥회 이사를 맡는 등 군포교에 대한 원력을 늦추지 않은 것이다.

무공스님은 사암련의 포교활동도 결국은 불자 개인에 대한 신심과 수행의지를 높이는데 귀결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군법당의 법회와 각종 안보강연을 통해 불교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마음공부를 쉼없이 당부한다.

80여개의 회원사찰을 거느린 가평사암련의 역사는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공스님이 회장 소임을 맡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서원 때문이다.

"이젠 젊은 스님네들이 회장을 맡아야 할텐데…."

끊임없이 베풀기만 한 당나라 때 포대화상을 존경해 절 곳곳에 포대화상을 모신 무공스님은 군내 마을회관을 돌며 연탄과 먹거리를 공양하고 천주교 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며 모든 스님들이 'Happy Buddha' 즉 '복(福)할아버지'인 포대화상이 되길 발원하고 있다.

가평=김재경 기자

남양주 무량사 납골묘원 조성

부지 3만평…50억 들여

남양주시 무량사(주지 홍선)는 사찰 인근 3만여평의 부지에 건평 250평의 현대식 납골당인 '봉안당'을 건립하는 등 납골묘원 '심석묘원'을 건립한다. 홍선스님은 10일 심석묘원 토목공사를 완료, 종교부지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봉안당은 항온, 항습 냉난방 시설과 탈취, 항균장치 등을 갖춘 중앙제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천정의 대형 유리돔과 사방의 채광창을 통해 항상 자연광이 들어와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실내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자기 납골기, 오동나무 납골함 등 예술적인 납골장을 갖춰 편안한 마음으로 영가를 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 공원에는 12기를 함께 봉안할 수 있는 가족부도탑도 분양해 가족 성묘도 가능하게 했다.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홍선스님은 "고양시에 티베트 불교문화원을 설립, 불교문화 포교에 나선 경험을 살려 남양주시 무량사에서는 장례, 사회복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031)594-5552

남양주시=김재경 기자

22일~12월28일 봉림사 백고좌 법회

경남 창원 봉림사(주지 운남)는 9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법당에서 봉림산문 중흥을 위한 제2차 백고좌 대법회를 연다. 12월 28일 대승보살계 수계식도 봉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백고좌 법회의 일정이다.

△9/22 (토)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 △9/28 (금) 화엄 스님-김해 동림사조실 △10/5 (금)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10/12(금요일) 화산 스님-대구 보광원조실 △10/19(금) 종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10/26(금) 지안 스님-통도사 강주 △11/2 (금) 정락 스님-수원용주사 주지 △11/9 (금) 호명 스님-통도사 한주 △11/16(금)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11/23(금) 보성 스님-송광사방장 △11/30(금) 도업 스님-동국대 불교문화원장 △12/7 (금) 현각 스님-동국대 교수 △12/14(금)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12/21(금) 보광 스님-전 해인사 주지 △12/28(금요일)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055)237-2266

"욕망 넘치면 인류파멸"

청화스님 군산불자에 설법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강지식)는 5일 군산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립4주년 기념 청화 큰스님(사진) 초청법회를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지난 47년부터 일종식과 오후불식, 묵언,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수행 방편으로 삼아온 청화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지금처럼 인류가 방만하게 살다가는 파멸에 이를 것이니 절제하고 욕망을 줄이라"고 당부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원각사 경로 바자 열어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임익수)는 올해 처음으로 경로잔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 '아나바다'를 7일 원각사 도량에서 가졌다.

이번 '아나바다'에서 거래된 품목은 불교용품, 염주, 스님글씨, 가정집 기류 등으로 송광사나 대원사 스님들도 기꺼이 아끼던 물품을 내놓아 훈훈한 이웃사랑의 자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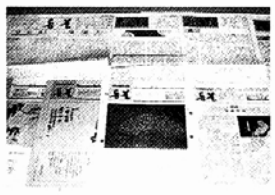
(062)223-3568 김재경 기자

통도사 사보 '등불' 포교 20년

산사음악회 · 전시 등 기념행사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월간 사보인 〈등불〉 창간 20주년을 맞아 등불 축제를 기획,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통도사는 23일 오후1시부터 등불 축제에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등불〉 전시, 독자 퀴즈 잔치, 독자와의 대화, 불자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성년을 맞은 등불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게 된다. 또한 작은 산사음악회에서는 통도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쿠샨티 봉사단원의 고전무용 공연 등이 어우러져 볼거리



도 제공한다.

〈등불〉은 1981년 당시 주지였던 혜봉스님을 발행인으로 강원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타블로이드판 4면을 발행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30호~32호 8면 발행, 33호~37호 16절 형태로의 변화를 거쳐 75호부터 16절 12면의 정식 사보의 격을 갖추어 현재에 이른 〈등불〉은 지령 238호를 맞으며 사보 중 보기드문 역사를 자랑하는 대중포교지로 자리잡았다. (사진) (055)382-7182

부산= 천미희 기자

전문포교사 과정 개설

부산 지역에도 전문 포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포교사 전문 아카데미 과정이 문을 열었다.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은 9일 '포교사 전문 아카데미 과정' 입학식을 거행하고 2년 과정의 교육에 들어갔다.

60여명이 수강 등록을 마친 포교사 전문 아카데미 과정은 불교상담심리학, 포교방법론, 불교수행론과 수행법 지도, 불교와 현대사회학 등의 이론과 포교실무과정, 현장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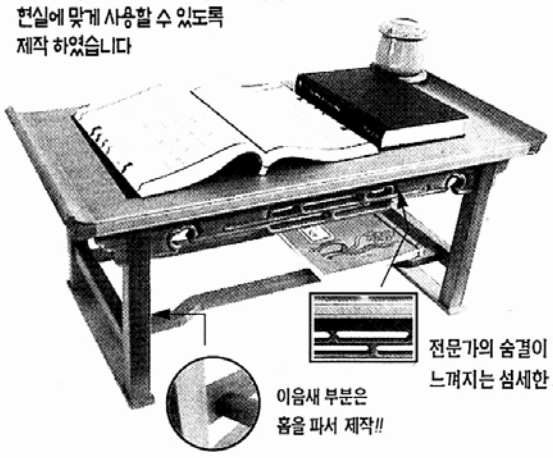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경 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전통적인 경상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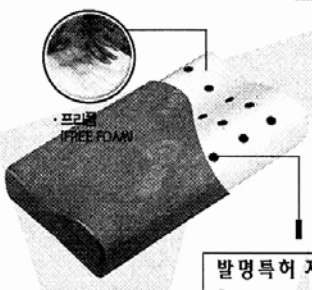


전문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섬세한 조각!!

이음새 부분은 홈을 파서 제작!!

● 특징 : 이음새 부분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홈을 파서 제작하였습니다.
● 재질 : 알마시카
● 규격 : 가로 74Cm × 세로 33Cm × 높이 30.5Cm
● 가격 :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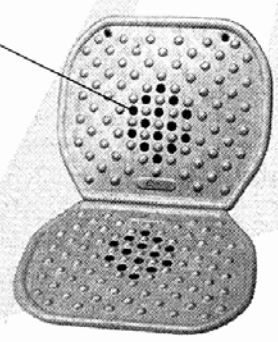
37°氣 배개



※ 프리폼(FREE FOAM)이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저탄성/고밀도 충격 흡수 소재입니다.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잦은 두통 · 불면증 · 어깨결림 · 심한 코골이에 시달리시는 분
● 재질 : 프리폼(FREE FOAM) + 커버(면 100%)
● 색상 : 아이보리, 하늘색 ● 가격 : 69,000원

발명특허 제0188231호
Live soul기(氣) 암석

37°氣 방석세트



● 특징 : 지압효과 · 보온/방습효과 · 항균작용 미끄럼 방지 · 개성있는 디자인
● 효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낭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불량
● 재질 : 발포체(폴리우레탄)
● 색상 : 연보라, 베이지
● 구성 : 방석 + 등받이(의자용)
● 가격 : 40,000원

미농 혼식 세트

아직도 흰 쌀밥만 드십니까?

신비한 효능을 지닌 비싯들의 균사체를 식이섬유와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 순 국내산 현미/보리쌀에 배양시켜 버섯이 가지는 우수한 성분을 매끼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기능성 쌀입니다.

● 구 성 : 상황버섯 쌀(800g)
동충하초 쌀(800g)
영양균형 혼식(720g)
상황보리 쌀(750g)
● 총중량 : 3070g ● 가격 : 33,000원



동(銅)공예 달마도

100% 수작업의 동(銅)공예달마도는 엄선된 동공예 작가들이 명예를 걸고, 전체 18번의 수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명품입니다.

● 사이즈 : 가로 38Cm × 세로 44Cm
● 가 격 : 120,000원
※ 100% 수작업으로 제작된 작품이라 상기 작품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송기간은 4일정도 소요됩니다.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마하몰이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불교식 제사 지낸다" 불자 13%

불교장례문화팎-한길리서치 666명 조사

"불교식 어렵다" 대부분 선입견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반수 이상 응답

많은 불자들이 불교식 제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유교식 제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진(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장, 고려대 강사) 박사가 추석을 앞두고 한길리서치에 의뢰, 8월 한 달 간 666명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에 대한 의식과 그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통일된 '불교제사의식집(가칭)'을 요구하는 등 불교식 제례에 대한 홍보와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6.4%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이중 84.5%가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으며, 불교식으로 지내는 가정은 13.3%에 그치고 있었다. 불교식 제례가 불자 가정에서조차 등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서' 혹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불교식으로 지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응한 불자들의 35.6%가 불교식 제사는 절에서만 모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11%는 불교식 제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불교식 제례에 대한 관심이나 홍보가 저조함을 시사했다.

한편 불교식 제례로 바꿀 의향을 묻는 질문에 70.7%가 '그렇다'고 대답해, 불자 4명 중 3명 정도는 불교식 제사를 지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 대부분 '불교식 제례가 어렵다', '목탁을 치고 염불, 독경하는 것이 어렵다', '한문이나 진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의 내용이 어렵다' 등 불교식 제례와 관련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5.2%가 '통일된 불교 제례가 마련된다면 불교식 제사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불교식 제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불교제사의식집의 통일화(37.9%)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불교제사의식집의 대중화 한글화 간소화 △타종교(유교)와의 접합에 대한 관용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덕진 박사는 "불교식 제례에 대한 일반화가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식 자체가 개선되면 명절제사나 기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 제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齋)'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식 제사의식의 실연도 진행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승가대 발전기금 탁발

중앙승가대 총학생회는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13일 오후 종로구 일대에서 탁발행사를 봉행했다.

중앙승가대 학인 150여명은 조계사에서 입재식을 가진 뒤 저마다 발우를 들고 국세청-탑골공원-인사동을 돌며 승가교육 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했다.

총학생회장 일음스님은 "미력한 힘이나마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탁발행사를 봉행하게 됐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는 9일 중앙승가대 명예학장 석주스님과 총장 직무대행 종석스님 등 학인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구 기숙사(육화당)와 비구니 기숙사(화경당) 법당의 본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한명우 기자

석문호서 토종치어 방생

수덕사-충남도 24일… "생태방생 확산 기대"

그동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무분별한 물고기 방생이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방생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6월 조계종과 환경부가 도선사에서 야생동물 방생과 나무심기, 꽃씨 나눠주기 등의 환경살리기 방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조계사가 다친 야생동물을, 두레생태기행과 '맑고향기롭게'가 재첩을 방생한데 이어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법장스님)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친환경적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수덕사가 24일 오전 10시 당진 석문호에서 개최하는 이 방생법회에는 제7교구 말사 40여 사찰의 주지 스님 및 불자를 비롯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방생법회는 조계종이 '방생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무분별한 방생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명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는 이번 방생법회에 사용될 물고기는 내수면 시험장에서 양식한 치어 25만 마리. 법회에서는 '친환경적 사고로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환경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조계종 7교구 수덕사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본·말사 전체가 '환경운동'과 '인간방생'으로의 방생문화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7교구 본·말사는 이에 따라 나무심기, 꽃길 가꾸기, 야생동물 돌려보내기 등의 환경행사를 통해 환경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사회봉사 박람회'를 둘러보는 대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하는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

동국대 사회봉사 박람회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단장 김용기·학생처장)은 12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사회봉사기관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각 사회봉사기관 실무자들이 자신의 부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기관 및 봉사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봉사자 접수도 받았다. 학교 측은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2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주는 한편 봉사활동 적립에 따라 재학중 1천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 등록금 전액, 700시간 이상은 등록금 반액, 250시간 이상은 장학금 30만원의 특전을 베풀기로 했다.

김중근 기자

조선족 복지센터 추진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조선족 등포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조선족 돕기에 나선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11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조선족복지센터(가칭) 건립 △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등포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생필품, 장학금 전달 등을 진행키로 했다.

8월 20~25일 중국 길림성 현지답사를 실시한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5박 6일간 3만여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연길, 용정 등에서 '조선족 사기 피해자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강 종교인평화회의 사무국장은 "조선족 동포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조선족 돕기 운동이 일회성, 전시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종교인들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범어사 前 재무스님 징역2년

부산 동부지원 선고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범어사 前 재무스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하광룡)는 14일 오전 범어사 前 재무 석호스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권과 신도회 등 각 계각층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노력이 있었지만 공사금액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공공기관을 기만한 것"이라며 "불교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T종합건설 사장 박모씨와 문화재 보수기술자 강모씨에 대해서 징역 3년 벌금 5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징역 2년 벌금 1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종욱 기자

해인사에 소방출장소 생긴다

장경각 등 목조유물 보호

팔만대장경, 장경각 등 문화재의 보고 해인사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출장소가 들어선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유네스코(UNESCO) 지정문화재인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국보 3점, 보물 13점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 목조전각 32채에 대한 화재 진화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인근 소방출장소를 경내로 옮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해인사 소방출장소는 사찰에서 약 3㎞가량 떨어져 있어 즉시 출동하더라도 약 10분이 걸려 초기진압이 힘들다. 소방본부 측은 해인사 자체 소화 시설로는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해인사측과 경내 출장소 설치 부지(300여평) 사용 협의를 마쳤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소방펌프카 2대를 갖추고 있는 현 출장소 근무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전통사찰법 개정안 보존보다 정부예속 강화"

김종찬씨 '참여불교'에 기고

"전통사찰 기능 상실시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고유 민족 자산에 대한 소유권 포기 선언과 같다. 정부와 총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통사찰의 대지를 서로 짜고 팔아먹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종찬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의 '참여불교' 9·10월호에서 '정부 예속강화로 대국민 고립 자초-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부쳐'란 칼럼을 통해 전사법 개정안이 문화유산의 '보존'이 아닌 '보호'라는 이름아래 관료와 승려들이 서로 협잡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번 호에는 기획특집 '교단내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 특별기고 전 조계종 포교연구과장의 '10.27법난을 아십니까?'와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대표 박희택씨의 '불교통일운동의 새로운 맥락과 실천' 등이 게재됐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사후 시신기증 서약

6명의 공군 '동참'

지난 7일 진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만근(공사 28기) 중령이 시신기증에 서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고급장교의 시신기증이라는 점도 주목되지만, 이에 자극 받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장병 5명이 시신기증 뜻을 전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됐다.

이날 제3훈련비행단에서 사후 시신기증을 약속한 공군장병은 이 중령을 비롯해 이 부대 송근우 소령, 김성환 대위, 박종재 원사, 김명길 상사, 박계환 주사 등 6명이다.

시신기증에 서명한 이만근 중령은 "죽어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오종욱 기자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전철 3호선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한민족 역사와 삶의 뿌리 백두대간"



◇소백산 알 도솔봉에서 만난 일몰.

백두대간 속으로 〈42〉 연재를 마치며

1200km 대간 2년 4개월 대장정

무분별 개발로 '몸살' 앓아 아쉬움

향로봉에 올라, 금강산의 정수리인 비로봉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짙은 안개뿐이다. 워낙 일기 변화가 심한 곳이어서 미리부터 실망 연습을 해 왔던 터였으므로 오히려 담담하다.

비로봉. 금강산의 기기묘묘한 바위 봉우리들을 달리 이를 말이 없어 1만 2천이라 했을 것이고, 그 숫자 아닌 숫자의 궁극을 비로봉이라 했으니 예사로운 이름은 아니다. 비로(毗盧)곧 법신(法身)을 일컬음이니, 오늘의 안개는 필시 형상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음을 일깨우는 법문이 아닌가 싶다.

저기 어딘가 비로봉을 앞에 둔 촛대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촛대봉을 앞에 둔 향로봉은 이름 그대로 구름을 향불 연기 삼고 있다. 어차피 분단의 장벽 너머이고, 봄(見)이 함(行)만 못한 바에야, 훗날을 기약함에 있어 이 정도의 아쉬움은 있어 약일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인연인 것 같다. 백두대간 종주 첫날, 지리산 천왕봉도 그러했다. 그때도 지리산의 짙은 안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때문에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안개 너머 북쪽 끝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으로 흘러내리며 이 땅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실체를 더듬어 본다.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땅의 으뜸되는 산줄기 백두대간. 그 길이는 대략 1600km(지도상 거리).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과 같은 명산들의 거처가 바로 백두대간이다. 또한 백두대간은 1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을 가지치고 있으니, 실로 이 땅의 모든 산과 강은 백두대간에서 비롯된다.

우리 땅의 형세를 분절의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으로 인식한 것은, 신라말 후삼국의 격변기의 대선사이자 한국 풍수의 비조로 불리우는 도선 스님에서부터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도선 스님의 저술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지세(地勢)의 본 뿌리는 수(水)요 줄기는 목(木)이라…"

위 인용문의 핵심은 '수모목간(水母木幹)이다. 백두산(천지, 水)에 뿌리를 두고 지리산으로 뻗어나가는 한 그루 커다란 나무의 형국이 우리 땅의 실체라는 것이다.

산은 솟아올라 강을 이루고, 산줄기는 그 강의 윤택히 구실을 하며 우리네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산줄기를 기준으로 기후와 문화가 갈리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쉬운 예로 영남, 영동, 영서 따위의 지역 구분이 모두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를 기준 삼은 것이다.

또한 백두대간은 우리 나라 생태계의 중심축이자 보고이다. 녹색연합이 1999년에 발표한 남녘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특산식물(고유종) 407종 가운데 109종, 환경부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지정 고시한 보호식물 가운데 각각 10종, 56종이 자생하고 있는 등 백두대간 능선 일대에는 총 120과 1326종의 식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동물의 생태는 아주 빈약하다. 이를 전문가들은 산체는 큰데 체력은 허약한 사람에 빗대기도 한다. 실제로 간혹 흔적이 발견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 위기에 놓였고 여우나 늑대 같은 동물은 거의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산양, 산양노루, 하늘다람쥐와 같은 희귀 보호 동물들은 백두대간 일대를 중심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백두대간은 우리네 삶과 생태계의 근간이다.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은 무분별한 개발의 상처로 심하게 앓고 있다. 역시 녹색연합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현재 93개의 도로가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며 생태계의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추풍령 지나 금산이나 백봉령 너머 자봉산 같은 곳은 송두리째 파헤쳐져 인간의 골모를 탐욕을 증언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상거리 640km, 실거리 1200km에 6개의 도와 12개 시, 18개 군에 걸쳐있는 남녘 백두대간의 품에 온전히 안겨보았다는 기쁨에 취해보는 일도 조금은 송구스럽다.

2년이 넘는 시간을 백두대간 속에서 보냈다. 백두대간을 제대로 알기 위한 준비 정도는 된 것 같다.

(군 작전지역인 향로봉까지의 발길을 열어준 육군 00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독자들께 드리는 글

1999년 5월 31일,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0일, 남녘 백두대간의 마지막 고개인 진부령을 지나 금강산의 남쪽 봉우리인 향로봉에서 발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진달래가 세번 피고 졌고, 겨울을 두번이나 만났습니다. 꽃그늘에 누워 봄꿈에 잠기는 나른한 행복감을 맛보기도 했고, 반나절이면 될 거리를 2~3일 동안이나 헤매며 눈길을 헤치기도 했습니다.

연재를 이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백두대간의 진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꽤나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은커녕 매번 낭패감을 맛보았습니다. 알량한 붓끝으로 담아내기엔 백두대간은 너무 크고 깊었고, 무시로 만나게 되는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은 결코 서푼어치 글에 걸려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개인적인 느낌을 거칠게 드러내기도 했고, 참나의 감정을 보편의 차원으로 말하는 '내 눈에 콩깍지' 식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재를 마무리하게 된 점,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고백하건대, 산행 동안의 지배적인 감정은 '춥고, 덥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 따위의 원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굽이쳐 흐르는 산줄기를 한눈에 담는 순간이나, 발 아래 저 편을 가늠하기 힘든 아득함으로 벌려 놓는 운해를 만났을 때, 혹은 밤길을 걷다가 무심결에 산마루에 누워 쏟아질 듯한 별무리를 만났을 때의 충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정이었고 저는 그 감정에 충실하려 애썼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 감정의 표현이 독자 여러분께 과장으로 비쳤다면, 이는 아마 저의 기억 소자가 행복감 쪽으로 기민하게 반응하는 탓일 겁니다. 이점 또한 너그럽게 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산천 아름다움

붓끝에 담기엔 벅차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

더 많은것 보고 느끼게

이제 백두대간을 구실로 독자 여러분을 뵙는 일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저로서는 못내 아쉽고 섭섭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독자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등에 진 배낭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만들었고,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산행을 한 셈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얘기 한 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산행하며, 산 보는 눈이 아둔한 저의 길눈이 되어 주신 구인모 선생님, 좋은 사진으로 어설픈 제 글의 기댈 언덕을 마련해 주신 사진가 손재식 선생님, 좋은 산벗 이원영 씨, 그리고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신 법흥사 도완 스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POSCO
FIFA 월드컵 공식파트너

당신이 몰라주셔도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부터 번지고
시골 소녀처럼 사과빛으로 볼이 달아오릅니다.
당신의 미소에 아찔해지고
당신의 행복에 남몰래 기뻐했던 33년.
당신이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물처럼, 공기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놀이터의 미끄럼틀이 철이라는 것을 몰라주셔도,
자전거의 바퀴에 철이 있다는 것을 몰라주셔도,
그리고 그 철을 만드는 포스코를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철이 있어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철이 있어 세상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만으로
철도, 포스코도 행복하니까요.

세상을 향한 철의 마음이 그저 짝사랑일지라도
포스코는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